

늦 각 이 관 리 소 장 의 자 유 로 운 일 상



최우민  
지음

매  
일

외  
박  
하  
는

남  
자



메이킹박스

## 최옥민

중학교 2학년 때야 전기가 들어온 오지, 평택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새벽밥을 먹고 1시간을 걸어 열차통학으로 평택중학교를 다녔다.

서울대학교를 지원해 낙방하고,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도지방공무원 5급(지금의 9급) 공채에 합격해 평택 군청과 경기도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영전할 기회도 있었지만 군사정권 시절 유신 사무관들의 낙하산 인사에 불만을 품고,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범양냉방과 기아전자에서 공장관리, 노사관계, 총무, 인사, 교육, 기획 등 경영관리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험을 했다.

현대가 기아를 인수할 때 퇴직하여 자영업의 힘든 현실을 체험했고, 10년 전 취득한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안성 베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66세에 시작하여 ‘늦깎이 관리소장의 자유로운 일상’이라는 블로그에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있다. 텃밭 가꾸기, 등산과 여행, 독서를 즐기며 나름 행복한 인생 2모작을 가꾸어 가고 있다.

매  
일

외  
박  
하  
는  
남  
자

# 늦깎이 관리소장의 자유로운 일상 매일 외박하는 남자

초판 1쇄 발행 2020년 4월 24일

지은이 최옥민  
펴낸이 장현수  
펴낸곳 메이킹북스  
출판등록 제 2019-000010호

디자인 안영인  
편집 안영인  
교정 김시온  
마케팅 오현경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312호  
전화 02-2135-5086  
팩스 02-2135-5087  
이메일 making\_books@naver.com  
홈페이지 www.makingbooks.co.kr

ISBN 979-11-970064-9-4(05810)  
값 9,000원

© 최옥민 2020 Printed in Korea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와 펴낸곳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늦 각 이 관 리 소 장 의 자 유 로 운 일 상

매  
일

외  
박  
하  
는

남  
자



최옥민  
지음



## 프롤로그

아침마다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두한 아우가 이 글을 SNS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블로그와 SNS에 공개하게 되었다. 글을 공개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 특별하지도 않은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과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나 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모든 글을 오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블로그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매일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일까 기다려집니다.’ ‘욕심 없이 사시네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욕심을 내어 그동안 블로그에 올린 일기를 책으로 펼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어졌다.

## 봄

평택은 높은 산이 없고, 주변에 나지막한 아산이 군데군데 있는 전형적인 평야 지대이다. 요즘은 아산만의 용수로 논에 물 걱정이 없지만, 내가 태어나 군대를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을은 논 가운데 있는 소류지의 물을 발동기로 퍼서 논에 물을 대고, 작은 하천을 막아서 농업용수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논에 물을 대면서 윗논 주인과 아랫논 주인 사이에서 물싸움이 벌어지는 광경을 흔하게 보아 왔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농사일만을 해서 논 1만 6천여 평, 밭 1천 평, 산 2천여 평을 농사짓는, 마을에선 가장 많은 논을 가진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손을 대신 농산물 유통 사업이 잘못되면서 우리 집의 그 많은 논과 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때부터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교복을 살 돈이 없어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의 칼라를 고쳐서 입고, 남이 볼까 창피한 마음으로 입학식에 참석했었다. 중학교 2학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전기가 들어온 오지 마을이어서 등굣길도 멀었고, 등하교를 하는 데만 세 시간이 넘게 걸렸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비포장 길은 질퍽한 논과 같이 변해 버려 운동화를 벗어 들고 맨발로 걸어야 했다. 평택 읍내에 있는 아이들은 과외로 선행 학습을 마치고 입학할 하는 반면, 나와 같이 시골 오지에서 어렵게 입학한 아이들은 성적 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등·하굣길 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1학년 2학기부터는 한 명,

한 명씩 제쳐 결국 반에서 1~2등을 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서예와 회화, 글쓰기, 영어 웅변 등 음악을 제외하고는 예능에도 다방면으로 소질이 있었다.

##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에 응시하여 낙방을 했지만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학교 부대 보급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11사단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1군 사령부가 주최한 병참 주특기 경연 대회에 사단 대표로 출전해 11사단이 우승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사단 군악대 연주와 오픈 카퍼레이드까지 받고 포상 휴가를 받는 행운도 얻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약 3주 후, 경기도 지방 공무원 공채 시험을 봤는데 평택군에서 수석을 했다. 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 128명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한 달 동안 합숙 연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수석을 하여 도지사 상을 받았다.

공무원을 평택군청에서 시작하였지만 경기도청 전입 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청으로 이동하여 상공, 법무, 기획 부문에서 근무하였다. 그때, 대통령 연두순시 준비단에 차출되어 일하는 등 나름의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영전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사의 반대로 좌절되는 등 유신사무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피해를 받아 결국 공직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공채를 통해 중견 기업인 범양냉방에 입사하여 기업이 취약한 각종 규정과 기준을 정립하여 KS 취득과 교육훈련센터의 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초고속 승진을 하여 대표이사 직속의 교육훈련센터장과 총무부장, 기획실장을 거쳤다. 그 당시 함께 일했던 대표이사가 기아자동차의 계열사인 기아전자를 창립하면서 신입 대표이사로 옮겨 감에 따라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기아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공장 신축과 노사관계의 개선에 나름 기여를 하였으나,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결국 미련 없이 떠났다.

## 가을

경기도청의 추천으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한 실무 교재를 만들고, 시군단위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개선을 주도하였다.

7년여 동안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 떠나, 자영업을 열정적으로 경영하여 짧은 시간에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하였으나 한계를 인정하고 2개 업종을 정리했다. 그 후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안성시 외곽 대림동산 안에 위치한 베르빌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었다. 66세에 늦깎이로 첫발을 내딛고 인생 이모작의 씨앗을 가꾸어 가고 있다.

‘늦깎이 관리소장의 자유로운 일상’이라는 블로그에 매일 일기를 올리며 텃밭 가꾸기, 등산, 여행, 독서를 벗 삼아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나름 애쓰고 있다.

## 겨울

나는 행운이라는 생각을 한다. 공무원과 민간 기업을 두루 경험하고 조합이라는 특수한 조직도 경험했다. 한국에선 힘들다는 자영업도 열정적으로 운영하며 두 업종을 경험했다. 경험만 놓고 본다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관리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과욕일까?

올겨울은 춥지도 않고 눈도 없는 따뜻한 겨울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겨울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겨울은 봄을 위해 차가운 얼음 밑에서 인고의 고통을 견뎌 내는 시절이다. 나의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삶의 이야기가 봄을 기다리는 독자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를 관리소장으로 추천해 주고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최재원 소장님, 아직까지도 동생인 나를 늘 걱정하시는 수원의 누님과 매형 그리고 나의 블로그에 용기와 격려를 전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올린다. 영순 동생과 성진이, 완이와 출판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2020년 경자년 봄을 기다리면서  
안성 대림 동산 베르빌아파트에서

# 목차

프롤로그 / 4

⋮

1. 관리소장의 하루 / 12

2. 등산과 여행을 벗 삼다 / 100

3. 텃밭을 가꾸는 農心 / 140

4. 책을 가까이하고 싶다 / 170

5. 건강을 챙기며 /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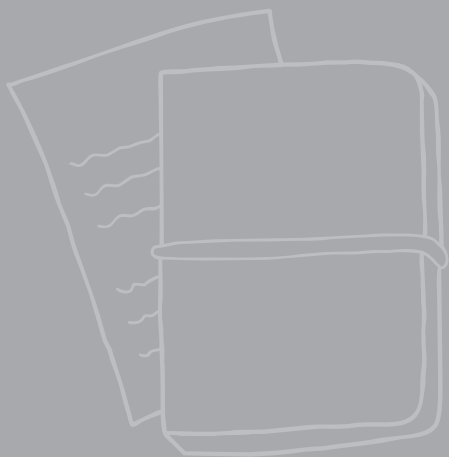
6. 옛 추억을 그리다 / 224





1.

# 관리소장의 하루





**2019. 5. 16.**

나는 아파트 관리소장 일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를 느껴 1년 4개월의 경비직을 거쳤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 대표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3개월째 맡고 있는데, 오늘이 회의 날이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 재계약이 심의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관리소장이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동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해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다. 관리소장의 의견은 2년간 잘해 왔고,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니 재계약을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동 대표 아무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없어 시간만 흘러간다. 적막이 흐르고, 내가 말문을 열었다. “재활용품은 요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도 하지 않아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2년간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승강기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A/S 출동 시간이 핵심인데, 담당 기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니 우리로선 혜택을 받는 상황입니다. 2년 전 계약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다수가 “감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여 의결을 했다.



**2019. 5. 28.**

어제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니 아침이 다소 쌀쌀한 날씨다. 오늘부터 3일간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807호가 교육장이다. 첫날이라 소요 시간도 확인할 겸, 여유 있게 간다는 것이 너무 일찍 도착을 했다. 8시 5분 전에 도착해 교육생인 듯한 사람이 보여 인사를 건네니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주는데 ‘관리소장 필수지침서’이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하러 오신 분이다. 저자 약력을 보니 주택관리사 정병문(주택관리사 6회, 공인중개사 10회, 행정관리사 3회, 조경사 자격을 갖고 있고, 아파트관리소장을 마치고 2013년부터 서울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상담위원으로 현재까지 6년간 활동) 씨이다. 8시 반이 되니 관계 직원이 와서 입실을 하고, 지정석에 앉아 교재를 훑어보는데, 10년 전 공부했던 관계법령의 체계가 많이 바뀌어 다소 생소한 느낌이다. 마지막 날 평가를 보는 것으로 시간표가 되어 있다. 첫 시간부터 졸음이 오는 게 컨디션이 안 좋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니 천 명이 일시에 식사가 가능한 뷔페식당에, 다들 어디서 왔는지 가득 자리를 메운 직장인들의 자유 복장이 장관이다. 신체의 변화가 감정을 좌우한다고 하는 ‘제임스-랑게’ 이론이 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나의 신체가 서울의 복잡하고 오염된 공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복도를 두 바퀴 정도 걷고, 등글레차 한

잔을 마시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것도 위 이론의 입증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지하철로 이동한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겹치니 만원 사태다. 안양을 지나서야 자리에 앉아 교재를 펼쳐든다. 수업 시간에 피곤했던 몸이 다소 회복된 느낌이고, 교재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온다. 내일은 컨디션이 나아지겠지….

##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교육(2일 차)



**2019. 5. 29.**

새벽 3시에 일어나 어제 수강한 내용을 차분히 읽어 본다. 5시간을 숙면한 후라, 맑은 정신에 집중해서 시험도 대비하고 업무 지식도 향상시켰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작업을 두 시간 정도 하고, 샤워와 아침 식사까지 해도 시간이 이르다. 내가 태어난 농촌 마을은 중학교 2학년 때서야 전기가 들어왔던 곳이었다. 평택에서 제일 낙후된 오지 마을로 기억된다. 나는 1시간 가까이 비포장 길을 걸어 서정리역에서 열차를 타고 평택역에 내렸고, 거기서 30분을 걸어 평택중학교를 다녔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무쇠솥에 나무로 불을 때서 아침밥과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다.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비포장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운동화를 벗어 들고 맨발로 걷는 게 편했다. 그 후 공무원이 되어, 평택에서 첫 버스를 타고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터미널에 내렸고, 팔달산 밑에 있는 도청까지 30여 분을 걸어서 다니면서도 제일 먼저 출근했다. 서울에 근무할 때는 여의도 KBS 별관 뒤에 사무실이 있었다. 그곳에 가려면, 버스로 안양 평촌에서 명학 전철역까지, 전철로 명학에서 대방역까지, 걸어서 대방역에서 한강을 건너 사무실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전에 출근을 했던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매일 이른 출근을 하다 하루는 안양에서 일을 보고 직장인들이 정상 출근하는 시간에 전철을 탄 적이 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얼마나 초만원이었는데, 내려서 보니 흰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고 단추 하나가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직장인들의 복장이 정장에서 캐주얼로 바뀌고,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뀐 게 눈에 띈다. 그때는 자리에 앉으면 책이나 신문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책과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람 일색이다. 내가 두꺼운 교재를 펼치니 모두가 나를 주시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나 어찌랴. 시험을 본다는데 시간은 없고, 출퇴근 시간이라도 활용을 해야지. 내가 살고 있는 안성보다 공기의 질 차이가 느껴진다. 제일 먼저 눈이 안 좋다. 나는 역시 시골 촌놈인가 보다.

##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교육(3일 차)



**2019. 5. 30.**

오늘은 3일간의 교육이 끝나는 날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버스와 전

철을 타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 피곤함이 느껴진다. 공기의 질이 안 좋아 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책상 앞에서 일정한 자세로 주입식 강의를 종일 수강했으니 몸이 피곤하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많이 만들어져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받는 게 현실이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유안아파트 관리소장이 과태료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 일 것이다. 평가의 시간이 왔다. 이 과정은 40점 미만자는 재시험을 치르고, 40점 이상자는 수료가 되며, 최고 성적자에겐 금배지가 수여된다. 지난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여성이 15명 정도였고, 92명 중 현직 소장이 35명 정도였다. 시험지를 받았다. 4지 선택형인데 1번부터 가우뚱하는 문제다. 신속하게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나가려 하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고 있다.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난 게 아닌가? 한 번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하고 일어나도 시간상 문제가 없는데 일찍 손을 털어 버린 것이다. 내심 최고 성적도 기대를 했지만, 최고 성적은 경상도에서 온 현직 소장에게 돌아갔다. 무사히 수료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교육 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 가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2019. 5. 31.**

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상쾌한 기분이다. 회사에 가서 임명장을 받고, 내가 근무할 아파트에 가서 지난번 받은 인계인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로 인해서 5월 10일자 퇴직을 못하고 20여 일 더 근무한 심 소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하고, 저녁에는 송별회와 환영식이 근처 식당에서 계획되어 있다. 추가 인계인수를 마치니 11시다. 텃밭의 새끼들이 궁금하다. 햇빛이 너무 강해 3~4시에나 밭을 나가 봐야겠다. 그동안 못했던 집 안 정리를 했다. 냉장고 청소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개운하다. 6시에 식당에 도착하니, 동 대표 중 한 사람만 빠지고 전원 참석이다. 이 자리는 나보다 떠나는 소장에 대한 자리이기 에 가급적 말을 아꼈다. 그리고 술도 못 마시는 것으로 해서 한 잔 받아 놓고 물잔을 부딪치며 건배도 하고 분위기를 맞춰 갔다. 심 소장, 한 주임, 유 주임은 술을 한잔하려고 차를 집에다 두고 왔단다. 떠나는 소장 과 새로 부임하는 내가 인사를 했다. 나는 전임 소장이 잘 다져 놓은 기 반 위에 나 자신은 많이 부족하지만, 대표회장 그리고 동별 대표자님들 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입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데 힘 을 쓰겠다고, 많이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인사를 했다. 대체적으로 반응 과 느낌은 좋았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리드해 나가느냐 이다.



**2019. 6. 3.**

오늘이 실질적인 첫 출근일이다. 처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정상이듯 내게도 찾아들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선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각종 시설들. 아침에 좀 부지런을 떨어야겠다. 집에서 6시 40분에 출발해 신호등이 없는 외곽 코스로 달려오니 12분이 걸렸다. 오늘 출근길은 공도에서 양성 방향으로 가다 우회전해서 대림동산으로 가는 길로 신호등이 없어 다소 우회는 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고, 주변에 배 과수원이 있어 배나무 잎사귀의 초록색이 눈을 시원하게 해 주고, 주변 논과 밭의 풍경이 편안함을 안겨준다. 정문 경비실에 들러 어제 별일이 없었나 확인도 하고, 근무자를 격려해 주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7시 5분, 2시간 일찍 출근을 한 셈이다. 출근 시간만큼은 2시간 전에 하여, 조용한 시간에 나의 일을 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누가 보면 유난을 떤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30여 년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몸에 밴 습관이다. 오늘 나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본다.

08:50-09:10 경비, 미화원, 직원 미팅

09:10-09:40 재활용장 배출물 창고 밖으로 이동 작업

10:00 업무지시(경리 유 주임)

11:00 설비 한 주임으로부터 비상 발전기 작동 불능 문제 보고 접수

- 11:00-12:00 비상 발전기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  
오 주임(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주임)에게 새로운  
업체를 소개받음
- 13:30-14:30 비상 발전기 패널(계기판) 내부 사진 촬영하여 업체에  
보내고, 내일 방문하여 해결 방법 제안하기로 함

비상 발전기는 스타트 모터를 중심으로 4월에 수리를 했는데, 정상 작동에 문제가 생겨 수리한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에서는 수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패널(계기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소리만 하고, 전문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까지 온 것이다. 전기는 전문 업체에 안전 관리를 월 44만 원에 맡기고 있었고, 이 업체를 통해 즉시 해결했어야 했는데 참으로 한심한 관리를 해 온 것이다. 한 달 동안 아무런 문제(정전 등)가 없었기에 다행이었다.

- 15:00-18:20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자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준비  
신·구조문비교표(p.49) 외부에 인쇄 의뢰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자료 준비  
관리비 체납 세대에 독촉장 발송 준비  
올해 예산서 확인  
택배 불출 시간 엄수 협조 요청 공고문 게시

내일은 승강기 정기 검사가 있는데, 안성소방서에서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훈련을 우리 아파트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비상 발전기 수리 업체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아파트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여부도 대표회장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2019. 6. 4.

어제 이건설 친구가 동생으로부터 ‘친구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나갔는데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고 있다’고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왔다. 내가 이전에 명함을 사진으로 보내 줬는데, 그 사실을 벌써 잊은 것 같다. 명함을 메시지로 보내 달란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명함이 든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절대적으로 감퇴되나 보다. 5월 16일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라 했더니, 사진을 찾았다고 답장이 왔다. 오늘도 집에서 6시 25분에 출발해 경비실에 들리니 6시 38분이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밤새 밀폐된 공간의 열기와 냄새가 확 외닿는다. 모든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바뀌지는 동안 아파트 주변을 걸어 본다. 잘 손질된 나무와 풀들, 이름 모를 꽃들이 마냥 정겹게 느껴진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동생이 찾아왔다. 우리는 가까운 한식 전문 식당으로 가 6천 원짜리 백반으로 점심을 했는데 모두가 만족해한다. 우리 아파트를 들어서면서, 웬지 조용하고 전원 속에 있는 깔끔한 단지의 느낌을 두 사람 모두가 받았단다. ‘어떻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시작하시게 되었냐, 정말 대단하다’라고 동생이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묻는다. 사실은 관리소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아파트를 알기 위해 24시간 맛고대 경비직을 1년 4개월 동안 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란다. 친구는 내가 정말 크렘린 처럼 입이 무겁다고 한술 더 뜬다. 두 사람이 나의 새로운 출발을 진정

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게 느껴진다.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아파트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먼저 알리고 싶지가 않았다. 알리게 되면 무엇을 보내오겠다, 찾아오겠다 하면서 시간을 빼앗을 것 같다. 지금 나에겐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을 끝내고, 나의 스타일로 모든 업무를 개선해 가는 게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 꽃밭을 잔디로 바꾸라는 민원



**2019. 6. 5.**

오늘은 어찌하다 보니 6시 10분에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여름 날씨치고는 다소 선선하다. 너무 일찍 출근하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도, 빨리 나의 공간에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회사에 빨리 출근해서 일할 욕심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 이른 밥을 먹고 회사로 달려갔다는 이야기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나의 역할, 존재감, 1등 주의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남자는 자신의 역할을,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한다. 2016년에 주택법에서 분리하여 공동주택법을 제정하면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되어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서류와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내가 공무원과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1인 1PC 시대가 아니었다. 1984년 회사로 전직을 했을 때, 담당자인 여사와 남사원 정도만 PC를 사용했으니 관리자인 나는 PC를 직접 다루어 볼 기회가 없이 결재와 초안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주로 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에 앉고 보니 내가 직접 모든 서류를 PC로 작성하고, 컴퓨터를 통해 모든 자료를 받아 보고, 정보도 교류를 해야 하니 컴퓨터와 친해져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컴퓨터 자판의 속도도 빨라야 하고, 그때그때 활용 방법도 알아야 하고, 직접 컴퓨터를 통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아침 2시간 전 출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내겐 더 할 수 없이 요긴한 시간이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기능이다. 기능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 연마가 되는 것이다. 아직 타자 속도가 빠르진 못하지만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오늘 입주민의 민원 전화를 접수했다. 내용은 자기가 사는 동 입구에 화단이 있는데, 누가 그곳에 꽃을 심고 비닐 끈으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이다. 다른 동의 화단은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왜 자기 동은 꽃을 심었냐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사무소가 직접 한 것이냐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화분을 내놓아 지저분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노인회에서 꽃밭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그 화단을 선정한 것이고, 노인회의 부탁으로 경비근무자가 울타리를 쳐 준 것이다. 다만 파란색 비닐 끈으로 울타리를 친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내가 직접 풀어서 정리를 하니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민원인에게는 노인회의 꽃



밭 가꾸기 사업을 이해시키고, 내놓은 화분은 기한을 정해 소유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정리하고, 올라리는 철거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다. 이 민원에서 보듯이 화단에 잔디를 심는 것을 좋아하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잔디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취향이 다양하니 이런 것들을 큰 문제 없이 조율해 나가는 것도 관리소장의 능력인 것이다.

## 아파트의 법규인 관리 규약



**2019. 6. 7.**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빗발이 약해진 상태로 지금까지 내리고 있다. 얼마나 기다렸던 단비인가? 텃밭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출근을 서두른다. 아파트에는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다. 말하자면 아파트의 내부 법규이다. 중앙정부에서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면 준칙을 내려 준다. 그럼 아파트에서는 이 준칙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면 그 날짜가 시행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간단치가 않다. 먼저 3단 비교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3단 비교표는 A4용지를 가로쓰기로 맨 좌측에 준칙을 그 옆에 현행 관리 규약을, 그 옆에 준칙을 반영한 관리 규약 개정안을 나란히 해서 비교표를 만드는 것이다. 전체 페이지는 72페이지, 이 비교표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입주자 등의 동

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주자 등이란 아파트 소유자와 사용자(임차인)가 되는 것이다(소유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72페이지 3단 비교표와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외부에서 인쇄물로 만들어 각 세대에 배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다. 이때 입주자 등이 기한 내에 찬반 의견을 표시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필수라고 봐야 한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 규약은 내부 확정이 되고, 이를 시장과 군수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안서(3단 비교표)와 입주자 등의 동의서, 현행 관리 규약, 개정안으로 수정한 관리 규약이 첨부 서류로 필요하다. 이런 자료들을 모두 워드로 작업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 자판 속도가 아직은 느리고, 한글과 엑셀을 많이 다루어 보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관리 규약에는 복잡한 서식도 많아서 서식 하나를 만드는 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도사리고 있다. 다행히 경리주임이 컴퓨터를 잘하고 있어 그때그때 도움을 받아 가며 워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차주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을 하고, 3단 비교표를 외부에 인쇄를 맡겼다. 개정안을 반영한 완성본 관리 규약은 3단 비교표를 보며 워드 작업 중에 있다. 현재 진척률은 40%다.



**2019. 6. 10.**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근하면서 정문에 들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어젯밤에 차량이 정문 진입로에 설치된 CCTV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입주민이 사고를 내고 그냥 가 버린 것이다. 경비근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려고 한다고 겁을 준 모양이다. 내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차량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냐고 물으니, 견적이 2백만 원은 나올 것 같으며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내가 볼 땐 이번에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것 같다. 그곳은 직선 코스로 사고를 낼 만한 곳이 아닌데 사고를 냈으니... 나는 보험사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신고를 했는지 보험사에서 연락받은 수리 업체에서 출동하여 확인하고는 바로 수리하겠다는 전화가 왔다. 처리가 신속해서 마음에 든다. 내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다. 참석 대상자들에게 10시에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6명 중 2명만 답을 보내왔다. 내일 전화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한다. 7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가 2곳인데,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을 맡고 있는 경기전력과 소독을 맡고 있는 예코원이란 업체다. 업체 선정에 할 때는 전자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제정되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거의 그

대로 따르도록 한다. 절차도 복잡하고 법정 기간이 있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법과 규약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산이 지출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추가시켜야 할 것 같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시간을 썼다. 나로서는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나름대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 처음 경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잘 마치다



**2019. 6. 11.**

이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내가 제안한 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개의 보고 사항도 큰 문제 없이 마쳤다. 원안대로 의결된 2개의 안건 중 2020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고, 2021년도에 지원받을 사업을 미리 내부적으로 확정하여 2020년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시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청 설비 보수 공사는 기존에 무료로 서비스를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기로 한 기남방송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체 설비를 보수해 쓰기로 했다. 토탈 위성 서비스 대표를 참석시켜 자세한 보수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핵심 부품인 디지털 프로세서 5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이라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1개의 보고 사항 중 50만 원 이상의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을 계속하고, 예정대로 단수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결과,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 자문과 견적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목 정리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해서 공사비에 대한 견적을 받아 이후에 처리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주차 구획선 정리 문제는, 기존 주차선을 없앨 경우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아 통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비상 방송 설비 공사 후 테스트는, 주간에만 하지 말고 야간에도 해서 입주민에게 비상 방송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소독 업체는, 나무의사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전기안전 대행업체인 경기전력은, 저수조 침수 사고 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재계약하기로 했다. 대표회장이 오래전부터 지시한 지하 주차장에 소형차 전용 구역, 오토바이 전용 구역 설치는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주차 구획선 중 가로 폭이 좁은 곳이 있다는 회장의 지적에 대하여는 실측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세로가 길어 가로 폭이 좁게 착시) 확인해 주었다. 회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1시간 안에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다. 참석자 모두 다 만족스러운 분위기였고, 103동 대표는 늦게 남아 “소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며 칭찬을 건넨다. 나에겐 처음 맞은, 주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사히 마친 것이다.



**2019. 6. 13.**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날 즈음 대표회장이 “전임 소장 있을 때 내가 지시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나는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우리가 조직체에서 일을 할 때는 상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단 이런 지시를 받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이것을 설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갈 것인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주차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과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 상사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오토바이가 10대 정도인데 통로에 주로 주차를 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다. 사각지대에는 승용차 주차를 잘 하지 않아 이곳에다 오토바이 전용 구역을 만들면 되겠고, 공사는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대표회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에폭시용 페인트와 강화제, 신나, 붓을 구입해서 내가 직접 글씨를 쓰기로 했다. 평택에서 페인트 대리점을 제일 크게 하는 친구를 만나 사용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듣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

했는데, 함석으로 만든 혼합용 용기를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닌가? 이래서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 경비 절감



**2019. 6. 13.**

아파트 단지에서는 낙엽, 예초 작업을 한 후 나오는 풀, 전지를 한 후 나오는 나뭇가지 등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대다수의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고 있어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처리해 준다는 업체가 광고 전단을 보내와서 폐기물을 사진 찍어 보냈더니 70만 원의 견적과 이보다 다소 비싼 금액의 타 견적 2개를 함께 보내왔다. 이 이야기는 결재를 올릴 때 3곳을 견적 받았는데 70만 원을 낸 자기 업체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경험하니, 아파트에서 실무자들이 쉽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최재원 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영상자원에도 사진을 보내 가격을 받아 보니 25만 원에 가능하단다. 이러니 실무자 한 사람이 쉽게 일 처리를 하면 이런 일 한 건으로 45만 원의 손해를 입주민에게 안겨 주는 것이다. 나는 관리주임에게 이런 사례를 보여 주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주지시켰다. 20일에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가 보인다. 확인해 보니 지난번에 40만 원에 했는데, 이번에는 소방용 물탱크가 추가되어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나. 견적서 어디에도 소방용 물탱크는 보이질 않는다. 다시 견적서를 받도록 했다.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일 처리를 하려는 게 나로선 마음에 들지 않고,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일에 하려던 물청소를 연기하고, 다른 업체의 견적을 추가로 받아서 업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 반려견 사고



**2019. 6. 14.**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오늘이 불금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쪽 바다 여수의 금오도에서 보내게 된다. 마음은 벌써 푸른 파도가 이는 남해에 가 있다. 오전 8시경 미화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1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개통이 있고, 누군가 밟아서 엉망이라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서 저지른 대형 사고인 셈이다. 나는 미화원에게 수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서는 한 주임을 시켜 CC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지점은 CCTV에 안 잡힌단다. 게시판에 현장 사진과 함께 반려견과 생활을 같이하는 세대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반



려견의 분변은 술 취한 취객이 토해 낸 오물보다는 나은 편이다. 이전에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할 때, 밤 12시경 입주민의 전화를 받고 출동해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다 취객이 얼마나 많은 양을 토해 냈는지 술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다. 미화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경비근무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두 루마리 휴지 2개를 다 써서 일단 제거를 하고, 걸레로 마무리를 한 적이 있다. 교대 근무자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왜 그걸 우리가 해야 하나고 열을 올린다. 이렇게 아파트에 근무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게 된다. 오늘 미화원도 전에 내가 당했던 그 심정이었을 것이다.

## 주차장 주차 구획 설치 작업 준비



**2019. 6. 18.**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형 전용, 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역을 페인트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도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만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아파트는 218세대인데, 주차 가능한 차량은 221대이고, 차량 등록 대수는 338대이니, 117대는 도로변 등에 주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서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켜야 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래서 대표회장이 전임 소장에게 지시했던 일인데 해결이 안 되고, 이제야 실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우선 지하 1, 2층에 8면의 주차 구역을 소형차 전용

으로 만들고, 지하 2층 한쪽에 오토바이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구획하는 일이다. 에폭시 전용 페인트와 경화제, 신나, 붓은 준비를 했고, 글씨를 직접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 글꼴을 시트지에 쓴 후 칼로 오려 내 그 자리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게 깔끔할 것 같다. 50cm 정사각형에 한 글자를 쓰기로 하고, 시트지를 어느 정도 크기로 준비해야 할지 계산하여 경리주임에게 문구점 가는 길에 구입해 오도록 했다. 문구점 사장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사 온 시트지를 보니 50cm 규격으로 하면 시트지가 부족하겠다. 40cm으로 축소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50cm 자도 사 왔다. 자를 사 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사무실에 큰 자가 없으니 필요할 것 같아 사 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소하지만 관심과 능력인 것이다. 시트지를 사무실 바닥에 펼쳐 놓고 샤프로 글꼴을 그리고 칼로 오려 내는 작업을 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작업하는 중간에 경리주임은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 칼로 오려서 나온 시트지를 쓰레기통에 담는 등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소장이 직접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과 자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배려



**2019. 6. 20.**

사무실에 있는데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 103동 201호에서 인테

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끝났는데도 엘리베이터 바닥에 설치한 깔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내가 현장을 가 보니 벽면에는 없고 바닥에만 깔개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201호 벨을 누르니 아무도 없다. 깔개를 걷어서 일단 재활용장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 문제도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공사가 15일에 끝났다는데 공사 업체에 이야기해서 정리가 되어야 했고, 그게 안 되면 201호에 연락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5일간 방치를 한 것이다. 요즘 문서를 만드는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앞으로 직접 청소 상태를 확인해야겠다.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느라 이발할 시간을 놓쳤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발을 해야 한다. 반일 휴가를 내고 점심시간에 나왔다. 내가 반일 휴가를 쓴다니 경리 유 주임 본인이 오후에 볼 일을 오전으로 바꾼다. 이런 것을 보면 기본이 되어 있는 직장인이다. 사실 1박 2일 여행을 가기 전 낮 시간에 어렵게 시간 내어 이발소를 들렀는데, ‘외출 중’ 표시만 해 놓고 전화를 안 받아 그냥 왔었다. 내가 이발소 주인이라면 외출 중에 착신 전환을 해 놓아 고객에게 상황을 알려 주는 서비스를 할 텐데 좀 아쉬운 점이다. 나중에 주인에게 지난번에 왔다가 그냥 갔다고 이야기하니, 대수롭지 않게 치과에 갔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모든 문제는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019. 6. 21.**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오늘은 지하 주차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전용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라인을 그리는 일을 직접 하기로 했다. 페인트는 미리 준비했는데, 페인트뿐만 아니라 경화제, 신나도 있어야 한다. 정확한 배합 비율은 페인트 2, 경화제 1로 혼합한 양을 7로 하고, 신나를 3으로 하는 것이다. 시트지 글 뽀을 주차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바로 칠하면 시트지가 손상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트지 글 뽀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매직으로 글 뽀을 그리고, 그것을 들어낸 후 페인트로 쓰는 작업을 하는데, 페인트가 주변에 묻지 않게 종이 박스를 펼쳐 글자 옆에 깔고 써야 한다. 때문에 주차장 바닥을 사전에 쓸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필수이다. 한 주임과 경비 장 반장을 조수로 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바닥 쓸기와 박스 종이 펼치는 정도였다. 바닥에 글 뽀을 대고 매직으로 글자를 쓰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 페인트로 쓰는 것도 내가 해야 하니, 나 혼자 바쁜 상황이 된 것이다. 옆에 있던 장 반장은 “소장이 밖에 나가 이런 글씨 쓰시면 일당이 30만 원은 받으시겠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씨를 쓸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도 전화를 해서 차량 이동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차량 소유자에 전화하니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냈더니 20분 안에 차를 빼겠다

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걱정스럽다.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루 종일 걸려 마쳤다. 나는 페인트로 글씨를 쓰는 첫 경험을 한 것이다.

## 기존의 틀을 깨다



**2019. 6. 24.**

빨리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에 출근을 서두른다. 마스크를 통해 ‘월요병’이란 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연휴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있는 병으로, 몸이 찌뿌둥하고 회사에 가기가 싫어지는 증상이란단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요병이란 증상을 겪어 보진 않았다. 대체적으로 일을 많이 안고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할지 고민은 했어도 회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파트에서도, 나는 누구를 의식한 처신은 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에, 내 양심에 솔직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 직원들에게 내가 농사지은 쌈 채소를 가져다주기로 했다. 어젯밤에 씻고 포장해 냉장고에 보관한 쌈 채소가 매우 싱싱해 보인다. 나에게 쌈 채소를 건네받은 유 주임은 “미화원 아줌마들이 열어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하며 웃었다. 남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종류별로 예쁘게 준비를 해 오셨냐고, 우리 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난리가 났단다. 내가 조금 신경을 쓰면 여러 사람이 즐거울 텐데, 이런 일쯤이야 나에겐 대단한 일이 아니다. 미화원이라 하면 남들이 낮춰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데

는 이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그들에게 조금만 가슴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나를 믿고 즐겁게 열심히 일할 것이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답이 선명히 보인다. 오래전에 기아전자 평택공장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도 출근을 일찍 했다. 눈이 펄펄 내리고 바람도 제법 불어 대는데 직원들을 태운 통근 버스가 정문을 들어섰다. 직원들은 차에서 내려 출근 카드를 찍느라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서 순간적으로 북한에서 주민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장면이 오버랩 되었다. 그래서 나는 출퇴근 시 카드를 찍는 제도를 없애 버렸다. 근무 중에 밖에 나가는 경우만 찍게 하고, 출퇴근 관리는 현장 책임자들이 관리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진천공장 공장장이 평택공장은 회사의 룰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 사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시키는 데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 제도는 새롭게 정착되어 모두가 환영하는 제도가 되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생각보다 저항이 크다.

## 아파트 관리 규약



**2019. 6. 25.**

아파트에는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다. 아파트를 규율하는 일종의 법규이다. 시도에서는 관계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에 맞

게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준칙을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관리 규약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를 받은 아파트에서는 준칙대로 현행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할 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소장이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시도의 준칙과 현행 아파트 관리 규약과 준칙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을 3단 비교표로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이 많아 50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1페이지로 정리해야 한다. 그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날짜를 회장과 조율하여 5일 전에 소집 공고를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장이 개정되는 내용을 구성원에게 설명하여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고, 의결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 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여,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고문도 붙이고, 방송 문안도 만들어 방송해야 하고, 50페이지 되는 3단 비교표는 외부에서 책자로 만들어 개정 주요 내용을 정리한 하단에 입주자 등이 동의 여부와 서명할 수 있게 세대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7일간의 시간을 주어 각 동 엘리베이터 앞에 의견 청취함을 비치해 입주자 등이 투함케 하여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게시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다. 시장, 군수는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수리를 해 주는데 수리한 날짜가 개정된

규약의 시행 일자가 되는 것이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관리 규약 개정 신고 시행문서
2. 관리 규약 개정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3. 의결 안건(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4. 관리 규약 개정(안) 공고문(주요 내용 포함)
5. 입주자 등 동의서(집계표 포함)
6. 관리 규약 개정 주민동의 결과 공고문(선관위)
7. 3단 비교표(별도 제출)
8. 개정 전문(별도 제출)

별도 제출은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 관리비 체납



### 2019. 6. 26.

관리비를 50만 원 이상 체납한 6세대에 대하여 독촉을 하고, 세대 방문을 하여 24일까지 일부(30%)를 납부하면 단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30% 이상을 납부한 세대가 2세대, 3세대는 적은 금액을 납부했고, 1세대는 26일로 미뤘다. 경기가 안 좋으니 관리비 체납은 계속 늘어만 갈 것 같다. 50만 원 미만의 체납자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



각에 자료를 뽑아 보니, 5월 부과분까지 전체 체납자가 13세대로 총 680만 원이다. 관리소장 명의로 독촉하는 내용의 편지를 부드럽게 작성해 세대 우편함에 넣었다. 편지의 내용은 관리비 체납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점, 성실히 납부하는 세대가 체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관리소장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바, 7월 10일까지 납부하시고 이 기한에도 미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7월 15일 반드시 단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얼마나 어려우면 관리비를 체납할까? 마음이 편치가 않다. 세대 우편함에 넣고, 주변을 보니 화단에 잡풀이 눈에 띈다. 풀을 뽑기 시작했다. 뽑다 보니 자꾸 보인다. 나의 주특기가 풀 뽑기 아닌가? 이렇게 풀 뽑기가 시작되었고 2개 동 화단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데, 미화원과 노인회 회원 되시는 분이 그 장면을 봤나 보다. 노인회원이 날 보고 “누구신데 풀을 뽑으세요?” 한다. 미화원이 소장님이시라고 하니 “아 그래요. 새로 오셨다는 소장님이시구나” 하신다. 내가 좀 늦게 사무실에 들어서니 경리주임이 뭐 하시다가 늦게 오셨냐고 묻는다. 눈에 거슬리는 풀을 뽑았다고 하니, “소장님, 더운데 더워 먹으시면 안 되니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 경비원들이 아침, 저녁 선선할 때 좀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뽑는 것을 보고 작은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 7. 1.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 실감한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7월의 첫날을 맞는다. 7월은 휴가가 시작되는 달이다. 자칫하면 더위나 휴가로 인해 일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계획을 잘 세워 업무의 효율을 올려야 한다. 성격이 다른 공무원 조직과 회사 조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해 봐서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만 보아도 그 사람의 능력과 업무 스타일을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이면을 살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관리소장이 되기 전에 아파트를 알기 위해 경비직을 1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정신병자 수준의 관리소장도 봤고, 동료를 해하려고 입주민을 가장해 투서질을 하는 것도 보았고, 교대 근무자에게 일을 떠넘기고 교대 근무자를 비방하는 수준 이하의 처신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아부하는 사람, 반장을 맡고는 북한의 5호 조직원처럼 동료의 동태를 용역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 관리소장이 출근하는 시간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 일부러 일을 벌이는 사람도 보았다. 알량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가면을 쓰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경비원이 두 사람이다. 서로 맞교대를 하니 교대하는 몇 분이 서로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고 계속 고자질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말이다.



**2019. 7. 2.**

우리 아파트는 사무실에 소장, 경리 유 주임, 설비 한 주임 이렇게 3 사람과 경비원 2, 미화원 2, 모두 7명이 근무를 한다. 설비를 주로 맡고 있는 한 주임은 사무실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는 편이다. 경비원 1명과 외곽 청소도 하고, 전기실과 기계실을 주로 관리하고, 전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 입주민의 요청이 오면 처리도 해 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전용 부분에 대하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다. 그러니 출근해서 한 번 보고, 퇴근할 때 한 번 보는 날이 대부분이다. 거기에서 경리 유 주임이 밖에 일이 있어 외근이라도 하면 소장 혼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전화도 오고, 주차한 차량을 누가 긁고 갔다고 CCTV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혼자 대응하기엔 바쁜 편이다. 한 달을 지내고 보니 전체의 윤곽이 잡힌다. 아직도 관리 규약 개정을 입주자 등의 동의서가 과반수에 미달하여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이 업무가 워드로 작업할 게 많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직 시청에 신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이번 주 안에 시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다. 매일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워드와 교정 작업을 한 것이 동의서 맡고는 문제가 없다.



**2019. 7. 3.**

오후에 102동 육영숙 동 대표가 사무실에 들렀다.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지난해 교육을 우리 아파트에서는 4명이 받지를 않아 안성시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8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안성시로부터 공문을 받자마자 내용을 정리해 대상자들에게 보냈는데 한 사람만 반응이 온 것이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가 없어 유 주임의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다. 육영숙 대표는 사무실에 온 김에 민원을 제기한다. “소장님,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에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가 꽉 찬 채로 방치되고 있고, 계단 청소도 안 되고 있어요.” 나는 바로 지하 주차장 계단을 확인했다. 종이 박스가 있는데 그곳에 잡다한 쓰레기가 채워져 있어 박스를 들고 나와 재활용장 앞으로 옮겼다. 가급적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좋다. 쓰레기를 버릴 만한 곳이 보이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곳은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란 게 있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것을 방치하면 그곳은 쓰레기장이 되고 우범 지역으로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 주임을 불러 경비원들에게 지하 주차장과 계단 청소를 하도록 했고 물청소도 월 1회씩 하여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2019. 7. 11.

기다리던 비가 충분히 내리지를 못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온다던 비는 어젯밤 12시경에 그치고, 오늘은 약하게 한두 방울 비치고 있다. 완전 해갈에는 많이 못 미치는 비다.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 안,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일 부착물을 출력해서 코팅을 하고 양면테이프를 준비해 직접 붙이는 작업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입주민이 혼자 탑승을 한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 내게 말을 건넨다. “이런 일을 직원들 안 시키고 소장님이 하세요?” “직원들은 자기 할 일이 있지요.”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서는 직원이 없으니 소장이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 직원에게 시켰다가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마음도 놓이질 않으니 직접 하는 게 편하다. 오늘 부착물의 제목은 ‘주차 질서는 품격 있는 아파트의 기본입니다’이다. 아파트를 도는데 미화원이 약품으로 신주를 닦고 있다. 내가 신주 닦는 모습을 쳐다보니 생각보다 광이 잘 난다고 말한다. 날은 덥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청소 민원이 들어와 안 닦던 신주를 닦아야 하니 이들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입주민의 민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 민원을 빨리 해소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은 완이 생일이라 좀 이른 퇴근을 하여 성진이 노래방에서 미역국에 불고기, 간장게장으로 함께 식사하며 축하해 주었다. 성진이와 완이 언제 사귀었는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케이크와 꽃 선물이 와 있다. 타국에서

보내는 완이가 생일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어 보기 좋았다. “Happy birthday. It’s a little money” 하고 봉투를 건네주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다.

## 개인 정보?



**2019. 7. 12.**

사무실에 도착하니 7시 20분이다. 어제 일기를 쓰고, 오늘 할 일을 점검하면서 이메일을 보니 주차 스티커 시안과 견적서가 도착해 있다. 지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 스티커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스티커는 연락처가 없고, 동 호수도 개인 정보라고 비번을 부여해서 경비원들이 단속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연락처를 기재하고, 동 호수는 비번으로 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까 한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 정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름+전화번호, 이름+주소, 이름+주소+전화번호’이다. 주차 스티커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주소도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연락처만 기재가 되니, 개인 정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가 보내 준 안을 보고 3개의 시안을 보내왔다. 3번이 새로운 맛이 있었지만, 테두리 색상이 녹색인 2번으로 선택했고, 재질은 제일 저렴한 종으로 골랐다. 반사지로 하면 1매당 324원, 홀로그램으로 하면 306원, 종으로 하면 172원이다. 기본 500매를 할 경우 부가

가치세 포함한 가격이 반사지로 하면 178,200원, 종이로 하면 94,600원이다. 83,6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주차 스티커는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으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인데, 여기에 비싼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 오후에 지하 주차장에 소형차 전용 구역을 4면 늘리고, 오토바이 전용 구역을 세분화하는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한다. 어제 한 주임에게 이야기해 놔서 준비가 된 줄 알고 현장에 가 보니, 페인트 붓을 사야 한단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구입해 왔다. 한 주임과 연 반장에게 라인 그리는 일을 맡겼다. 라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붓으로 여러 번 덧칠을 해서 보기가 안 좋다. 내가 붓에 페인트를 묻혀 한 번에 쉬지 않고 길게 붓질을 하니, 보기 좋게 라인이 살아난다. 지난번 페인트 작업에 이어 두 번째 작업이니 페인트의 성질을 알게 된 것이다.

## 체납 관리비 문제



**2019. 7. 15.**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다. 우리 아파트는 토·일요일에 재활용품을 배출해서 월요일에 수거 업체가 가져간다. 재활용장은 지붕이 있는 창고로 되어 있어 수거 업체가 계약을 꺼렸었는데, 직원들이 꺼내 주는 조건으로 성사시켰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 출근하면, 소장, 설비주임, 경비원 셋이서 대형 자루를 8개 정도 밖으로 끌어내고, 박스가 쌓인 대

차를 옮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아침 먹은 게 다 소화된다. 창고에 문턱이 있어 힘이 들고 세 사람이 붙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턱을 없애자고 하니,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문턱만 없애면 들어서 해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 나는 바로 해결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업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을 점검하는데, 소형차 전용 구역에 위반 차량이 없었고, 오토바이 전용 구역에도 오토바이 4대가 새로 만든 구획선에 나란히 주차하고 있어 보기가 좋았다. 이제 발주한 주차 스티커가 도착하면 스티커를 전면 교체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장의 당부 말씀에 만들어 세대에 배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한다. 오늘은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한 단수를 예고한 날이다. 관리비 입금을 확인해 보니 1세대만 입금을 했다. 생각을 바꾸어 3개월 이상 체납한 8세대에 대하여는 한전에 단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2개월 이상 체납한 3세대에 대하여는 7월 23일 14:00에 단수하겠다는 예고를 세대 우편함에 배부할 예정이고, 단전 대상 세대에도 7월 16일 한전에 단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워졌고,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우리에게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 반도체 분야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 우리의 제품 대부분이 일본의 기술 내지 부품에 종속되어 있어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올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아파트에도 관리비 체납은 더 늘어 갈 것이고, 체납 관리비 징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겠다.





**2019. 7. 22.**

안성시청으로부터 목요일 늦게 팩스로 받은 공문의 내용이 불명확해 담당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내 판단으로 서류를 만들어 시청을 방문했다. 금년 4월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이 끝난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받는 건인데 담당자가 서류를 어렵게 만들어 다른 아파트에서도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내 판단이 맞았고, 서류를 건네주고 나오는데 담당자가 나를 다시 부른다. 소장이 바뀌어 전임 소장이 작성한 서류를 내가 다시 작성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내가 담당자에게 소장이 바뀌었다고 예전에 받은 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 주려다 말았다. 담당자의 생각은 예전 것과 지금의 것을 동일한 사람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했나 보다. 베르빌아파트 관리소장은 한 사람이 영원히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연인은 바뀌어도 관리소장은 변함없이 관리소장으로서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건축과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계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행정 사무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두 번 걸음을 하게 되지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것이 편하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사무실에 도착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장의 서한을 발송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회장은 우편 발송을 원했지만 세대 우편함에 투함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우편료 절감은 물론 무더위에 우편 배달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도 우편 발송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9. 7. 25.**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린다.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면 1977년 여름. 평택시 동삭동 이장님 댁을 업무차 방문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검게 흐려진다. 비가 바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이장님의 사모님이 장떡에 막걸리를 사랑채로 내오셨다. 낙수 소리를 들으면서 마셨던 그때 그 막걸리가 생각난다. 오전까지 대표회장의 서한을 보냈다. 이번에는 주차 스티커 교체율이 높을 것이다. 게시 공고도 했지만, 특별히 세대에 대표회장 서한을 보내 충분히 공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104동 201호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새로 도배하고 이사를 왔는데 싱크대 위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분은 세입자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 보고 윗집에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전용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소유자가 손을 봐야 하기에, 윗집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유 주임이 세대를 방문해 누수가 되는 현장을 사진 찍어 왔다. 나는 윗집 소유자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리면서, 서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공사 업체의 전화번호는 알려 줄 수는 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근 시간 임박해서 누수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가 사무실을 또 찾아 왔다. 윗집 소유자가 전화 왔냐고 묻는 것이다. 전화가 가면 당신한테 가지 우리에게 전화 올 일이 있겠냐면서, 윗집과 전화 통화를 안 했냐고

물으니,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윗집 전화번호를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그때서 확인하면서 “전화번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다. 윗집 소유자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 자기가 바빠서 그러니 소장님이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아랫집과 상의하셔서 누수가 더 확대되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서로 바쁘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려고 한다. 바쁜 일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 소방법 관련 질의 1



**2019. 7. 29.**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일 년에 한 번씩 작동 기능 점검과 소방 종합 정밀 점검을 받는다. 문제는 점검을 받을 때마다 전문 업체에 점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점검 결과가 소방서에 보고되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이에 따른 공사비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우리 아파트의 경우: 작동 기능 점검 비용 50~60만 원, 정밀 점검 비용 70~80만 원, 공사비 등 300~1,000만 원). 실무자가 예년에 했던 대로 전문 업체에서 견적서를 팩스로 받고 있다. 소방 종합 정밀 점검을 어떤 근거에 의해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니 잘 모르고 있다.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니 올해 4월 15일에 개정된 것이 보인다. 법률 명칭도 길다.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이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호스릴 방식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인데,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의 건물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비되어 있고, 11층 이상이다. 그렇다면 각 6개 동의 연면적을 확인해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금까지 받아 왔던 대로 정밀 점검을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이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104동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5개동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다. 지금까지 받지 않아도 될 점검을 5개 동은 계속 받아 온 것이다. 바로 안성소방서에 문서로 질의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나의 질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아파트의 경우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 세대 누수로 인한 비상 방송 오작동



**2019. 7. 30.**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103동 102호에서 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더니 “소장님 9만 원만 빌려주세요.”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교체하고 당장 돈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단다. 연세가 드신 분이다. 자식들이 출근하고 혼자 있다 보니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다. 나도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기에 그만한 돈은 없다고 하니 걱정을 하면서 나갔다. 몇 분이 지나 다시 오더니 2만 원만 빌려 달란다. 지갑을 보니 2만 5천 원이 있어 빌려주었다. 이 집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가스 공사는 사전에 예약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식들은 집을 지키는 아버지에게 돈이나 카드를 준비해 드리고 출근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오후 5시경 사무실에 있는 부수신기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라는 방송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번 비상 방송 설비 출력 회로 보완 공사를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이렌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니, 며칠 전 누수가 발생해 공사 문제로 왔다 간 세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누수 공사를 마쳤지만 남아 있는 습기가 있어 감지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 세대의 선을 차단해 버리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습기가 다 제거된 후 다시 복구해 주면 될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18년이 되었는데,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나는 3세대를 경험하고 있다.

## 금연 아파트 지정



**2019. 7. 31.**

7월의 마지막 날이다. 여름휴가의 정점이 7월 말에서 8월 초인데 그

래서 그런지 아파트도 조용하다. 104동 103호에서 전화가 왔다. 이 세대는 유 주임에게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던 세대이다. 윗집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으니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 주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세대 방송을 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며칠 전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들을 확인했다. 세대 내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달라는 게시물도 게시하고, 윗집인 203호에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도 해 놓았다.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이해시켰다. 금연 아파트의 지정은 입주민 중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소에 신청하면 가능한데, 지정되는 구역이 지하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이다 보니 세대 내에서 흡연은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에서는 지정된 아파트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안성시는 일체의 지원이 없다. 지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유일하다. 이러니 안성시에서 유일하게 한주아파트가 지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전체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금연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9. 8. 1.**

습도가 있는 더위는 땀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엇그제(7월 29일) 소방서에 질의한 건으로 소방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 아파트는 6개 동 중에서 104동만 정밀 안전 점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5개 동은 작동 기능 점검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왜 6개 동 전체를 정밀 안전 점검을 받아 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소방서의 입장으로 보면, 전체를 정밀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 관리 차원에서 보면 유리하고 권장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간단히 작동만으로 끝나는 점검은 자체 인력인 안전관리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문제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4동만 정밀 점검을 받으려면 점검 수수료가 적어서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작동 기능 점검까지 묶어서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전화 통화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소방서를 찾아가 담당자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확인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누가 이런 질의를 할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내가 했다고 하면 앞으로 소방서와의 업무 관계에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우리 아파트 동 대표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에둘러서 말했다. 이 담당자는 내가 보낸 질의서에 정식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서, 나오는 길에 오늘 내린 결론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는 말을

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일을 보고 있는데 소방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 아파트로 출발했으니 자리에 있어 달라는 것이다. 담당자 포함 3명의 소방관이 왔다. 이들은 질의를 하게 만든 동 대표를 직접 만나 설명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내가 이해시키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돌려보냈다. 이 문제를 소방서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무자는 질의 회신서를 만들어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아파트에서는 종전에 하던 대로 관계 법령의 확인 없이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이다. 이번 질의를 통해 우리 아파트는 점점 비용 80만 원, 점점 후 보완을 요하는 이행 명령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300~1,000만 원 정도를 연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풀 뽑기



**2019. 8. 2.**

출근하는데 문자가 왔다. 노인회 총무님이다. “소장님, 단지에 풀이 많아요. 경비, 미화원과 풀 좀 뽑아 주세요. 더운데 수고하시고.” 그러면서 104동 1~2라인 입구 벽체 손상된 부분을 사진 찍어 보냈다. 풀은 예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면 2번을 해야 하기에 좀 미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봐도 풀이 흉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입주민이 보기에 작은 풀이라도 흉하게 보여 뽑아야 한다면, 바로 뽑아야 한다. 나는



9시 반경 장갑을 챙겨 정문 앞으로 갔다. 정문 앞에 101동과 104동이 있는데 노인회 총무님은 101동에 사신다. 우선 101동 화단에 있는 풀을 뽑기 시작했다. 내가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 장 반장이 나왔다. 장 반장은 75세이다. 말이 많고, 일을 잘 안 하며, 서로 맞고대하는 연 반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고자질하는 사람이다. 내가 풀 뽑는 것을 지켜보더니 한마디 한다. “이거 예초기로 옆에 있는 것들과 같이 쳐 주어야 해요. 소장님 더운데 그냥 들어가세요.” 나는 “예초 작업은 예초 작업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할 때 주변에 풀 좀 뽑아 주세요”라고 하니 별말이 없다. 장 반장은 경비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아침에 1~2시간씩 뽑는다면 4~5일이면 뽑을 수 있다. 물론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풀 뽑는 작업 구역을 할당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 엘리베이터에 입주민이 갇힌 사고



**2019. 8. 5.**

오늘이 올여름 들어 제일 덥다는 날이다. 월요일 아침이면 재활용 창고에서 재활용품이 담긴 대형 백을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둘이서 는 힘에 겨워 내가 함께해 주어야 8개 정도의 백을 끌어낼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작업은 비를 맞고 해야 하기에 고역스러운 작업이다. 작업을 마치고 풀을 뽑으러 103동 뒤편 화단으로 갔다. 풀을 뽑고

있는데, 지난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교체로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입주민이 내게로 와서 “예초기로 한 번만 휘두르면 될 것을 이 더운 날 왜 뽑고 있냐”고 한다. 경비원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4일의 여름휴가를 가면 낮에는 근무자가 없고 야간에만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니 낮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내가 아침에 1시간씩 풀을 뽑는다면, 보기 싫은 곳의 풀은 대충 없앨 수 있을 것이고, 입주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풀을 뽑고 사무실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진 채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04동 1-2라인이 중간에 멈춰 서고, 사람이 25분간 갇히는 사고가 생긴 것이다. 휴대폰으로 갇힌 사람을 안심시키고, 유지 보수 업체에 신고를 했다. 업체가 진단을 하니 인버터라는 부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품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 아니라 급행으로 주문하면 2시간이 소요되고, 교체하는 데 1시간이 걸려 3시간 후에나 정상 가동이 된다는 것이다. 104동에 세대 방송을 했는데도, 입주민들의 전화가 계속 이어진다. 이 하나의 사고가 다른 일을 못하게 한다. 104동에는 감사가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10층인 집에 마트에서 장을 본 걸 가지고 올라가려 하니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쿵쾅거리는 소음이 들리니 관리사무소에 내려와 소리를 지르며 설비주임을 찾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했고, 수리 중에 있는 것도 알려 주었는데도 수리 업체를 바꿔야 된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수리 중이라는 팻말도 없다(실제로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음)는 식의 생트집을 잡는다. 설비주임이 나타나자 엘

리베이터 점검 일지를 가져오라더니 왜 호기별로 안 되어 있냐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댄다. 무더운 날씨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짜증이 나는 것이다.

## 세대 전용 부분 민원



### 2019. 8. 6.

어제 ‘인버터’를 교체한 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인버터’라는 부품은 모터를 구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AC를 DC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유지 보수 업체에서 손을 보고 갔는데도 문틈에서 소음이 계속 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몇 번씩 타면서 확인해 봐도 소음은 그대로이다. 다시 전화를 해서 기술력이 있는 과장이 와서 손을 보자 소음이 잡혔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가이드 슈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박스가 약간 뒤틀려 최대한 잡았는데도 한쪽으로 쏠려 소음이 나는 것이다. 가이드 슈란 본체 상부와 하부에 2개씩 ‘ㄷ’ 자 형태로 레일을 잡고 그것을 타고 다니는 거다. 과장이 손을 보고 간 다음, 소음은 거의 없어져 다행인데 언제 또 발생할지 걱정이 된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에 103동 602호에서 설비주임을 찾는 전화가 오고, 아주머니가 내려와 자기 집 화장실에 유리를 들어내야 하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나는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한 주임에게 가 보라고 할 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

며 올려 보냈다. 한 주임이 그 집의 화장실 내부 샤워 부스와 칸막이로 설치된 강화유리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졌다. 한 주임은 유리를 들고 있고, 그 아주머니는 다시 사무실에 와서 유리를 담아 버릴 마대를 찾아 달라는 것이다. 나는 사무실을 비울 수 없으니 재활용장에 가서 찾아보라고 보냈더니 다시 내게로 와서 재활용장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곤 올라가 12시까지 아무런 소리가 없어 선약이 된 식당에서 최재원 소장님과 같이 일하는 과장, 계장님과 점심을 같이 했다. 점심을 하고 오니, 한 주임은 “앞으론 전용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못한다”라고 해야겠단다. 맞는 말이다. 오늘 같은 일은 세대에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업자를 불러서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다.

## 관리비 독촉과 단수 예고를 내용증명으로 해 달라는 입주민



**2019. 8. 7.**

태풍이 지나며 큰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여름휴가도 대부분 끝나 가고 아침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다. 매달 치르는 관리비 연체 세대와의 전쟁을 또 시작해야 한다. 독촉장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세대 방문도 했다. 세대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오죽하면 관리비를 못 내겠나 싶어 마음이 아프지만,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선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제 마감을 해 보니 14세대 총 70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연체되었다. 100만 원 이상

연체 세대도 2세대이다. 독촉장을 세대 우편함에 넣고 있는데 입주자인 아주머니가 무엇을 보내는 거냐고 묻는다. 관리비 연체한 세대에 보내는 독촉장이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 “요즘도 관리비를 연체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들어간다. 연체하는 세대마다 나름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나라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관리비 연체 세대도 더 늘어 가고 금액도 늘어 갈 것이다. 세대 우편함에 투함을 마치고 오니 경리 유 주임이 “소장님이 독촉도 하고 단수도 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라고 한다. 싫은 소리도 듣고, 말도 되지 않는 문자도 받고 있지만,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연체 세대를 줄여야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연체 세대도 있다. ‘오늘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실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주시고, 오늘 한 조치는 내규라 해도 법률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를 당한 세대에서 보내온 것이다. 이분은 잘 모르고 계신 분이다. 내용증명이란 어느 날짜에 어떤 내용을 어느 사람에게 문서로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적 기관인 우체국에서 3년간 문서를 보관하여 후일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하면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보다 증거로서 인정해 준다는 것뿐이다. 우리가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약 81조에 있고, 상수도 공급 기관인 안성시의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서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행위이다.



2019. 8. 8.

오늘이 입추다. 가을이 들어선다는 입추인데 더위는 물러갈 줄 모른다. 처서는 되어야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김장 채소를 심는 것도 여름에 달궈진 흙에다 심으면 씨앗과 모종이 잘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만다. 그래서 땅의 열기가 식은 뒤인 처서를 전후해서 심는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배추 모종을 먼저 심고, 이어서 무씨를 파종하면 될 것 같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 심고 나서 비가 안 오고 가물면 나같이 물을 주기 힘든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망치는 것이다. 오늘 점심에는 집에서 쌈 채소와 미역 오이냉국으로 하고, 후식으로 맛있는 복숭아를 먹었다(근처 돈터 복숭아 과수원에서 사온 것으로 당도가 높아 최고의 복숭아로 인정한다. 다음 기회에 돈터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오늘은 여름휴가의 영향인지 아파트가 조용하다. 오전에 반려견을 풀어놓아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즉시 반려견을 키우는 데 지켜야 할 수칙을 그림으로 뽑아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세대에 방송할 문안을 유 주임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니 유 주임이 다소 놀라는 기색이다. 민원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바로 이행해 주면 일단은 만족할 게 아닌가? 문제는 반려견 주인들이다.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자기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느

끼게 하고, 주변에 배설물을 방치하고, 짓어 대는 소리로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 2019. 8. 12.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 오늘은 출근해서 재활용장의 분리수거 백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며 작업해야 하니 아침부터 짜증이 나는 일이다. 요즘 아파트 단지는 재활용장의 지붕이 없어, 집게차가 그대로 집어 올리면 작업이 끝난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지붕이 있는 창고여서 밖으로 끌어내 놓아야 수거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다. 8개 정도의 1톤들이 대형 마대 백을 셋이서 끌어내야 하고, 대형 대차에 실린 종이 박스를 끌어내야 하는데, 창고의 문턱이 있어 고임목을 대고 경사진 통로를 내려와야 한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이면, 대차를 끌어내다가 경사진 통로에서 사고의 위험도 예상된다. 나는 한 주임과 장 반장에게 이번 금요일 저녁에 대형 빈 마대 백과 대차를 밖에서 내놓으라고 했다. 창고 안에서 분리배출을 하지 말고, 창고 앞 공터에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정착시키면 될 것 같았다. 후문 입구라 보기에 안 좋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배출을 하니 그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 혹시 이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이 있으면 대차를 끌어내다 크게 다칠 뻔해, 방식을 바꿔 보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도록 했다. 창고 앞 공터는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차량의 불법 주차만 없으면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고, 후문 경비실에서 CCTV로 그쪽을 확인할 수 있어, 마구잡이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적발하기에도 용이한 장소이다.

## 예초 작업



**2019. 8. 13.**

오늘도 더위는 계속된다. 비가 온 뒤라 습도가 있어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다. 오늘 예초 작업을 하겠다고 한다. 더위를 피해 오전에 일찍 하고, 오후에는 4시 지나서 하라고 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장갑을 준비해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이른 시간이지만 움직이면 땀이 많이 흐르는 날씨다. 한 주임이 예초기를 돌리고, 연 반장이 예초기가 갈 수 없는 곳을 낫으로 베고 있다. 나는 주변에 놓치고 지나간 풀들을 뽑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마무리가 깔끔해야 한다. 기계가 지나갔지만, 놓치고 지나간 풀들이 제법 많다. 이것들을 깔끔히 정리해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했다는 소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깎인 풀들도 바로 굵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오전 중 고작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모양



새다. 점심을 집에 가서 먹어야 하는데 집에 밥이 없는 것 같아, 마트에  
서 햇반과 양파를 사서 간편한 식사를 했다. 그래도 고등어조림과 된장  
찌개가 있어 만족스러운 점심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꿀에 재워 놓은 마  
늘을 한 숟가락 먹고, 방울토마토를 후식으로 하니 영양 만점의 식사  
다. 오후 3시인데 예초기 소리가 들린다. 4시 이후에 하라고 했는데 서  
두르고 있는 것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장으로 갔다. 어린이 놀이터 주  
변을 꺾고 있는데, 103동 502호에서 얼음을 넣은 냉커피를 준비해 왔  
다. 이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다면서 석 잔을 준비해 오신 것이다. 땀  
은 비 오듯 쏟아지고 갈증을 느끼던 차에 냉커피 한 잔을 마시니 살 것 같  
다. 두 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옷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  
니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와 에어컨  
바람으로 젖은 옷을 말렸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익어 보인다.

## 입주자대표회의 준비



**2019. 8. 26.**

어제는 동해안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심한 체증으로 인해 10시 넘  
어서 평택에 도착했다. 추석을 앞두고 별초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고속  
도로와 휴게소는 만원이다. 동해안으로 오가는 도로는 버스 전용 차선  
이 없어 돌아올 때 출발이 늦어지면 밤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각오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한 독촉을 했는데, 납부 상황

을 확인해 보니 26세대에서 770만 원이 채납되었고, 50만 원 이상 채납이 2세대로 330만 원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32세대 1,000만 원, 50만 원 이상은 6세대에 700만 원 수준이었다. 계속해서 독촉하고, 문자도 보내고, 단수 예고도 하고, 실제로 단수 조치도 하였더니 조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아파트 관리비 부과액은 3,600만 원 수준이니 많은 편이다. 50만 원 이상 채납한 2세대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음 달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겠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앞으로 채납 세대와 채납액은 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나로서는 제때에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하는 다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다. 이번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5개 안건을 의결 받아야 하고, 관리사무소 운영 관련 7개 사항을 보고하게 된다. 5개 의결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인버터)
2. 정류기(비상발전기) 부품 교체 공사
3. 소방 정밀 점검 업체 선정
4.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5. 103동 출입구 천정 보수 공사

공급가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관리소장이 견적서를 검토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계약을 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계약 이행 증권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경비, 미화원, 들의 연차 수당, 퇴직금을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운영해 오던 것을 관리비 통장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회의 개시 전에 보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에 소장이 별도의 통장에 구분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 회계 장부와 통장의 시제가 맞지 않는 게 문제이고(시재를 맞추려면 관리비 통장에서 천만 원 정도를 인출해 각 통장에 이체를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 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관리비 규모와 현금 흐름으로 보아 연차, 퇴직금을 별도 계좌에 묶어 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종전대로 관리비 통장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 대표회장의 식사 제의를 거절하다



**2019. 8. 27.**

미화원 최경례 씨가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하고 오늘 출근했다. 일찍 병원을 찾아 시술로 치료를 받았다니 다행이다. 친구인 정경자 씨와 같이 근무하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퇴직을 하게 되었다. 친구를 떠나보내 무척 서운해했었는데 본인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 막상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면 그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오늘 저녁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감사께서 회의 시간 전에 사무실을 들리셨다. 회의 안건에는 넣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관리비 통장에 통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시행하려던 사안을 미리 말씀드리고, 회의에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회의 시작 전에 경리 주임을 통해 준비된 자료를 배부하여 설명하도록 했고, 나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동 대표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의 지원으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결정을 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5개 안건도 거의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다. 보고 사항 중 관리비 고액 체납 세대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과 단둘이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미화원 휴게실 냉장고가 사용 불능으로, 신규로 구입해 사무실에서 쓰고, 사무실에서 쓰던 것을 미화원 휴게실에 주는 것으로 26만 원 이내에서 집행하기로 했고, 추석을 맞아 직원들에 줄 선물은 작년에 집행한 수준에서하기로 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중 차 한잔을 마시지 않고, 끝난 후에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동 대표들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해 오던 것이다. 저녁 식사는 생각을 못했는데, 회장이 이런 말을 하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선약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저녁 식사 제의를 거절한 셈이 되었다. 동 대표들도 모두 돌아갔기에,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한 것을 동 대표들이 후에 알게 되면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



**2019. 9. 9.**

태풍 ‘링링’이 세찬 바람으로 곳곳에 피해를 주고 떠난 후 출근한 월요일, 아파트 단지 안에는 떨어진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바닥이 어지럽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현장을 돌고 있는데, 아래 단지 ‘임광 그대가 2차’ 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 아파트 벤츄레이터가 날아와 자기네 단지에 있다는 것이다. 피해는 없냐고 물으니 아무런 피해가 없다. 다행히 사람이나 차량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에 안착한 것이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벤츄레이터부터 확인했다. 103동에서 2개, 106동에서 1개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106동 옥상 출입문이 떨어져 손상되어 있었다. 바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문자로 보고를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사인 과수농협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꼼꼼히 구석구석 시설물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니, 더 이상 피해는 없는 것 같다. 다행이다. 참아름 최재원 소장에 전화하니 그곳은 지붕 싱글이 날아가 버리는 피해를 입었던단다. 정전 사고나 세대 발코니 유리창 손상 없이 지나간 것이 다행 중 다행이다. 특히 벤츄레이터가 날아가면서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은 하늘이 도와준 것이다. 우리가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



**2019. 9. 10.**

태풍(링링)으로 날아간 벤츄레이터와 옥상 출입문 파손은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 보험 가입 서류를 확인해 보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또 책임보험의 면책 사항으로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추석을 지나고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바로 수리해야겠다. 이번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풍수해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은 화재보험,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이 정도 피해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추석을 맞아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고, 내일 하루 출근하면 4일간 연휴에 들어간다. 바쁜 일이 없으면 내일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도록 해 주려 한다. 내일부터 귀성 전쟁이 시작되겠지. 모두가 안전한 귀성길이 되기를 바라본다.



**2019. 9. 19.**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고액 연체 세대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로 의결되었다. 2세대가 해당이 되어 20일까지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법원에 신청할 지급 명령을 준비하기로 했다. 입증 서류로 관리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근거 자료 1부, 최후 독촉한 내용증명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관리비 연체 내역서 1부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는데 송달료와 인지대의 금액을 알 수가 없다.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좋은데, 법원에서는 이런 사항을 전화로 잘 알려주질 않는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니 좋아하질 않을 것이다. 서류를 작성하여 평택지원 안성법원으로 갔다. 이곳은 처음 와 보는 곳이다. 1층에 등기소가 있고, 2층에 법원 사무실 하나, 맞은편에 법정이 하나 있는 작은 법원이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창구에 직원은 없고, 맨 뒷자리에 책임자로 보이는 분이 나에게로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다. 나는 서류를 보여 주며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알고 싶다고 했다. 내 서류를 훑어본 후, 누가 작성했냐고 물었다. “제가 작성했는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다”고 하니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제가 금액을 알려 드릴게요” 하면서 자리로 가서 자료를 보고 샤프로 비어 있는 금액란을 메워서 내게 건네주는 게 아닌가. 원래 법원에서

는 서류의 검토, 상담 등을 해 주지 않는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안내는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기본 좋게 지급 명령 신청 준비를 마쳤다.

##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



**2019. 10. 10.**

경리주임이 이틀간 휴가를 냈다. 이럴 경우, 나는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다. 민원 전화에, 사무실을 찾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지켜야 한다. 설비주임은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니 사무실에는 출근해서 잠깐, 퇴근할 때 잠깐 볼 수 있을 뿐이다.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다. 지난 한글날, 방문 차량이 주차를 해 놓았는데 손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CCTV 판독을 의뢰해 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주차 위치를 찍는 CCTV가 고장이 나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 민원인이 사무실에 와서 ‘관리사무소가 뭘 하고 있냐?’는 것이다. CCTV가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는데 고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누가 오래전에 고장 났다고 하더냐 물으니, 설비주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모든 기계 장치는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자체로 고칠 것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많다. 이럴 때 민원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이 될 수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오후에 관리소장 세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아파트 경비



원이 17일간 병가를 낸 사실을 알고는 대근할 사람을 추천하는 전화다. 그중 한 소장님은 대근을 희망하는 분이 81세인데 정정하고 일을 잘하는 분이니 꼭 써 달란다. 그렇다. 물리적인 나이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건강도 정신도 개인차가 매우 크게 존재하니까, 오래도록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심의



**2019. 10. 21.**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서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도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류를 검토해 보니 사업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고 창의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고 소장 경험에 일천한 내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쉽게 가기로 했다.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사업 계획 예산 외에도 3건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안과 보고 사항도 4건이나 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도 2시간은 걸릴 것 같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맨 뒤로하고 일반 안건을 빠르게 진행했다. 사업 계획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안까지 1시간에 마쳤다. 단, 예산 중 일부에 대

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 인건비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 나는 사회적인 임금 수준을 비교해 격차를 해소한 후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인 3%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많이 웃도는 인상률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동종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언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나의 인상 전제 조건은 명분이 있고, 올 연말에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대표들로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 차기 회의에서 이들을 설득시킬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준비



**2019. 10. 22.**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우리 아파트는 8개 선거구에서 8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6명 중 5명이 중임을 해서 출마할 수 없고(단, 2차의 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마할 수 있다), 1명은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니 한 번 더 출마할 수가 있다. 선거 추진 일정 계획(안)과 선출 공고(안) 등록 자격을 정리해 오늘 6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명인데,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어 첫 회의에 전원 참석은 어

렵겠다. 두 사람은 6시를 원하고, 한 사람은 7시를 원하니 시간 조율이 쉽지가 않다. 오늘 회의는 6시로 하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7시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모두들 이번 선거를 마치면 사퇴를 하겠다고 하니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일이 이번 동 대표 선거가 끝난 후 바로 이어질 것 같다. 말이 선거관리위원이지 관리소장이 다 만들고, 진행하고 위원들에겐 서명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 법적 사무라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만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별도로리가 없다.

## 주차 질서를 잡아라



**2019. 10. 29.**

지난 17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 문제로 동 대표와 회장의 주문이 있었다. 아파트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문제,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흡연 문제이다. 내가 근무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주차 질서 확립 캠페인이었다. ‘주차 질서 확립으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이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고, 소형차 전용 구역도 만들었다. 대표회장 명의의 서한도 세대에 보내고, 주간에도 두 차례 지하 주차장을 돌면서 위반 차량에 계도문을 삽지하고 나름 정성을 쏟았더니 눈에 띄게 좋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신경을 덜 쓴

게 사실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반 차량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다시 두 차례 돌면서 계도문 삽지 작업을 해야겠다. 내 명의로, 10월 말일까지 예고 기간을 두고 11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세대에 보냈다.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가 않기에 꾸준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 나가야겠다.

## 유종의 미가 아쉽다



**2019. 11. 6.**

내가 중학 시절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종례 시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시작은 요란을 떨며 잘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무리를 할 때쯤이면 시들해지고, 흐트러져 처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어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사전에 공고도 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6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성원 미달로 회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미루게 되었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 대표들은 12월 31일로 임기가 모두 다 만료된다. 그래서 차기 동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나름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전화로 확인하니, 그때야 사정이 있다, 깜빡

했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 지난 후 병원에 있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많이 한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미리 상황을 이해시켜 약속을 바꿀 수도 있다. 공인, 비즈니스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를 잃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말자. 약속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이전에 나는, 약속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약속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체납한 사람?



**2019. 11. 7.**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이 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난다. 6명 중 5명이 중임(2년 임기를 2번)을 했고, 1명이 단임을 했다. 중임한 자는 출마할 수 없는데,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자가 없어 선출 공고를 재공고했는데도 없으면 출마를 할 수 있다. 나로서는 이런 선거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 관계 법령에 의문이 있어 안성시장과 건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게 되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내가 질의한 요지는, '체납한 사람을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

과 현재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체납으로 보는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두 기관의 답변은 체납한 사람을 현재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데는 같다. 그러나 기준일에 대해서는 안성시장은 선출 공고일로 보았고, 건교부장관은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로 보았다. 선거는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다. 5일 등록을 마감하니 8개 선거구에서 3명이 출마했다. 미 출마 선거구 5곳에는 재공고를 하여 후보 등록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법령을 만들 때 ‘선출 공고일 현재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으면 이런 질의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2019. 11. 13.**

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다. 지난 10월 17일 회의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예산안 중에 임금 인상이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3개 아파트 단지의 임금을 비교해서 직원의 임금을 조정하기로 하고 비교해 보았다. 소장의 경우 15%가 낮은 수준이고, 경리주임은 8%, 설비주임은 1% 낮은 수준이다. 소장인 나와 설비주임은 비교 임금에서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경리주임만 6%를 인상하고 그다음 3%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서 통

과되었다. 그 후 며칠 지나 대표회장이 사무실을 찾았다. 임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하면서 내놓은 안이 기본급의 3%, 총액의 3%를 인상하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 11월 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이번에 통과된 인상안은 명분도 있고, 올해 임기가 끝나는 중 대표들로서도 떠나는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 줄 수 있는 인상안이어서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나는 회의에서 사회적인 임금 수준을 맞춰 가야 하는 중요성을 말했다. 첫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른 아파트의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상대적인 불만이 생기고 둘째, 직원이 퇴사를 해서 사람을 충원할 경우, 임금 수준의 차이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비교 임금의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이해시켰었다. 그런데 나의 제안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본급의 3%로 기우는 게 느껴진다. 나는 기본급의 3%와 총액의 3%로 인상했을 때 총 인건비의 차이가 월 37,100원밖에 안 되고, 이 금액은 각 세대가 월 700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수준임을 이해시켜 총액의 3% 인상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다음은 동절기 사무실의 근무 시간을 08:30 출근, 17:30 퇴근으로 변경 시행하는 안인데 여기서도 이견이 많았다. 현재 18:00에 퇴근하는 것을 30분 일찍 하면 입주민들이 직장 퇴근 후 민원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것이 문제라면 소장이 18:00까지 자리를 지켜서 해결할 테니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단 시행한 후 반응을 보아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다. 기존의 것을 바꾸는 데

는 쉬운 게 없다. 하지만 충분한 명분이 있는 임금 조정안이 무산된 것에는 안타까울 뿐이다. 나의 설득 기술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돌릴 수밖에 없는….

## 범죄 경력 조회



### 2019. 11. 19.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아파트는 8개 선거구인데 3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각 1명씩 등록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려면 정원 8명의 2/3인 6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회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다.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에는 선출 공고를 다시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고, 재공고를 하였는데도 후보 등록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중임(2년+2년)한 자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중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가 등록을 하면 중임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확인서 또는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3. 관리비 등의 완납확인서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2항이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후보자에게 받는 서류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2. 후보자의 동의서
3. 위임장(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소장에게 위임)
4. 선거관리위원장 신분증 복사본
5. 선거관리위원장을 확인하는 서류(위촉장 또는 회의록사본)
6.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청행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하면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1~2차 선출 공고를 통해 후보 등록한 3명에 대하여 안성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마쳤는데, 모두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 대표를 하려면 평소에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2019. 11. 22.**

어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었다. 우리 아파트는 8개 선거구인데, 3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후보자가 등록했다. 서류 심사와 범죄 경력 조회까지 마쳐, 어제와 오늘 방문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구마다 1명이 입후보하여 별도의 투표 장소를 만들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찬성과 반대에 표기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입주자 등이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투표는 주간(14:00-15:30)에는 한 주임과 경비원이 3개 선거구를 돌고, 야간(19:30-21:00)에는 나와 경비원이 돌기로 했다. 나는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교육을 실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표기하는 별도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투표자가 서명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 표시를 해도 진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야간 투표를 마친 시간은 21:20이었다. 3개 선거구에 투표에 참가한 인원이 모두 반수를 넘었으니 사실상 투표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만 공고의 내용대로 오늘도 주·야간 투표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봉하여 확인하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9. 11. 29.**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해서 3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은 8명이다. 4명 이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할 수 있는데, 8명이 정원이기에 안전을 의결하려면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원 8명의 2/3 이상이 선출되면 그 선출된 인원이 곧 정원이 된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6명이 선출되면 그들이 정원이 되어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부족한 3명을 채우기 위해 재공고를 하고, 3차 공고를 한 끝에 가까스로 3명의 후보 등록을 마쳤다. 12월 2일과 3일에 방문 투표를 하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마치게 된다. 오늘 점심은 옆 단지인 임광 그대가 2차 남영숙 소장이 내기로 했다. 지난주 토요일 큰아들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6명의 소장님들을 점심에 초대해서 공도의 찜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을 하게 되었다. 두 여자 소장님들이 소장을 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를 얻게 되었다는 소릴 듣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원인이 된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 당차고 커리어 우먼의 면모를 보여 주기에 손색이 없어 존경스러운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병을 얻었다니 안스럽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받고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스트레스를 잘 풀어 가려면, 문제를 피

하지 말고, 그때그때 즉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두 소장님들, 건강을 잘 관리해서 커리어 우먼의 멋진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 소방, 방법 교육



### 2019. 12. 3.

어제부터 영하로 내려가 이제 겨울을 느끼게 하는 날씨다. 어제 9시부터 1시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안성시가 주관하는 방법, 소방교육이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다. 9월에 계획되었던 교육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연기된 것이다. 강의장이 훈훈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졸음이 온다. 어젯밤 책과 유튜브를 보다 잠을 설친 게 원인이다. 졸다 깨다를 반복했으니 피교육생으로는 불합격이다. 그래도 머리에 입력된 것은 화재가 발생해 정문 경비실 등에 설치된 화재수신반에 벨이 울릴 경우 소방관이 올 때까지 끄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다. 이것은 화재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하면서 화재 감지기 등을 탈락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하니 공사 업체에게 공사 전에 교육과 주의를 주고, 공사 후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실시하는 작동 기능 점검과 소방 정밀 점검을 받기 위해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 시 50% 이상의 세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 진입 제한

봉을 반드시 설치해 지하 주차장 천정에 설치된 각종 배수관 등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방법 교육은 경비원이 검문할 권한이 없으니 범죄 예방에 주력해야 하는데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입고 계신 잠바가 따뜻해 보이는데 내용이 오리털입니까? 차량 번호가 7777로 눈에 바로 띄네요?’ 등이다. 범인들은 자기 노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자기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소매치기, 은행 강도 등이 거의 사라진 것은 CCTV의 영향이고, 차량 뺑소니는 검거율이 100%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관리소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적잖이 많았던 교육이었다.

## 동별 대표자 선출을 마치고



### 2019. 12. 4.

어젯밤 21:30에 동별 대표자 3명을 세 차례 선출 공고 끝에 방문 투표로 선출하여 도합 6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마쳤다. 처음 경험하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에 2번의 질의를 받거나, 중임 제한이 해제된 동 대표 경력자에 대하여 후보를 중용해 보기도 하는 등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2년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기에 이번 경험은 내겐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동별 대표자들과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에 관한 모

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6명 중 3명은 신입이고, 3명은 경력자이다. 4명이 남자이고, 2명이 여자이다. 평균 연령은 64세로, 이제 내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멤버들과 송년 저녁 식사를 하면 사실상 현재 집행부는 업무를 종결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가 이뤄지고, 안성시청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마치면 새로운 집행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멤버들과 내년 1월에 상견례 겸 첫 회의를 해서 회장, 감사 2명 총무이사 1명, 환경이사 1명을 선출해 보면 이들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갖춘 구성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송년회



### 2019. 12. 6.

한 해를 보내는 12월에는 이런저런 송년회 모임이 있다. 요즘은 12월을 고집하지 않고 11월에 미리 하거나 신년회로 하는 등 송년회의 형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보통은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음악회, 뮤지컬을 보고 볼링을 치는 등 내용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고 건전한 송년회가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 길들여져 있어 송년회를 하

면 한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제는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입주 자대표회의 송년회가 있었다. 아파트 근처의 식당에서 돼지갈비와 소주를 한잔하면서 4년간 동 대표로서 봉사한 소회를 토해 내는 모습을 보면 흥분하면서도 아쉬워하는 기분이 느껴진다. 6명 전원이 참석했고, 사무실에서 나를 포함 세 사람, 전임 심장섭 소장 도합 10명이 2시간 가까이 술잔을 부딪치며 서로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겼다. 나는 건배사 제의를 받고, 짧게 한마디 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파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저에게 많은 경험과 조언을 해 주신 대표회장님과 동 대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대표는 떠나시지만 늘 저희 곁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나와서 나와 한 주임과 유 주임, 우리 셋은 200미터를 걸어 한적한 찻집에 들어갔다. 차 한잔을 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자는 마음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동 대표 당선인 사퇴



**2019. 12. 12.**

동 대표 당선인 중 한 사람이 사무실을 찾았다. 동 대표를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본인이 시내의 아파트에서 설비기사로 근무를 하는데, 관리소장이 자기가 베르빌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된 것

을 알고는 동 대표를 그만두라고 해서 사퇴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관리소장이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동 대표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하시라고 해도 관리소장이 알면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6명을 선출해서 임원 선출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마치고 시청에 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1명이 사퇴하면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1명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사퇴를 하는 대표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올해 말 동 대표 임기를 마치는 육영숙 대표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지난번 재공고(동 대표 선출공고) 후 후보자 등록이 없어 등록하려 했는데 사퇴자가 등록하는 바람에 등록이 무산되었었다. 육 대표는 남편이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설득 끝에 나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어 한시를 놓았다. 절차를 거쳐 26~27일 동안 투표를 해서 1명의 대표를 당선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관리소장은 자기 직원이 동 대표가 되는 것을 왜 막을까? 동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내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관리소장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나는 직원이 동 대표를 하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로 삼을 것 같다. 요즘은 비밀이 없다.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 작은 권한으로 직원을 통제하려는 사고와 발상은 정말로 구시대의 산물이다.





**2019. 12. 17.**

올해도 2주를 남겨 놓고 있다. 아직 매서운 한파는 없어 다행이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세대에서 동절기에 동파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소릴 들어, 올겨울도 대비는 하고 있지만 걱정된다. 우리 아파트와 접한 상가 건물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계단을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우리 아파트 경계에 접한 3개 점포가 들어선 상가에서 임의로 상수도 급수관을 외부로 노출시켜 건너편 빌라로 공급하는 관이 터져 발생한 사고다. 두 사람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수돗물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냐 물어도 답이 없다. 외부로 노출된 수도관은 우리 아파트 진입로를 침범해 지하에 매설하지 않고 시멘트로 덧씌워 일부 관이 노출되어 있어, 동파는 물론 차량 등이 통과하면 파손될 위험이 보인다. 설비 한 주임에 확인해 보니, 겨울철마다 주변이 얼어붙어 안전사고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바로 사무실로 와 안성시청 상수도 사업소에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해 달라는 민원을 문서로 만들어 발송했다. 상수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할 사안인 것이다.



2019. 12. 27.

어제는 흐린 날씨에 진눈깨비가 오더니 비로 바뀌어 을씨년스러운 날이다. 이런 날엔 따뜻한 아랫목에서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난다. 주변에서 늦깎이 관리소장인 나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는 대선배들과 돼지국밥으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 관리소장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최재원 소장, 최 소장은 주택관리사협회 안성지부 회장을 맡아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어울림 2단지 김기태 소장, 김 소장은 평택기계공고를 나와 두원정공에서 일했고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는 곳마다 아파트에 많은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 내가 보기에 정통 관리소장이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파트 관리 경험에서는 대선배인 두 소장님들, 나는 초임 소장이지만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 든든한 두 소장님들을 멘토로 하나하나 배워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비 오는 분위기에 맞는 돼지국밥으로 점심을 같이하며 공통 관심사인 아파트에 관한 주변 동향과 실전 경험담을 소재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멘토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



**2020. 1. 3.**

새해 첫날부터 바쁜 하루를 맞았다. 작년 마지막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15년 전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명선 남 부지부장. 이 지부장은 경기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을 두 번 했던, 자동차 업계에선 경륜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올 1월 21일에 경기도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주변에서 권유도 있고 현재 집행부의 능력 부재로 개혁의 드라이브가 실종되어 있어, 본인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비한 홍보물과 연설문을 부탁해 왔다. 내가 조합을 떠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러 업계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나의 사무실로 오겠다던 사람이 손님이 오는 바람에 4시가 되어도 못 오고 있다. 내가 차를 몰아 의뢰인의 사무실에 가서 개략적인 상황과 의도,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 왔다. 내일은 1월 1일 새해 휴무일이다. 도서관에 가서 이 일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꿈속에서도 이 일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아침 일찍 일을 하려면 도서관은 안 되고 관리사무소가 나올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에서 7시부터 12시까지 시안을 만들고, 연설문의 요지를 만들 수 있었다. 우선 팩스로 보내 주려니 팩스 번호가 없다. 메시지로 요청하고 30분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다. 사무실을 나와 집에 도착하니 답장이 왔다. 내일 보내 주기로 하고 이 일에서 해방되니 잠이 쏟아진다. 새해에

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런저런 단체에서 단체장 선거가 있다. 한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변화에 대응하고, 개혁을 주도해 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채우려는 학습의 자세와 태도가 없는 리더는 리더로서 함량 미달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 민원서류 간소화



### 2020. 1. 8.

우리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이 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시청에 하면 7일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다. 서식에 의한 기재 사항 외에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서류를 준비해 시청의 건축과 공동주택 팀 담당자에게 제출하니, 서류를 대략 검토하고는 구비 서류에도 없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부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 하고 시청을 나왔다. 회장이 바깥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을 세무서

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전인 1월 6일에 평택세무서에 법정 서식인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구비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했던 근거인 회의록 사본과 회장이 못 가기에 관리소장이 신고 행위를 대리함에 따른 회장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인 소장의 임명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춰 접수했다. 그런데 처리 기간이 3일인 정정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전임 대표의 임기가 12월 31일자로 끝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두 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추가로 요구받은 서류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었다. 내가 공무원에 있을 때에도 민원서류를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었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서류는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에 두 기관의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는 그 옛날로 복귀한 것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교차한 하루였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계인수



**2020. 1. 17.**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계인수가 있는 날이다. 지난해 12월 31일로 4년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강현제 회장과 올해 새로 입

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회장을 맡게 된 박영숙 회장의 인계인수인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전임 회장과 입주자대표 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번 느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언가 서로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깊은 속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6시 반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준비한 인계인수서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서로 마주하기를 꺼리고 싫어하기에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인수를 받는 박영숙 회장에게 어제 준비한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미리 설명해 주었다. 통상적인 인계인수는 받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번 회장의 인계인수의 주요 내용은 일반 현황, 계약 현황, 예산 현황, 임금, 장기 수선 충당금 현황, 현안 사항, 결산서, 관리 규약 중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사항 등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장부와 통장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인계인수를 준비하면서 전임 근무자들이 작성한 장기 수선 충당금 자료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이것을 찾아내는 데 정리 유 주임이 이틀을 보내야 했고, 발전 충당금에 대한 전산 자료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임 회장과 공식적인 만남의 마지막 자리이기에 직원들도 퇴근하지 않고 6시 반까지 대기하도록 했다. 서로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려 한다. 가장 빠른 시간에 별 탈 없이 인계인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자리를 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 1. 20.

밤새 싸라기눈이 약하게 내렸다. 다른 때보다 일찍 출근했다. 경비근무자가 출입구에 깔판을 깔고 있다. 빗자루를 찾으니 “소장님, 그냥 들어가세요” 하며 소장님이 눈을 쓸면 자기들이 욕을 먹는다고 한다. 빗자루를 찾아 동 출입구에서 사람이 다니는 동선만이라도 우선 눈을 쓸어내는 작업을 했다. 미화원들이 입구를 쓸고 있다. 그만하시고 내부를 청소해 달라고 하며 들여보냈고, 101동부터 내려오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은 모두 다 쓸었다. 나머지 눈은 햇빛이 나면 바로 녹아 버릴 것이다. 눈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 미끄러져 사고라도 나면 관리사무소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자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10km 서행 표지판, 눈과 비가 올 때 미끄럼 주의, 추락 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선량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눈이 아주 적게 와서 문제가 없지만, 눈이 많이 와서 쌓이기라도 하면 우리 아파트는 비상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근무일에는 나를 포함한 3명이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휴일에는 경비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나와 설비주임은 출동해야 한다. 아파트 내부에 경사진 곳이 있어 염화칼슘을 뿌리고 위험 지역과 동선만이라도 안전하게 소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올겨울 들어 아직까지는 강추위와 폭설이 없어 천만다행인데 남은 겨울, 잘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이다.



**2020. 1. 31.**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이 세대 방송이다. 19년 차에 들어선 우리 아파트의 세대 방송 상태가 문제가 있다. 잘 나오는 세대도 있지만, 방송 상태가 불량한 세대도 있다. 민원으로 접수한 세대가 6세대인데, 스피커를 교체해 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방송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세대에 사람이 있을 때 방송을 해야 가능하기에 아침 이른 시간, 점심시간, 저녁 9시, 이렇게 하루에 3회, 일주일에 2일, 한 달을 하면서 신고를 받아 보기로 하고, 지난번 자동 안내 방송 시스템을 소개한 업체를 불렀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에 방송 문안을 입력하면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방송이 되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 방송도 가능하다. 월 3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 가구당 월 150원 정도의 관리비 부담이 발생하지만, 전문 성우의 음성으로 방송되기에 기존에 직원들이 마이크로 직접 방송하는 것에 비하면 전달력이 높다. 업체에서 한 달간 무료로 시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 예약 방송을 하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세대 방송이 가능하기에 세대 방송 상태를 점검하기엔 더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설치를 마치고, 조작 방법도 설명을 듣고, 업체 관계자를 보낸 후 저녁 9시에 방송 예약을 하고, 퇴근하려는데 세대에서 전화가 왔다. 세대의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린다는 것이다. 예약 방송을 하기 위해선 방송 기기의 전원을 켜 놓고 세대에 방송이 가능한 상태



로 오픈해 놓아야 하는데, 이런 상태가 세대 스피커에 잡음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약 방송이라 해도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 직원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종료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경비원 한 분이 남는데, 이분이 이 시스템을 조작하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방송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방법을 달리해야만 할 것 같다. 아침 이른 시간과 낮 시간 방송은 내가 있으니 가능하지만 저녁 9시가 문제다. 이 문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내가 나와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경비원의 저임금은 고령자를 채용하게 되고, 이들의 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 낙엽 폐기물 처리



### 2020. 2. 7.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년 예초 작업을 한 후 나오는 풀과 낙엽을 버리는 일이 간단치 않다. 버리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나온 풀과 낙엽 폐기물이 대형 비닐 백으로 30여 개나 된다. 이런 폐기물을 전국적으로 수거해 가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 70만 원을 요구한다. 주변에 농장을 알아보았다. 우리 아파트의 낙엽은 활엽수라 퇴비로 쓸 수가 있는 좋은 자원이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가져가기로 해서 내심 반가웠다. 그러나 차량으로 한 차를 가져간 후 차일피일 미루다 엇그제 못 가져간다는 연락이 왔다. 차량 문제도 있고, 차량에

신는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한 명을 지원해 준다 해도 못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야적하고 있는 장소는 103동 화단 부근으로, 우리 단지 내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103동 201호에서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다. 103동 201호는 경매로 취득해서 입주할 하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상태인데 냄새도 나지 않는 낙엽 비닐 백을 즉시 옮겨 달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경매로 취득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폐기물이 야적된 것을 보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신세를 졌던 영상자원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여 20만 원에 처리하기로 하여 어제 말끔히 정리하였다. 아침에 출근을 하니 입주자대표회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소장님, 폐기물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낙엽을 그때그때 100L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겠다.

## 제설 작업



**2020. 2. 17.**

어제 낮부터 날리던 눈발이 내려 녹아 버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늦은 밤에 제법 쌓이기 시작하여 도로를 덮고 있다. 6시 반에 아파트에 도착하니, 오늘 근무자인 김 반장님이 눈을 쓸고 있다. 다행히 안성은 평

택보다 눈이 적게 내려, 아파트 동 출입구 입구와 사람들이 다니는 동  
 선만 쓸면 되겠다. 40여 분간 눈 쓸기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생각  
 보다 춥지 않아 낮에 햇빛이 나면 눈은 녹아 버리겠다. 이렇게 밤에 눈  
 이 내리면 우리 아파트는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비원 한 명  
 뿐이니, 나와 설비주임이 출동을 하여야 한다. 이번 눈은 다행히 적게 내  
 려 아침 일찍 나와 김 반장님 둘이서 해결했지만 많이 쌓일 경우가 걱정  
 이다. 다행히 올해는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군  
 대 생활을 할 때 제설 작업으로 하루를 종일 매달렸던 때가 생각난다. 나  
 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 밤새 30cm 이상 내린 눈을 치웠는  
 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함박눈이 무섭게 내려 쌓이는 것이다. 군대에서  
 는 눈이 쌓인 것을 그대로 놔두고 볼 수가 없다. 제설 구역이 정해져 있  
 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경쟁적으로 눈을 치우니 안 할 수가 없다. 이  
 렇게 눈을 치우다 보니 하루를 제설 작업으로 보낸 것이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눈은 기다려지고, 보기가 좋은 겨울의 상징이 되  
 기도 하고, 눈을 쓸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보기 싫  
 은 존재가 되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눈 쌓인 도로는 피하고 싶  
 은 존재가 된다. 어렸을 때는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면 발밑에서 뽀드득 뽀  
 드득 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와 바둑이와 함께 많이 뛰어다녔던 추억  
 도 있고, 언덕진 곳에서 비닐로 된 비료 포대를 깔고 눈썰매를 탔던 일  
 들도 생각난다. 모든 현상은 양과 음이 있는 법이다. 긍정과 부정, 찬성  
 과 반대, 성공과 실패.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열어 가려 한다.



2.

## 등산과 여행을 벗 삼다





2019. 5. 17.

고성산을 오른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하게 와닿는다. 몇 해 전, 길에서 아빠와 유치원생 정도의 사내아이가 걸어가는데 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빠, 이 꽃이 무슨 꽃이야?” “아카시아.” 몇 해 전부터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흰색으로 멀리서 보면 아카시아꽃과 비슷하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아이는 이팝나무를 아카시아로 알았으니 언제까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려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아들에게 알려 준 아빠는 언제 가서 이번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큰소리를 쳐 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택시를 타 운전기사 분들이 하시는 말을 들어 보면 라디오를 통해 들은 정보와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전문가처럼 나름대로 옳기기에 열을 올리는 분들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바로 그에 대한 반대 이론이 나오고 끊임없이 정반합을 거쳐서 모범 답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을 타면서 주변을 보니, 경사면에 지난번 내가 찾다가 포기한 칙 순(길용)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산해서 채취하기로 하고, 다시 산을 오른다. 나무와 잎, 꽃들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요즘 산을 타는 즐거움이자 축복이다. 전에는 체력 단련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사

색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갖는 쪽으로 바뀐 것이고, 나의 꿈과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 뒤에는 주변 모든 것들이 주위 깊고 관심 있게 보인다. 하산 길에 경사가 심하고, 잡풀이 많이 우거진 숲을 헤치고 길용을 채취했다.

## 평택 정운 산악회



**2019. 5. 18.**

5월 10일자 인사 발령이 취소되고 배치 교육을 받기까지 17일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나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생각했었다.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 하니 마땅히 갈 곳이 없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대신 고성산에 오르는 시간을 자주 갖기로 했다. 빠르게 걷기보다 다소 느린 걸음으로 숲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벗으로 삼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자연의 품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발가벗은 나와 만나고 싶었다. 숲은 치유의 장소이다. 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그것처럼 우리 몸을 정화시켜 주는 물질들, 돌부리,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 따가운 햇볕을 막아 시원한 쉼터를 만들어 주는 우거진 진녹색의 우산들까지... 내 일은 산악회에서 순창 강천산을 가기로 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사는 평택, 안성에 80곳이 넘는 산악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산악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연령

층, 남녀의 구성비, 정상을 고집하는 곳, 야유회처럼 노는 곳, 술고래들이 많아 술 폭탄을 돌리는 곳 등등 이번에 가는 평택 정운 산악회는 잘 맞는 산악회라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한다. 이 산악회의 색다른 점은 오락 부장이 있어, 가는 시간에 난센스 퀴즈로 상품도 주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다. 돌아올 때도 노래방과 디스코 타임을 적절히 안분해 지루하지 않고, 서로가 형님, 아우, 언니, 오빠 하며 친근감이 있다. 나는 내일 점심 준비로 내가 키운 쌈 채소 11가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 순창 강천산을 오르다



**2019. 5. 19.**

어젯밤에 비가 오더니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그렇게 기다리던 비 소식인데 여태까지 피해 가다가 하필 산행하는 오늘에 맞춰 오는지 모르겠다. 여름 등산복을 준비했는데 좀 춥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만약을 위해 우비도 챙겼다. 산행지인 순창엔 오후 3시 이후에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가 뜨니 다행이다. 어제 준비한 쌈 채소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으려니, 쌈 채소들이 서로 섞이고 눌려질 것 같아 넓은 종이박스에 넣어 가져가기로 했다. 남들이 보면 무엇인가 궁금해할 것 같다. 예약 인원에서 4명이 빠진 41명이 출발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예약하고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집행부는 애를 먹는다. 강천산은 소금강으로 불리며, 노령산맥에 있고, 주위에 광덕산, 산성산, 추월산이 있다. 산



은 높지 않으나 기암절벽과 계곡, 울창한 숲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오늘 목적지는 연대봉(603m)이다. 4시간 코스인데 나는 구장군 폭포까지 가는 2시간 코스를 타기로 했다. 강천산은 국립공원으로 입장료가 3천 원인데, 나는 경로 우대를 받아 무료입장이다. 올해 처음으로 경로 우대 지하철 무료 승차 카드를 받아 서울 갈 때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다. 이 카드는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후에 주소지 농협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지공거사’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이라한다. 국립공원이지만 국립공원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다. 등산로 초입을 마사토로 덮어 맨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맨발 걷기를 하기로 했다. 걷다 보니 오락부장과 같이 온 동생들 세 명과 모두 여섯 명이 한 팀이 되었다. 구장군 폭포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어 주고, 팔각정에 자리를 폈다. 내가 준비한 쌈 채소 박스를 펼치자 11종류의 채소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담겨 있으니 모두가 탄성을 지른다. 모두가 쌈 채소와 우렁이 쌈장으로 손이 가는 것이다. 산행의 즐거움 중 식도락도 그중 하나이고, 모두를 즐겁게 해 준다.

## 월정사 전나무 숲길



**2019. 5. 26.**

이번 산행지는 오대산을 거쳐 주문진항이다. 우린 아릅드리 전나무

가 들어선 숲길을 걷기로 했다. 특히 일주문에서 월정사까지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침엽수인 전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방출된다고 한다. 나무와 흐르는 계곡물이 어우러져 몸에 좋은 음이온이 방사된다. 덕분에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매우 만족스러운 산책을 즐겼다. 이곳에 걷기 코스로 산재길이 있는데, 상원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3시간 반 코스인데 흙, 돌, 나무, 물을 모두 밟으며 걸을 수 있는 치유의 숲길로 알려져 있다. 1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적멸보궁을 거쳐 비로봉 정상까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걸었다. 요즘은 정상을 고집하지 않는다. 무리를 하면 무릎이 잘못되고, 그러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으니 달래 가면서 아껴서 써야 할 판이다. 요즘 시내에 정형외과 병원이 많이 개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의 타깃이 산악회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는가? 숲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길 맛이 다르고, 아침, 점심, 저녁나절의 풍경이 다르며,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대웅전을 들렀다. 그런데 49재를 지내는 행사를 하는 바람에 예도 치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내가 보기에 그룹의 총수 정도의 재력가가 타계해서 49재를 치르는데 회사의 임직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것 같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벡타이로 차려입은 직원들이 200여 명은 족히 되는 것 같다. 일부는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과 담배를 피워 대는 게, 자발적이 아니라 차출되어서 온 분위기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누구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가는데 편히 쉬어야 할 휴일에 동원령을

내려서까지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하는 분은 누구이신가? 나는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종교 재단의 세습, 종교인들의 문란 행위, 호화스러운 대형 종교 시설의 건립 등을 보면서 또, 나약한 민초들에게 영혼 장사를 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종교인의 행태를 곱게만 볼 수 없지 않은가? 오늘 대웅전을 독점해 망자에 대하여 49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 운수암 거쳐 대이산



**2019. 6. 1.**

교육 참가로 며칠간 아침 산행을 못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고성산이 있다. 전에는 반제 저수지 부근에서 운수암을 거쳐 대이산까지 오르는 1시간 20분 코스를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정도를 아침 6시경에 올랐다. 그러다 아침 시간에 할 일이 생겨 아침 산행은 더 이상 못했다. 대신 일요일에 산악회를 따라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산행에 동참했고, 전국의 유명한 산을 등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산은 나에게 건강을 지켜 주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주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산을 찾아 숲에서 만나는 자연은 내게 보약과도 같았다. 반제 저수지 부근에서 오르던 등산로가 개발로 인해 없어지게 되어 원곡물류단지 독정 저수지 부근에서 오르는 코스로 바뀌서 오르는데, 여기서도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짧은 코스를 탄다. 짧은 대신 같은 방향이

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는 길을 탄다. 매일 하는 산행이라 1시간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 전에는 장시간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책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주변의 모든 것들과 눈 맞추고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걷다 보면 곧 하산해 있는 나를 만난다. 산은 같은 산이라도 언제 오르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계절의 바뀔에 따라 숲의 공기와 색깔은 늘 새로운 느낌으로 와닿는다. 오늘은 적당히 바람도 있고, 나무가 해를 가려 산책하기엔 너무 좋은 날이다. 친구와 같이하는 산행도 좋지만, 혼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걸으며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역시 내겐 소중한 시간이다. 산행을 하고 나면 몸의 컨디션도 좋지만,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수확이다. ‘승자 효과’라는 게 있다. 작은 일이라도 성취를 하고 나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계속 선순환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 김삿갓 여행 동우회 3주년 행사



**2019. 6. 9.**

김삿갓 여행 동우회 3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속리산을 가기로 했다. 김삿갓 여행 동우회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전국의 명소와 둘레길을 주로 여행하면서 현지의 별미도 맛보고 즐기는 모임이다. 여자가 회장을 맡고 있고, 남자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

국장이 나와 나이가 같아 메신저로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되었다. 시간이 안 맞아 전에 2~3회 참여했었고, 이번 3주년 행사는 속리산 조각공원을 빌려서 각설이 공연, 색소폰 동호회, 초청가수, 동우회원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7대의 버스가 동원된 커다란 행사다. 나는 음주와 가무를 즐기지 않고 조용히 가는 5호 차의 맨 뒷좌석으로 자리가 지정되었다. 술을 권하는 사람도 없고, 소음 공해가 없었다. 조용히 고속도로 주변의 녹음이 짙어 가는 산하를 눈요기하며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다 보니 어느새 속리산 입구 정이품 소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속리산 법주사 주변을 둘러보고 행사장이 있는 조각공원에서 한식 뷔페로 식사를 하면서 행사를 즐겼다. 동우회원 노래자랑을 내심 기다렸는데, 주최 측에서 미리 확정된 출전 선수의 노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렇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는가? 주최 측의 고민도 이해가 간다. 사실 나는 조항조의 〈옹이〉를 부르려 했는데,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과 오픈이 된 야외에서 부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떨 수도 있다.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며 잊기로 했다. 이런 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를 욕심을 냈다니, 내가 생각해도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다.



**2019. 6. 16.**

이른 아침 여수 바닷가를 산책하며 사진도 찍고, 남해의 고유한 향과 바닷바람의 시원함을 흠뻑 마셨다. 우리는 40여 분을 버스로 이동하여 돌산읍 신기항에서 금오도가 있는 여천항에 25분 걸려 도착했다.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우리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하늘을 가리고,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는 비렁이 길을 1시간 40분 동안 걸었다. ‘비렁이’는 이곳 말로 비탈길의 사투리다. 동백나무가 주로 많이 있는 비렁이 길은 바다 가까이 있어 바다와 주변의 기암괴석을 보면서 무리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숲속에 있는 길이다. 이 길의 끝에는 깊은 협곡 위에 출렁다리가 있어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놓았다. 우리는 사진도 찍고 남해의 정취도 느껴 가면서 비렁이 길 코스를 완주했다. 이렇게 비렁이 길을 완주하고 버스로 여천항에 오니 2시, 점심 식사 시간을 넘긴 시간이니 모두가 배가 고프단다. 점심은 갈치 정식으로 간장게장과 ‘오찌’라고 하는 생선도 튀겨서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 안 맛있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푹딱 치우고 콩깃밥을 더 달라는 회원도 보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행에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하다. 바닷가에 왔으니 해산물을 사 가지고 가겠다는 회원이 있어 건어물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 들렀는데 막걸리와 다시마, 김을 재료로 만든 안줏거리와 돌산 갯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남자 총무의 성화에 못 이겨 막걸리를 서너 잔 마셨는데 맛이 일품이다.

오는 버스 안에서 노래가 분위기를 바꾸고, 음담패설이 섞인 노래를 개사해서 멋들어지게 부르는 회원이 있어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오락부장의 성화에 못 이겨 모정애의 〈인생〉과 최석준의 〈천년화〉를 불렀다. 노래방이 끝나고 팝송이 주로 나왔는데 탐 존스의 〈프라우드 메리〉는 옛날 생각이 나서 춤을 안 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1박 2일의 여행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으로 저녁까지 하고서, 오랜 친구가 된 것처럼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 고성 화진포, 라벤더 축제에 다녀오다



**2019. 6. 22.**

강원도 고성 라벤더 축제, 화진포를 다녀오는 김삿갓 여행 동우회 2호 차에 몸을 실었다. 이 여행 동우회는 지난번 3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서 좋은 느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버스는 2대, 1호 차는 조용히 가는 차이고, 2호 차는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자리를 배정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이야기이다. 지난번 내가 탄 버스는 7대 중 유일하게 조용히 다녀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에 예약할 때,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버스로 자리를 해 달라고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산을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조금 걷다가 오니, 몸을 풀어 주려면 춤을 추는 것이 전신 운동도 되고, 몸도 정리가 되어서 좋다. 버스는 출발하고, 생수와 떡과 과일을 나눠 주는데 일반 산악회와 비교하면

내용과 품격이 다르다. 종이 포장지에 담긴 썩이 들어간 떡에 견과류를 씹었다. 고급스럽고 맛이 있어 보인다. 과일도 플라스틱 용기에 포도와 방울토마토를 넣었고, 양념한 닭강정은 작은 용기에 포장했고, 술안주 용으로 부침개와 장떡을 종이 접시에, 번데기를 삶아 따뜻한 채로 종이 컵에 담아 정성껏 나눠 준다. 점심은 고성에서 산나물 비빔밥을 먹는데, 식당의 냉장고에 막걸리가 보인다. 이름하여 '달홀주'이다. 마주 앉아 있던, 연세가 나보다 많은 내외에게 막걸리를 한잔하겠냐 하니 좋단다. 식당 주변에 오디가 제법 많이 달린 뽕나무가 있어 오디를 한 손 가득히 따서 동생에게 가져다주니 같이 온 노래 교실 멤버들이 샘을 내는 눈치다. 허브의 왕이라고 불리는 라벤더 축제장에서 보랏빛 향과 색깔에 취해 그 기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화진포에서 파도를 피해 가며 찍은 사진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이야... 멋진 추억을 만든 여행이었다.

## 빠른 실행력



### 2019. 7. 7.

오랜만에 고성산에 오른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오르던 길인데 첫걸음부터 무겁게 느껴진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등산로 길 위를 디딜 때마다 나를 지탱하는 다리와 발바닥에서 흡과 잔돌이 전해 주는 감촉이 새롭다. 비가 오지 않아 나뭇잎의 생기는 덜하지만 짙어 가는 색감이 주는 묵직한 맛은 안정감을 더해 준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어느새 정상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은 이어폰도 없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경리 유 주임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 이어폰이 책상 모퉁이에 걸려 고장이 난 것이다. 이어폰을 이리저리 만지다 못 쓰게 되었다고 버리는 것을 보고, 내 서랍에 있는 이어폰을 쓰라고 주었다. 나는 집에 이어폰이 두 개나 있다. 그중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작동이 안 된다. 고장이 난 것이다. 산 중턱을 오르니 몸이 적응했는지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 오늘은 평소보다 여유 있고 길게 걷고 싶다. 이른 시간이라 햇볕도 없고 약간 흐린 날과 약한 바람기는 숲속을 걷기엔 최고의 조건이다. 하산해 집으로 오는 길에 텃밭에 들러 애호박 3개와 가지 2개를 따 가지고 나오는데 최재원 소장이 톱으로 사진을 보내왔다. 해수욕장에서 근육질로 단련된 멋진 몸매를 뽐내고 있다. 내가 보아도 자신 있게 내보일 몸을 만들었다.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몸이 먼저인 것이다. 그래서 최재원 소장은 항상 활력이 넘친다. 엇그제 관리사무소 입구에 표어를 커다랗게 걸어 놓은 것을 보면서 빠른 실행력에 감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무슨 무슨 자격과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 가지를 잘하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관대화의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보다, 알았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즉시 실행하는 실행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성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2019. 7. 8.

다시 한번 교정을 보고, 관리 규약을 신고하러 시청에 들렀다. 담당자가 금요일에 출장을 가서 월요일로 미룬 것인데, 오늘도 출장 중이다. 옆에 있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나올 수밖에 없다. 3단 비교표와 개정 전문은 이메일로 보내 줘야 하니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와야 한다. 시간이 애매하다. 오늘 점심을 최상원 소장이 콩국수로 예약해 놓아, 그곳으로 바로 가기엔 20여 분의 여유가 있다. 지난번 고성 라벤더 축제와 화진포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하면 시간이 되겠다. 사진관 사장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냈다. 세상 참 좋아졌다. 휴대폰의 사진 화질이 좋아서 전문가의 사진기와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다. 사진관에 도착하니, 사진은 인화되어 있고, 사장님이 어디서 이런 멋진 사진을 찍었냐 하면서, 모델도 멋있지만 순간 포착을 잘한 나의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칭찬한다. 내가 봐도 멋진 사진이다. 이런 자연스럽게 경쾌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선 타이밍과 셔터를 잘 다루어야 한다. 최재원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님이 예약한 그 식당이 오늘 휴무라 양성에 있는 보리밥집으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한다. 전화로 위치를 설명 들으니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도로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어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인데 반찬 가짓수도 많지만,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가 쓰고 있고,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은 맛이다. 거기다 가격도 6천 원이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쪽에서 경리 유 주임, 최상원 소장 쪽에서 경리

주임 포함한 3명의 직원, 최재원 소장 모두 7명이 함께 먹으니 더 맛나다. 지난번 최상원 소장과 근처의 보릿고개에서 보리밥을 8천 원에 먹었는데 비교가 된다. 오늘 간 보리밥집의 상호는 시골집이다. 모두가 만족해한다.

##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는 산악회



**2019. 7. 14.**

산악회장이 바뀌어 새롭게 출발한다는 신명품 산악회를 지인이 예약해 놓았다고 해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출발부터 시간을 40여 분이 나 지체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날에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전에 더불어 평송 산악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회장을 맡아 하기로 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의욕만 앞서고 치밀한 계획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아 왔다. 내가 보기에 이 산악회는 회장 혼자 의욕만 앞섰지 집행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버스 안에서 홍보 부장이란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군더더기를 얹어서 던지는 멘트가 소음으로 와닿는다. 버스 안을 보니, 더불어 산악회에서 만나 메신저 친구가 된 두 고문이 보인다. 메신저로 얼굴 좀 보여 달라 했던 안승호 고문,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동생뻘 되는 홍성복 고문이다. 이 두 사람

은 술이 세다. 벌써 사람을 시켜서 뒷자리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가 보니 한약 냄새가 진한 술을 한잔 건넨다. 술방울에다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 담근 일명 비아그라 술이란다. 한잔을 받아 들었으니 안 마실 순 없고 맛을 음미하며 조금 마시고 버렸다. 도착한 괴산의 칠보산 송계계곡은 차량과 사람들로 곳곳이 메워져 빈틈이 없다. 나는 술을 적게 마시려고 혼자 계곡으로 내려가 발을 담그고 계곡 상류의 돌과 나무가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풍경에 취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싫다. 오는 버스 안에서 노래방이 시작되어, 한 곡을 부르려 하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내가 부를 노래가 없다. 나훈아의 <사나이 눈물>을 불렀는데, 마이크와 음향이 약해 힘이 들었다. 오늘은 노래 부르는 것도 흥미를 잃었다. 친구와 술 한잔하고 부르면 흥이 날까?

## 산악회 운영



**2019. 7. 28.**

장맛비가 계속 내린다. 몸살기가 느껴진다. 결국 우리 산악회에 안승호 고문이 회비를 입금하여 예약해 놓은 오늘 일정에 불참한다고 메시지로 말하고 말았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전기장판을 켜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한다. 약을 먹었으니 좀 있으면 몸은 회복될 것이다. 2시간 가까이 자고 나니 한결 몸이 회복된 느낌이다. 동생으로부터 전

화가 왔다. 산악회 찬조금 건이 잘 해결되었단다. 내가 들은 바로는 신명품 산악회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첫 산행을 다녀온 후 산악회를 해체하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유인즉, 회장과 재무 간에 문제가 있어 요란스럽게 첫 산행을 마쳤는데 그만둔다는 것이다. 그러니 새로 출발하는 산악회를 위해 찬조를 한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찬조한 사람들 중에 몇몇이 집행부에 찬조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회장과 재무 간에 회비 사용에 관해 이견이 심했던 것이 해체까지 가게 된 것이다. 회장은 본인이 다른 산악회를 다니면서 쓰게 되는 비용을 회비에서 지원받기를 원했고, 재무는 회비에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으로, 서로 절충하면 될 일을 서로 고집을 피우다 한 번의 산행 후 해체의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학습과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우리는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상호보완적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의견의 조율과 절충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재무라는 사람이 회장보다 나이가 많고 권위적이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것 같다.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친목 단체이고, 집행부는 봉사 정신이 바탕에 있어야 산악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회장이 공적으로 쓰는 비용은 산악회 공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 것이고, 지금 당장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미루었다가 여유가 있을 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서로 간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했다고 본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산악

회를 결성했다가 한 번의 산행으로 갈라설 정도에 사람이라면 이 산악회는 이번 고비를 넘겼다 해도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다.

## 고성산을 오르다



**2019. 8. 10.**

아침 일찍 고성산에 올랐다. 오랜만에 오르는 고성산. 몸이 무겁다. 이렇게 몸이 무거울 땐 온갖 생각이 든다. 조금만 타고 내려갈까, 좀 쉬었다 갈까. 우리의 뇌는 생명 유지를 1순위로 생각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령을 내리는 속성이 있다. 우리는 뇌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행동해야 한다. 연초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에 끝나는 것도 뇌의 방해 작용에 있는 것이다. 산을 오르며 주변의 모습들을 사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 주는 것도 즐거움이다. 사진을 보낼 땐 여러 생각이 든다. 잠을 깨우는 건 아닌지, 내가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보낸다. 그러면 산을 오르는 동안 답장이 온다. 거기가 어디냐? 산에 가셨군요? 그러나 받고도 하루가 지나도록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 답장을 줄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살고 있거나, 이런 메신저가 반갑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오른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있다. 산을 내려오면,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시원한 막걸리 생각이 난다. 집으로 갈까 하다 발길을 돌린다. 돼지국밥에 막걸리 한잔으로 아침 겸 점심을 하고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면 세상에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2019. 8. 18.

어제 세차게 쏟아붓던 비가 지나가고, 가을 맛이 나는 기분이 느껴지는 날이다. 덕유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무주군 안성면 칠연계곡을 정은 산악회를 따라나섰다. 지난달 한 번 결석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만나는 회원들마다 반갑고, 손을 부여잡고 긴 악수를 나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 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칠연계곡은 7개의 못과 폭포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가 오르는 입구에는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 있어 주변 계곡을 통제하고 있고, 입구에 들어서서도 계곡은 보호가 되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았다. 우리는 적당히 오르다 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폈다. 함께한 사람이 여자가 2명, 남자가 4명인데, 영순 동생이 찰밥과 김치와 샌드위치를, 내가 복숭아와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다. 다소 부족한 듯하지만, 이곳에는 주변에 식당과 가게도 없어 이것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도 내가 왠지 불편하다. 산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먹을 것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텐데, 빈몸으로 왔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무 그늘에서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니, 잠시나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옛날 도인들이 도를 닦으며 자연에 심취해 시 한 수를 읊조리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3시에 뒤편이 예약되어 있어, 우리는 1시 반 경 예정된 장소에 미리 도착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주변에 개방된 계곡에 발을 담그니 시원한 기운이 온몸에 전해진다. 이래서 사람들이 계곡을 좋아하고, 물리는 것 같다. 나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신유의 〈나쁜 남자〉와 윤수일의 〈터미널〉을 불렀고, 나이트 뮤직이 신이 나서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고 몸을 풀어 주었다.

## 신안 안좌도



**2019. 9. 8.**

나눔 산악회에서 신안 천사대교와 안좌도를 가기로 한 날. 어제 태풍 링링이 매섭게 할퀴고 간 이후라 오늘까지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와 바람이 있을 것 같아 많이 걱정했는데 의외로 흐린 것 말고는 여행하기 좋은 날씨다. 예약한 사람들 중에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빈자리 없이 만석이다. 이 산악회는 1년 반 만에 가게 되었다. 여성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먹거리도 신경 쓰고 차분하게 운영을 잘하는 산악회다. 산에 다니다 보면, 지인들이 예약해서 함께 가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예약을 하고서 가지 않으면, 예약을 주선했던 사람이 중간에서 애를 먹게 된다. 그러니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답을 하기보다 먼저 생각하여 천천히 결정하고,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천사대교는 8k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다리인데, 처음에 새천년대교로 이름을 지었다가 지금의 천사대교로 이름을 바꿨다. 펄펄교는 갯벌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아, 여유 있게 천천히 걸으며 바다



의 향과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둘레길 정상에는 900년 샘물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샘물은 나오지 않고, 안내표지만 지키고 있다. 둘레길을 걸으며 숲의 나뭇가지와 잎이 많이 부러지고 떨어져 둘레길이 잔해로 덮여 있다. 어제 태풍으로 이 숲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부딪치고 서로 살아남기 위한 치절한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울부짖음과 통곡이 이 숲을 뒤덮었다고 상상하니 마음이 짝하다. 퍼플교가 있는 주변은 지붕이 모두 다 보라색이다. 미인들이 보라색을 좋아한다는데, 이곳에는 미인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자은백길 해수욕장은 비가 내려가지 못하고 오는 길에 폐교를 이용해 만든 에로스박물관을 둘러 성인들의 행위를 묘사한 조각품과 서각품을 관람했다. 오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음악이 파워가 있어 다리와 전신을 풀어 주었다. 태풍이 지나고 간 뒤라 고속도로도 정체 없이 빠듯하지만 하루를 알차게 즐긴 여행이었다.

## 보령 성주산 편백나무 숲



**2019. 9. 15.**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면서 일요일이다. 김두한 후배의 예약으로 안성 드림 산악회를 따라 보령 성주산으로 떠났다. 안성 지역 산악회는 서안성 산악회를 2~3번 참여한 적이 있었다. 오랜만에 안성의 산악회를 가려니 괜히 낯설게 느껴진다. 안성은 지역의 폐쇄성이 있다고 소문이

난 곳이다. 요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지역색이 조금 흐려진 듯하다는 소리가 들리기는 한다. 이 산악회는 40대에서 60대까지 고르다. 여성과 남성의 비는 5:5 정도, 산악대장이 남자와 여자 2명이고, A코스 와 B코스로 구분해 전체 회원이 산을 오른다. 점심은 코스별로 전체 회원이 모여서 함께한다.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펼쳐 놓고 함께 술도 한 잔씩 나누는 정이 느껴지는 산악회다. 후배는 A코스를 타기로 했고, 나는 B코스를 타기로 했다. A코스는 4시간 소요, B코스는 2시간 정도 걸린다. 우리는 편백나무 숲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며 삼림욕을 즐겼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는 나무가 곧게 하늘을 향해 찌를 듯한 기세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지 회장을 비롯해 산악대장과 회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우리는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산행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향했다. 회 정식으로 술도 한잔하면서 “드림 산악회를 위하여!”를 소리 내어 외쳤다. 이번 산행에 다음 달 외도 1박 2일 단체 여행을 함께 가게 된 동광산악회 강기선 회장도 만나고, 종합건설업을 하는 이효선 사장도 사귀게 되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노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모두가 함께했다. 10명 정도가 노래를 했는데, 나만 2곡을 부르는 기회를 가졌다. 나는 설운도의 〈그런 여자 없나요〉와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을 나름 열창했는데 마이크 성능에 문제가 있어 2% 부족한 느낌이다. 웬지 정이 느껴지는 분위기,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함께한 하루다.



2019. 9. 15.

오늘은 정운산악회에서 1박 2일 여수 금오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5시 반에 알람을 해 놓고 자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성진이 전화다. 내가 여행을 가는지 알고,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 전화를 한 것이다. 요즘 젊은이 치고는 반듯하게 자라, 예의 바르고 항상 스마일이다. 밤늦게 아니 아침까지 손님이 많은 날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면서도 크게 힘든 내색 없이 잘하고 있는 게 대견스럽다. 알람보다 30분 먼저 잠을 깨어 여행 준비를 한다. 여행은 목적지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설렘과 기다림도 마음을 즐겁게 해 준다. 4시간 가까이 가는 버스 안에서 난센스 퀴즈로 맞춘 사람은 상품을 받고 기뻐서, 못 맞춘 사람은 아쉬워서 희비가 교차한다. 상품이 뭔지 궁금해서 뜯어보려고 하면 진행자인 오락부장은 이 자리에서 뜯으면 폭발하니 집에 가서 뜯어보라고 한다. 나는 몇 번 상품을 받은 적이 있어,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 정답을 알아도 맞추지 않는 편이다. 난센스 퀴즈로 달군 분위기를 노래방으로 신나게 바꾸고, 처음에는 선곡을 안 하던 사람도 몇 사람이 부르고 나면 서로 부르려고 한다. 나는 오락부장의 성화에 못 이겨 가는 동안 두 곡을 불렀다. 배일호의 〈99.9〉와 조항조의 〈옹이〉를 불렀는데 〈옹이〉가 더 어울렸단다. 옹이라는 노래는 길게 고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다소 망설였던 노래였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별것이 아니지만, 나처럼 음치 수준의 사람이 오픈된 장소에서 실수 없이 잘 불렀다

는 평가를 받은 것은 대단한 일에 속한다.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여수의 밤바다를 1시간 반 가까이 즐겼다.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해변 포장마차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상 여행객을 위해 쏘아 올리는 불꽃은 장관이었고, 여수의 밤바다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자다 깨어 보니 1시 반,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경기를 하고 있어 수많은 슈팅 기회를 지켜보았지만 아쉽게 3:1로 패하고 말았다. 계속된 시합으로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선전해 준우승의 업적을 안겨 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 봉화 청량산



**2019. 9. 29.**

설악산에서는 단풍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전해 온다. 이제 전국의 명산은 단풍을 찾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운산악회에 몸을 싣고 봉화 청량산으로 떠났다. 추석 연휴로 인해 다섯째 주 일요일로 산행일이 연기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다. 이번 산행에는 현철이 아우, 두한이 아우가 지인 두 사람을 동행해 6명을 예약했다. 요즘 산악회에선 아침은 제공하지만, 점심은 산행하면서 먹을 수 있게 각자 준비해야 한다. 내가 예약한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해 오지 않을 것 같다. 영순 동생이 샌드위치와 찰밥, 요구르트, 찐 밤을 준

비했고, 나는 찐 계란을 준비했다. 과일은 산악회에서 바나나 또는 사과를 준비하기에, 이 정도면 산행하면서 시장기는 해결할 수 있겠다 싶다. 1인분씩 포장하여 버스 안에서 나눠 주었더니, 이런 걸 형님이 왜 준비를 했냐고 한소리 하지만 싫지는 않은 것 같다. 가는 길에 난센스 퀴즈를 해서 상품을 주는 게 이 산악회의 특색이고 전통인데, 우리 팀에서는 나와 영순 동생이 상품을 받았다. 정상을 다녀오는 조와 둘레길을 걷는 조로 나누어 산행이 시작되었고, 우리 팀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이름하여 ‘또랑조.’ 또랑조는 24명이다. 우리는 청량산 입구에서 낙동강 발원지를 향해 예던길 9.1km 중 5km를 걷고 그늘지고 바람기가 있는 요새를 찾아 전체 인원이 동그렇게 앉아 준비해 간 먹거리를 펼쳐 함께 점심을 하고, 새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소개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면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노래방이 시작되고, 나는 목 상태가 안 좋았지만 현철의 〈들국화 여인〉과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두 곡을 시원하게 뽑았다. 현철이 아우는 조영남의 〈옛 생각〉. 두한이 아우는 송대관의 〈딱 좋아〉, 장민호의 〈드라마〉를 개성 있게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높아 가는 가을 하늘, 시원한 계곡, 코스모스의 향연, 깊어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보낸 하루였다.



**2019. 10. 13.**

어제 채취한 질경이를 세척해서 그늘에 널어 말려야 한다. 흐르는 물에 뿌리의 이물질을 벗겨 가며 씻는데, 채취할 땐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씻어 놓고 보니 양이 제법 많다. 거실 한편에 종이를 깔고 널었다. 이틀만 말리면 될 것 같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괜히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 지난번에 쫄 순(길용)을 채취해 말린 것을, 주전자에 물을 붓고 끓였다. 색깔도 갈색을 띠고 맛도 구수한 게 차로 마시기에 제격이다. 한번에 다 마실 수 없기에 냉장고에 두고 물처럼 마시기로 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길용과 질경이를 물처럼 마셔 볼까 한다.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엔 안성 동광 산악회가 준비한 외도, 연화도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 마땅한 옷이 없어 이번 기회에 등산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으로 근무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기로 했다. 영순 동생이 코디네이터로 함께했다. 나보다 감각과 센스가 있어 쉽게 준비를 했다. 남해의 초록 바다가 눈앞에 어른거리며, 외도의 풍광이 펼쳐진다. 여행은 현지에서 느끼는 재미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 기다리는 마음이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싶다. 건강한 삶, 새로운 세계의 만남, 우리가 소망하는 보통 사람들의 꿈이 아니던가?



2019. 10. 13.

1박 2일로 외도와 연화도를 동광산악회를 따라나섰다. 남해와 동해에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불안하게 한다. 어쩌면 섬 여행을 못하고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걸 하늘에 맡기고 강풍에 대비해 겨울 잠바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동광산악회는 안성의 산악회로 두한이 후배가 함께 가자고 해서 1달 반 전에 예약이 되었고, 버스가 평택에서 출발해 내가 제일 먼저 버스를 타게 되었다. 버스는 내부가 깨끗해서 출발부터 기분이 좋았다. 41명 중 남자는 9명이다. 버스 안이 시끄럽다. 다행히 연화도는 배가 가능하고 외도는 아직 미정이다. 통영에서 50분 푸른 남해를 헤치고 연화도 선착장에 도착해 용머리 식당에서 고등어 매운탕으로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먹는 식사는 시장기가 더해져 맛이 있다. 산지에서나 그 맛을 볼 수 있는 고등어 탕은 별미였다. 우리는 연화도 뒷산을 2시간 반 동안 산행하면서 남해의 맛과 해풍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매력에 빠져 버렸다. 통영으로 오는 배는 육지도를 거쳐서 올 때보다 40분이나 더 걸려 어둠이 깔린 시간에 닿았다. 통영 횃집에서 막 떨어 나온 참돔회 정식은 시장이 반찬이라 소주와 곁들여 리필이 되도록 입에 당겼다. 우리가 묵는 숙소 주변에 노래방이 모여 있고, 명함을 돌리는 영업 사원이 있어 두한이 후배와 함께 노래방을 들렀는데, 우리 일행 중 10명의 여성들이 놀고 있는 장소에 합석을 하게 되어,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 3곡을 부르며 함께 즐거운

통영의 밤 문화를 즐겼다. 외도는 다음 날 아침에도 출항이 금지되어 우리는 사천(삼천포)에 바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늘에서 남해의 섬들과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에 흠뻑 빠져 버렸고, 남해의 보리암을 거쳐 10시가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다. 버스 안에서 부른 〈천년화〉와 〈사랑이 뭐길래〉는 회원들의 박수 장단과 특이한 막춤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후회 없는 1박 2일이었다.

## 노래자랑에 출전하다



**2019. 10. 20.**

며칠 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는데 이곳에서 노래자랑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가 온 것이다. 내일 장당동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예심이 있으니 오라는 것이다. 나는 타고난 음치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은 음향 기기의 도움과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대로 부르지만 오픈이 된 야외무대에서 반주에 맞춰 부르는 것은 경험도 없지만 또 다른 것이다.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다. 오늘은 뒷밭에 보라색 양파도 심어야 하고 월동 시금치도 파종해야 한다. 1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7시부터 11시 반까지 발일을 하고 준비를 했다. 당락에 관계없이 즐기기로 했다. 하나의 추억도 되겠기에 출전하기로 했다. 오늘은 60명이 예



선을 보고, 다음 주에 70명이 예선을 보아 10명을 선발한다. 11월에 가수도 초청해서 최종 결선을 치르는 생각보다 큰 행사이다. 동생은 5번, 나는 49번이다. 동생은 진성의 〈가지마〉를 자연스럽게 맛나게 잘 불렀다. 기다리던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나의 소개를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했다. 저는 평택 토박이, 이곳 장당동이 고향인 6학년 6반 최옥민입니다. “저는 타고난 음치인데 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못 부르더라도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남자의 인생〉과 〈터미널〉 중 고민하다 선곡한 곡은 윤수일의 〈터미널〉이었다. 반주가 시작되고 노래를 부르는데, 확실히 오픈된 무대에서 부르는 게 힘이 든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나? 물은 앞질러졌는데 큰 사고 없이 완창을 했다. 출전 선수마다 가창력이 뛰어나고, 외지 사람들이 더 많다. 노래자랑이 아니라 오디션 수준이다. 60명의 노래가 끝나고, 5명의 통과자가 호명되고, 참가자는 10만 원의 상품권과 식사 쿠폰 만 원을 받았다. 동생의 신청으로 새로운 경험과 하나의 추억을 만든 의미 있는 하루였다.

## 부락산 둘레길을 걷다



**2019. 10. 27.**

이건설 친구의 갑상선암 판정이 의심으로 나타나 조직 검사와 세포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는데 일단 네거티브로 나왔다. 3개월 후 검사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축하해 줄

겸 두한이 아우와 셋이서 부락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그동안 친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을까? 표정이 밝다. 우리는 셋  
 이서 나란히 걸으며 익어 가는 가을 색깔을 맘껏 맛보고 눈에 넣었다.  
 최유림 장군 묘지 부근에서 출발해 우성아파트 앞 국도에서 송탄출장소  
 를 거쳐 은혜여고, 국제대학을 지나는 코스인데 폭이 넓어 셋이서 나란  
 히 걸을 수 있었다. 나의 노래자랑 예심에 출전한 사건부터 친구의 여동  
 생이 노래자랑 예선에 탈락한 것이 사회자의 엉뚱한 멘트로 문제가 되  
 어 벌어진 소동부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2시간 넘게 걷고서  
 내가 준비해 간 막걸리와 사과로 갈증을 달래고, 시내 통통이네 식당에  
 서 염소 전골로 보신을 했다. 식당 주인인 동생이 가장 맛이 있다는 갈  
 비와 뺏살 부분을 너무 많이 넣어 줘서 남기고 말았다. 우리는 노래방으  
 로 옮겨 3시간 동안 갈고닦은 노래를 불렀다. 역시 친구의 노래는 일품  
 이다. 노래의 맛이 난다. 영순이 동생도 합류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  
 고, 정확히 3시간 20분 동안 기분 좋게 하나가 되어 즐겼다. 나는 이런  
 기회가 자주 없을 것 같아 저녁을 횡집에서 대방어로 쓰았다. 소주와 곁  
 들인 대방어회는 살살 녹아 술맛을 더하고 우리들은 적당히 술에 취해  
 발개진 얼굴로 헤어졌다.



2019. 11. 4.

굴다리 산악회, 이 산악회는 매주 산행을 하는데, 매주 산악회의 이름이 다르다. 여행사를 하는 대표의 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악회로,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탄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만차가 되어 평택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전에 두 번이나 예약을 하고도 차를 못 타는 일이 있어 머리에서 지워 버렸던 산악회인데, 동생의 지인들이 연락이 와 예약을 하면서 자리에 대한 다짐을 받고 갈 수 있었다. 두한이 아우와 영순 동생 셋이서 함께했다.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어, 이곳도 영향을 받아 날씨에 대한 걱정을 조금 했는데, 아침 안개가 걷히자 가을 하늘이 높게 구름과 함께 우리를 반겨 주었다. 우리는 유스호스텔을 지나 천동 탐방로 길을 걸으며 계곡물 소리를 들었다. 익어 가는 가을의 내음과 색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눈과 가슴에 담기 시작했다. 천동 탐방로 입구에서 나눠 준 연산홍 아기 묘목은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는 준비해 간 고구마와 맛깔스러운 김치로 산행 중 시장기를 달래고 하산해 보니 10여 명의 회원이 노래방을 빌려 흥겹게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들과 함께 두 곡의 노래도 뽑아 보고, 뒤풀이를 준비하는 장소를 뒤로하고, 우리 셋은 내가 준비해 간 라면을 맛보기로 했다. 가을에 소백에서 만나는 라면의 국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냄새가 퍼졌는지 두 사람이 추가로 합세해 국물 한 톨 없이 비우고 저물어 가는 가을을 소백에서 아쉽게 보낸 하루였다.



2019. 11. 18.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정운산악회를 따라 내장산의 뒷산인 백양사에 갔다. 이번 산행은 서울에서 온 오용한 친구, 베이커리 방인철 아우가 함께하는 산행이다. 오늘 같이하는 멤버는 나, 영순 동생, 영순 동생 친구, 이건설, 오용한, 방인철, 방인철의 누나, 방인철의 친구 내외까지 총 9명이다. 인철이 아우의 친구 내외는 집이 광주인데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러 백양사까지 온 것이다. 용한이 친구가 텐트를 준비해 왔고, 우리는 백양사를 지나 아래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 텐트를 쳤다. 옛 시절 야영을 하는 기분에 들떠 마냥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와 용한이 친구가 준비한 코펠과 버너로 라면을 끓이고, 인철이 아우가 준비한 육회를 안주로 마시는 소주 한잔은 이렇게 달 수가 없다. 새롭게 만나는 얼굴이지만 새롭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가을을 보내는 비는 단풍을 떨어뜨려 바닥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젖은 낙엽'이 된다. '젖은 낙엽'은 쓸어도 쓸리지 않고 달라붙어, 회사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때 끝까지 남아 견뎌 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역시 단풍은 내장산이다. 내장산 뒷산에 있는 백양사에도 단풍은 절경이다. 호수에 비친 마지막 단풍은 그야말로 멋진 한 폭의 그림이다. 우리는 내장산의 마지막 단풍을 눈에 담고 또 담아 붙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무상 스님의 작은 음악회에서 용한이 친구가 보여 준 '동공'이라는 춤사위는 뭔가를 표현한 작품이었고,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건설이 친구의 애수에 젖은 멋진 노래며 모두가 흥에 겨워 춘 막춤은 우리를 옛날 학창 시절로 데려가 주었다. 집에 도착해 용한이 친구가 밖에 나가 사 들고 온 막걸리 3병으로 우리 둘은 밤새는 줄 모르고 옛이야기로 아침을 맞았다.

## 전곡항



**2019. 12. 9.**

세계요트대회가 열렸던 전곡항. 이곳에서 낚싯배와 펜션을 운영하시는 원 사장님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사전 예고 없이 떠났다. 시흥고속도로를 연결하니 1시간 10분 거리다. 도착해 원 사장을 찾으니 배를 타고 멀리 나가 계신다. 하늘은 눈이라도 내릴 듯 흐리다. 요트가 정박한 항구에는 여느 항구에선 보기 힘든 다양한 하얀색 요트가 빼곡히 정렬해 있다. 점심을 넘긴 시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원 사장님이 소개해 준 어촌계가 직영하는 수산물 판매장에 노랑머리 횡집을 찾았다. 주인장 머리가 노랑머리다. 요즘 제철로 많이 잡힌다는 물메기로 매운탕을 주문하고 뒤편으로 안내받아 가니 횡집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다. 횡집에서는 횡감에 대한 계산만 하고 식당으로 옮기면 이곳에서 매운탕과 밑반찬에 대한 계산은 별도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리도 횡집 표시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 앉으면 된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지 깨끗하고 난방도 천장형 냉난방 복

합기가 가동되어 따뜻하다. 동해안에서 겨울철에 잡히는 곰치와 비슷한 물메기는 이곳에서 많이 잡힌다. 물메기는 겨울철 별미 중의 별미로 익은 김치에 물메기를 넣고 끓이면 시원한 물메기 매운탕으로 변신을 하는데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 입 안에 넣는 순간 녹아 버린다. 소주 한잔이 생각났지만 차를 운전해야 하니 참을 수밖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횃집에 들러 횃감을 구경하는데 명게와 우럭, 아귀를 작은 바구니에 담긴 것이 한 번 먹을 양이다. 가격을 물어보니 예상보다 저렴하다. 원 사장님 소개로 오신 분이라 싸게 주는 거란다. 상호가 특이하다. 다른 집은 ○○횃집, ○○수산이란 이름인데, 이 집만 특이하게 ‘노랑머리’다. 횃집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지만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을 상호다. 다소 쌀쌀한 날씨라 요트 구경만 하고 왔지만 물메기탕의 시원하고 독특한 겨울 별미를 맛보고, 시가가 50억 원이 되는 요트도 보고 나름 4~5시간의 알찬 여행이었다.

## 정운산악회 송년 산행



### 2019. 12. 16.

1년 산행을 마감하며 송년회를 겸하는 송년 산행을 정운산악회와 함께했다.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수암산. 이 산은 280미터의 낮은 산으로 덕산 온천 중 제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세심 온천에서 출발해 정상과 풍차를 지나 둔리 저수지로 하산하는 2시간 반 코스이다. 오늘 산행은

송탄에도 버스가 경유해서 송탄 지역에서 신입 회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 산악회만의 특색인 오락부장이 진행하는 난센스 퀴즈는 신입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웃음과 환호로 버스 안을 훈훈하게 했다. 49명 중 다리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영순 동생을 제외하고 48명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뒷동산 오르듯 부담 없이 여유롭게 즐기는 산행이 되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내포 신도시, 서북쪽으로 보이는 가야산,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서 보이는 전망은 높은 산 못지않게 시원하게 들어온다. 두한이 아우가 정상에서 챙겨 준 복분자주는 피로를 가시게 해주었고, 우리는 하산하면서 그간 못 나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참정이 느껴지는 순수한 아우다. 수덕사 입구 식당가에서 산채 정식으로 점심을 하고, 지하에 마련된 노래방에서 전원이 참여하는 노래와 춤은 열기를 고조시켜 모두가 일어서서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다. 나는 선곡에 신경을 썼다. 동생은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이 나의 음색이 맞는 노래라고 추천해 주었다. 그러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면 다소 빠르고 지르는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 선곡에서 제외하고 설운도의 〈춘자야〉, 강진의 〈연하의 남자〉, 윤쾌로의 〈춘천역에서〉 세 곡을 불렀다. 나의 예상대로 노래는 모든 회원들을 일어서서 무대 앞으로 나오게 하는 데 일조를 한 것 같다. 약간의 취기이다 그간 연습한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 같아 나를 만족이다. 우리는 3시간을 함께 어우러져 노래와 춤 그리고 분위기에 빠져,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2019. 12. 23.

아침부터 흐리다. 영하의 날씨를 아니니, 온다면 눈보다 비가 오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자던 두한이 아우와의 약속이 대호방조제 부근 삼길포항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삼길포항은 몇 해 전에 다녀온 곳으로 낯설지 않은 곳이다. 둘이서만 떠나기로 한 여행에 영순 동생과 친구도 함께해 4명의 동우회가 급조되었다. 아우의 차는 카니발로 뽑은 지 얼마 안 되어 실내에 새 차 냄새가 난다. 뒷자리 공간이 널찍한 게 맘에 든다. 앞자리만 타다가 뒷자리에 앉으니 새로운 기분이다. 뒷자리에서도 시야가 넓게 보이는 게 기분마저 탁 튀어진다. 우리는 가는 길에 한진포구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썰렁하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항구의 분위기가 아니다. 도착한 삼길포항에는 넓은 주차장에 빈틈없이 차들로 빼곡하다. 바다 구경을 하면서, 배 위에서 횡감을 손질해 주는 곳으로 가서 우럭과 간재미를 회로 뜨고 매운탕 거리를 챙겨 근처의 식당으로 가면 1인당 6천 원에 매운탕과 밥까지 먹을 수 있게 해 준다. 2층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싱싱한 우럭과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친 간재미 회무침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 주었다. 거기에 음주 운전에서 해방된 나는 소주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 좋았다. 모두가 아우 덕분이다. 우리는 오는 길에 삼교호에 들어서 주변 산책도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서해에 띄워 보냈다. 평택에 도착해 노래방에서 2시간 정도 여흥을 즐기고 동생이 준비한 저녁을 김장 김치의 빼어난 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2020. 1. 6.

굴다리 산악회. 왜 굴다리 산악회란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두한이 아우와 같이 일하는 형, 그리고 친구 신윤길, 영순 동생 다섯이 함께하기로 했다. 겨울에는 뭐니 뭐니 해도 따뜻한 국물이 최고다. 나는 코펠, 버너와 신라면 3봉지를 준비했다. 마이산은 10여 년 전에 한 번 다녀간 산이다. 주차장에서 바라보이는 마이산은 부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느낌으로 전해 온다. 전에 왔을 때는 남부 주차장에서 상점가를 지나 탐사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북부 주차장에서 오른다. 주차장에서 500여 미터를 지나면 1.9km 연인의 길이 나오고 은수사 천왕문에 닿는다. 우리는 최근에 생긴 전기 자동차를 타기로 했다. 1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는 진안군청에 대한 불만이 많다. 자신이 군청에 제안을 하여 이 사업을 아들과 같이 차량 4대를 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출발지를 주차장 근처인 밑으로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고객들도 편리하고, 자신도 수입이 늘 텐데 500미터나 올라와 있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수의 친인척에게 이 사업을 해 주려던 군수가 비리로 감옥을 가고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상황도 말한다. 나는 이런 소릴 들으면서, 어디나 이권이 있는 곳에는 각종 의혹과 비리투성이가 아닌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찌했든 경쟁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은 이제 욕심이 더 생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

는 사이 우리는 전기 자동차 도착지에 도착했다. 은수사 천왕문을 둘러  
탐사로 이어지는 길에서 보는 마이산 두 봉우리는 장관이다 레미콘으로  
부어서 만든 인조의 산 느낌이다. 말의 귀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마이산. 부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양. 거대한 돌산은 오랜 시간을  
견뎌 오면서 풍화 작용에 의해 표면이 일부 떨어져 나가 풍화혈을 만들  
고 있다. 적당한 걷기로 시장기가 느낄 즈음 하산해 공원의 햇볕이 따뜻  
하게 내리는 곳에 자리해 라면 국물로 소주 한잔을 즐겼다. 모두가 만족  
해한다.

## 승두천과 부락산 걷기



**2020. 1. 13.**

지난주 연휴는 걷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  
어서 5분 거리에 승두천이 흐른다. 지난여름부터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  
를 해서 이곳이 어떻게 바뀔까 내심 기대를 하며 기다렸던 곳이다. 토  
요일 아침 집을 나서 승두천에 닿았다. 하천을 정비하면서 옆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돌과 시멘트로 예쁘게 만들고 쉼터로 팔각정과 운동기구  
도 만들어 놓아 날씨가 풀리면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려고 몰려  
들 것 같다. 내가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인데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한 사  
람도 안 보인다. 정비한 곳을 걷고 나서 북동쪽으로 예전부터 하천변을  
시멘트 포장을 하여 걷기 좋게 만든 길을 걸어 나의 텃밭까지 둘러보고

집에 오니 1시간 반이 걸렸다. 새로운 걷기 코스를 찾은 것이다. 이 코스는 자동차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도 피해 갈 수 있어 만족스럽다. 토요일 오후 신윤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일요일 우리 산악회에서 송탄 부락산 등산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다. 우리 산악회는 안승호 고문이 예약까지 한 것을 약속을 못 지켜 짐을 앓고 있는 산악회다. 이번 기회에 안 고문도 뵈 겸 참가하기로 했다. 라온중·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모여 부락산을 거쳐 덕암산까지 다녀오는 코스다. 25명 정도의 회원이 출발해 덕암산 정상에는 17명이 올랐다. 3시간 반 정도 잘 다져진 솔잎이 쌓인 흙길을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다 쉼터에서 재무님이 만들어 왔다는 매생이 전과 족발로 소주 한잔을 했다. 그런데 안주와 소주의 궁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산행하면서 먹은 먹거리치고는 최고의 점수를 줄 만했다. 하산해서 보리밥집에서 오리백숙과 죽으로 산행에서 빼앗긴 기력을 보충하고 산행을 마무리했다. 회원들 모두 표정이 밝았다. 2월 2일에는 25인승 버스로 서해안을 같이 가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런 모임이 계속 잘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지원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윤길 친구가 버스를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인 것 같다. 친구가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3.

## 텃밭을 가꾸는 農心





**2019. 5. 20.**

아침 일찍 뒷밭에 나가 고추와 가지, 방울토마토에 지주대 세우는 작업을 했다. 어제 온 비로 지주대 심기가 쉽지만, 비의 양이 적어, 깊이 까지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겉 부분에만 물기가 있다. 그래도 말라 가던 농작물에게는 완전한 해갈까지는 안 되었지만 단비였다. 지주대를 세우고, 묶어 줄 끈이 보관된 밭 옆에 있는 명일건업 창고를 갔는데 철문이 잠겨 있다. 명일건업은 삼성물산 아파트 공사의 골조 부분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회사이다. 이곳에 가설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작업장이 있어, 작업장 안에 컨테이너 하나를 나의 농기구 창고로 쓰고 있는데, 입구 철문이 잠겨 있는 것이다. 요즘 일이 많지 않아 하루 쉬는 것 같다. 일을 마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다. 나도 전에는 일을 미루는 습관이 간혹 있었는데, 뒷밭 농사를 하면서부터 미루는 습관이 저절로 고쳐진 것 같다. 오늘 점심은 이건설 친구와 약속되어 있다. 이 친구는 3년 전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속 깊은 이야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노래를 좋아하고, 빼어나게 잘해서 내가 부러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다. 난 음치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평택 시내 외곽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아내와 딸과 같이하면서 근처에 천 평 정도의 밭이 있어 밭농사도 짓고 있는 매우 부지런한 친구다. 내가 아파트 관

리소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소릴 듣고, 축하로 밥을 같이하자 해서 이루어진 약속이다. 우리는 친구 발 근처의 한우 전문 식당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정기 휴일이다. 시내에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라는 식당으로 차를 돌리는데, 친구가 “친구야 식당에 전화 안 하나?” 하고 묻는다. 나는 식당을 가게 되면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가 알기에 하는 소리다. 그것도 예약 시간을 분 단위로 한다. 예를 들면 12시 13분 이런 식이다. 난 내가 있는 곳에서 10분이 걸리는데, 지금 12시 3분이라면 12시 13분으로 예약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0분 내로 간다거나, 10분 단위로 예약을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특이하게 느껴진 것 같다. 이러니 식당에서는 내가 도착하면 사장님들은 시계를 본다. 내가 예약한 시간이 맞나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간이 맞으니, 나를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나는 공무원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일을 많이 해 왔고,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으로 습관이 된 것 같다.

상추가 천금채라는 것을 아시나요?



**2019. 5. 23.**

감기약 기운에 취해 온몸이 매 맞은 것처럼 아프지만, 콧물 흐름은 많

이 좋아졌다. 누워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텃밭으로 나섰다. 앞밭에서 머위 잎, 상추, 쑥갓, 부추를 채취해 뒷밭으로 가 지난 번 지주대만 세우고 줄을 매지 못한 고추와 가지, 방울토마토에 끈으로 줄을 매는 작업을 했다. 뒷밭에서도 겨자채와 케일, 요크, 부추를 뜯었더니 작은 박스로 한 박스가 된다. 여기서 상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본다. 상추는 ‘천금채’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옛날에 씨앗이 귀해서 천금을 주고 상추씨를 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추는 벌레가 접근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농약을 칠 필요가 없이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채소이다. 상추를 뜯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황 성분으로 유황은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상추에는 유황 성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햇빛이 비닐에 차단되기 때문이다. 상추가 왜 상추인가? 그것은 상추가 인삼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서 상추라고 한다. 인삼보다 더 효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상추를 대표적인 자연 식품으로 만드신 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화병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상추를 먹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라고 내려 주신 사랑의 특별한 보약이다. 나는 시장에 모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청상추, 꽃상추, 보라색 상추 세 종류를 심어 노지에서 햇빛을 듬뿍 받고 자란 야채를 일찍 식탁에 올리는 걸 4년 전부터 해 오고 있다. 어느 해는 너무 일찍 심어 냉해를 입기도 했고, 올해는 고라니가 상추 50포기 중 20포기를 뜯어 먹거나 파헤쳐 놓았다. 그래도 30포기는 살아 있어 나와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상추의 성장이 느린 편이다.





2019. 6. 23.

텃밭에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나 내 새끼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다. 밭에 도착한 시간이 6시 10분, 아침 날씨가 일하기 딱 좋은 날씨다. 열무를 제때 수확하지 못해 꽃이 피었는데, 뽑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 땅의 영양분을 뽑아 가니 쓸모없게 된 열무는 바로 뽑아서 퇴비로 만들어 쓰는 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도로변이라 지나는 사람들이 꽃구경 좀 할 수 있게 놔두기로 했다. 오늘 보니, 씨앗이 달렸다. 그대로 놔뒀다 씨앗을 받아 다음에 쓸 수도 있는데, 씨앗까지는 받을 수 없고, 꽃이 지면 뽑아서 정리를 해야겠다. 머위 잎, 케일, 상추 3종류, 쑥갓, 부추, 근대, 아욱, 텃밭에서 고추, 호박, 열갈이, 요크, 겨자채 등을 수확하고, 마늘을 보니 잎과 줄기가 노랑게 생명을 다한 것 같이 보여 뽑아 보니, 제법 알이 들었다. 다음 주에는 마늘을 수확해야겠다. 마늘은 영순이 동생의 부탁으로 처음 심어 봤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싹이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 뿌리를 필요로 하는 작물은 밑거름을 완숙한 퇴비로 충분히 해 줘야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오랜만에 많은 양을 수확하니, 담을 박스가 부족해서 근처 서안성 하나로마트로 박스를 구하러 갔다.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포장대 옆에 박스를 규격별로 준비해 두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박스가 몇 개밖에 없더니, 오늘 가니 1개도 없다. 주변을 돌며 도로변에 내다 버린 박스를 주워서 4개를 준비했다. 오이와 참외, 수박을 모종으로 심었는데,

가뭄에 약해 모두 죽고 오이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 자리에 얼갈이를 뿌린 것이 제법 자라서 김치나 된장국을 끓이면 맛이 있을 것 같아 반은 남겨 두고 뽑는데, 농약을 안 쳐서 그런지 벌레가 많이 먹어 보기에는 상품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 농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상품이니까 말이다.

## 풀밭에서 보석을 캐다



**2019. 6. 29.**

오늘은 마늘을 캐어야 한다. 어젯밤에 비가 내려 밖을 보니 많이 오지 않아서 마늘 캐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밭에 가 보니 풀이 마늘을 뒤덮어 마늘을 캐는 게 아니라 풀을 뽑고 마늘은 보석 찾듯이 캐어야 할 판이다. 농사는 잠시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밭 전체를 풀밭으로 만들기 십상이다.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 서울로 교육을 다녀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쉬는 날에 여행을 다녀와서 풀이 크게 자라 뽑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아침을 안 먹고 3시간 반을 일하다 보니 배도 고프고, 집에서 식사하려던 생각이 바뀌었다. 맹순이네 식당에서 돼지국밥으로 소주 한잔 곁들이며 늦은 아침을 하는데, 식사 시간이 지난 때라 손님이 없어 주인장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왜 ‘맹순이’란 이름을 지었냐고 물었다. 언니가 서울에서 맹순이 간판으로 순대 국밥집을 15년 이상 했고, 동생인 자기가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배워서 이곳에 기존 식당을 인수해서 시작했는데, 먼저 하던 분이 식당 이미지를 흐려 놔서 고생을 많이 했고, 요즘 회사에 배달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다. 내가 이 주변에서 한식 뷔페를 4년 반 하면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니, 식당을 운영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마워한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주변 공장과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다.

## 왜 세 알?



**2019. 6. 30.**

눈을 뜨니 6시다. 바로 밭으로 향했다. 열갈이 남은 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동부를 심었다. 동부 씨앗을 얻어 와 내게 건네주면서 동생이 한 말, 한 구렁이에 세 알만 심으란다. 왜 세 알이냐고 물으니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썩고, 하나는 싹이 터야 하니 세 알이 필요하단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낸 말인데 일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면 봉지에 발아율이 표시되어 있다. 보통 70~75%이다. 종묘 기술이 발전하여 발아율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발아율이 낮았을 것이다. 오래전에 방풍나물 씨앗을 심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방풍나물은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나물로 즐겨 먹는 반찬이다. 5월 초에 10시간을 물에 불려 심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자리에 대파 모종을 심기로 했다. 올 초 대파 모종을 앞밭에 심었는데, 잘못 심은 바

람에 많이 죽고 조금만 살아 있다. 대파는 씨앗으로 심어도 되는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씩 뽑아서 이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난번 모종을 심을 때, 모종 한 구멍에 4~5개의 가느다란 대파가 있었다. 하나씩 뽑아서 심어야 하는 것을 통째로 심었더니 4~5개 중 한 개만 살고 나머지는 녹아 버렸다. 이번에는 하나씩 뽑아서 골에다 적당한 간격으로 뉘어 놓고 퇴비를 그 위에 덮고 흙을 덮어 정성껏 심었다. 대파의 경우 생명력이 강해서 겨울을 견뎌 내고 이른 봄에 뽑아 먹을 수 있는 작물이다.

## 知足常樂



**2019. 7. 6.**

아침 일찍 밭에 들렀다. 비가 안 와서 생기는 덜하지만 아직까진 잘 견디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 심은 대파는 말라서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도 생명력이 강해서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추와 호박, 부추, 근대, 상추, 머위 잎, 치커리, 요크를 채취해 나오면서 맹순이네 식당에 상추와 치커리를 좀 가져다주었다. 내가 식당을 해 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 식재료 값은 뛰는데, 식대는 올리지 못하니 사실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손님이 많다면, 고정비를 흡수할 수 있어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요즘 들어 식당은 늘고 더위에 손님은 줄어드니 가장 힘든 시기이다. 내가 가져다준 것이 양이 적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식 뷔페에는 내놓을 수 있는 식재료이다. 철학자 강신주 교수의 책을 펼쳐서 읽는데 졸음이 온다. 소파에서 편한 대로 누웠다. 깨어 보니 2시간 숙면을 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중국의 선사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 오늘 아침은 건너뛰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생으로부터 메신저가 왔다.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하잔다. 나는 전에 광고 현수막에서 봐 둔 ‘뱃놈 숯불갈비’가 생각나 그 곳을 찾아갔다. 벽면에 붙여진 글 중에 몇 개를 소개할까 한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發技富錢(재주를 펼쳐 커다란 부를 이룬다) 据緊安代(편안함 대신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을 택한다) 足加示悟(만족을 더하여 깨달음이 보인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미덕). 나는 이 글 중에 마지막 ‘足加示悟’가 와닿는다. 내가 좋아하는 글이 ‘知足常樂’이다.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 영정비공은 없다



**2019. 7. 18.**

태풍이 북상 중이라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가 제법 내릴 것 같다. 오늘은 퇴근하면서 밭을 돌아보아야겠다. 고추와 가지, 방울토마토를 지지대에 끈으로 걸속해 주어야 비바람 피해를 피해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지난번에 보니 밭에 풀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비가 지나가면 풀

은 많이 자라 밭을 덮을 것 같다. 큰 풀만이라도 이번에 뽑아 주어야 한다. 경비직에 근무할 때는 격일로 쉬기 때문에 밭을 자주 들러 볼 시간이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되고부터는 주말에만 밭을 찾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모든 일이 욕심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열정이 더해져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텃밭을 시작할 때,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고 앞마당에 반은 잔디를 심고, 반(50평)은 텃밭을 만드는 젊은 부부를 지켜본 적이 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심더니, 풀 관리를 못 해서 텃밭 전체가 무성한 풀밭이 되었다. 나중에는 예초기로 농작물과 풀을 모두 베어 버리고 다음 해에는 한구석에 호박과 방울토마토만 조금 심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꿈꾼다. 겉으로 보기에 주변 경관이 보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잔디를 심고, 텃밭에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가꾸는 풍경은 그림 같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꾸는 이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나는 ‘영정비공은 없다’를 숙어처럼 외운다. 이 숙어를 풀어 쓴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다. 그렇다. 우리는 겉만 보고 그것이 모든 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2019. 7. 19.

여름휴가 4일 중 하루를 쓰기로 했다. 뒷밭으로 향했다. 지난번 마늘 밭 잡초를 말끔히 뽑아냈는데, 그 옆의 고추와 가지를 심은 곳에 풀이 제법 자라 무성하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고추와 가지를 노끈으로 지주대에 결속을 보강해 주고, 방울토마토와 고추, 가지, 호박을 따고, 풀 뽑기를 하는데 습도가 높아 땀이 흐르고 모기와 물것들이 달려든다. 에프킬라를 준비한다는 것을 감박했다. 이것을 몸에 뿌리고 하면 얼마간 물것들이 달려들지 않아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밭일이 대부분 쭉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 3~4시간 일을 마치고 일어서면 무릎이 아파 잠시 무릎을 달래 주어야 한다. 나는 밭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두부김치를 안주로 시원한 막걸리 한잔을 마시는 게 낙 중의 낙이다. 막걸리는 어려서부터 심부름으로 논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날라다 주면서 중간에 몰래 맛을 본 추억이 있는 술이다. 일을 마치고 집에서 한숨을 자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김철주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남편과 저녁 약속한 것을 내가 잊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남편 모르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저기가 어디냐고 하니 평택 시내란다. 이 친구는 아산 인주에다 농가 주택을 짓고 사는 친구인데 부인과 같이 내 약속을 지키려고 나왔다는 것이다.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친구와 16일에 전화하면서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금요일이 좋겠다고 했다. 그때 전화해서 저녁이나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번 주 금요일

로 알아들은 것이다. 나는 약속을 하면 바로 데스크 달력에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어찌랴. 부부가 먼 길을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부랴부랴 시내를 나가니 장인족발에서 맥주와 소주로 적당히 취기가 올라 있다. 성진이 노래방으로 옮겨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내겐 황당한 사건이다. 누가 실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산 인주에서 나올 때 전화를 한 통이라도 했으면 될 것이었다. 자기 기억만 믿고 달려온 친구와 오해는 풀었지만 서로의 착오가 있었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 사전에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 마늘 수확



**2019. 7. 21.**

3일의 연휴가 길게 느껴진다. 공무원과 회사 생활을 할 때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지 못했었다. 휴가를 받아 놓고 나면 일이 생겨 휴가를 미루거나 반납했다. 오늘 일찍 마늘을 캐고 나서 다른 일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 지난 가을에 심고, 겨울에 얼까 봐 보온재를 덮어 주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많이 죽었다. 풀밭에서 보물 캐듯 건진 마늘은 종자보다 조금 더 수확한 것 같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농부는 망하는 것이다. 농사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많이 죽은 원인은 토양 살충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을 때 밭에 물기



가 많아 겨울에 물이 얼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종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마둔 저수지 부근에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 이종복 친구의 말로는 심을 때 종자에서 싹이 나온 것을 심어야 죽지 않고 잘 살아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싹이 나온 것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올가을 마늘을 심을 때에는 선배 농부에게 자문을 받아 심어야겠다. 먼저 캔 마늘을 냉동실에 보관하려고 꺼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손도 아려 오고 힘이 든다. 그러니 이런 일을 농촌의 어머니들은 바쁜 속에서도 해 오셨던 것이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 봐야 그 일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마늘은 올해 김장에 쓰일 것이다. 양은 적지만 마늘은 색깔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흙 속에서 진주를 캐 놓은 것과 같다.

## 김장 채소밭 만들기



**2019. 8. 3.**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장 밭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7시가 지나서야 밭에 도착했다. 4~50cm 정도 자란 풀을 베어 내고, 복합 비료와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농후 퇴비(계분, 우분, 돈분을 톱밥과 섞어 발효시킨 퇴비)를 펼치고 삽으로 파 얹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은 2주 전에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번에 복합비료는 봉사가 들어간 것을 샀는데, 봉사는 배추나 무의 뿌리와 잎의 경계 부분이 무르는 것을 막아 준다고 한다. 토양에 봉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란단.

덥고 습도가 있어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장난이 아니다. 요즘은 힘쓰는 일을 기계가 다 해결해 준다. 오늘 일도 예초기와 경운기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나의 텃밭은 규모도 작고 위치에도 문제가 있어 농기계를 쓸 수가 없으니 옛날 방식인 몸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한 일이 5시간이 지난 12시가 넘어 끝이 났다. 부추를 수확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막걸리와 두부를 샀다.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고 나면 시원한 막걸리가 생각난다. 어렸을 때, 논으로 막걸리를 내다 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어른들 몰래 맛을 봤던 막걸리. 그 맛이 추억의 맛으로 각인된 것 같다. 예전에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힘으로 일하셨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집에 도착해 쌀을 씻어 밥이 될 때까지 사워를 하고 나니 몸이 날아갈 것 같다. 평소엔 켜지 않던 에어컨도 켜고, 두부를 데쳐서 김치와 한잔을 하니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다.

## 무농약 야채와 방울토마토



### 2019. 8. 4.

집에서 책을 보다 보니 졸음이 온다. 이대로 누우면 잠에 빠져들 것 같다. 집을 나서 밭으로 향했다. 뒷밭에는 고추, 가지, 호박, 방울토마토와 얼마 전에 심은 동부가 제법 자라고, 청상추와 요크, 심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아 죽은 줄 알았던 대파가 자라고 있다. 어제 앞밭 만드는 일을 마치고 뒷밭을 들르려고 했는데 하도 땀을 많이 흘려 그냥 가 버렸다.

뒷밭을 가려면 통로를 지나야 하는데 이 통로를 지난번 내가 풀을 베어 낸 후 한참 지나고 보니 풀이 제법 크게 자라 풀을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모기와 물것들이 달려들지 않게 에프킬라를 몸에 뿌리고 들어갔다. 상추와 요크를 따고, 방울토마토를 따는데 너무 많이 매달려 가지가 찢어진 것도 있다. 방울토마토를 심은 이래 가장 많은 수확을 했다. 고추도 청양고추, 일반고추, 오이고추 세 종류를 심었는데, 올해는 농약을 일체 뿌리지 않고 푸른 고추를 그때그때 따서 먹고 있다. 고추를 붉게 익도록 키우려면 농약을 안 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꽃이 필 때 벌레가 생겨 고추에 구멍이 나고 얼마 지나면 저절로 떨어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약을 주어야 한다. 올해 농사는 비료와 농약 없이 퇴비만으로 지어서 그런지 방울토마토도 예년보다 맛이 있는 것 같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채소도 지린 맛이 느껴지고 채소 잎도 단단하지 못하고 여리고 연하다. 집에 도착해 상추부터 씻기 시작했다. 씻어서 비닐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두면 며칠간은 싱싱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 아침 겸 점심을 하면서 덕산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나니 졸음이 온다.

## 무 씨앗 파종



**2019. 8. 14.**

아침 5시 40분에 밭에 도착했다. 지난번 풀을 베고 퇴비와 비료를 뿌리고, 삽으로 파서 얹어 놓은 밭에는 고랑에 풀이 보인다. 흙에 적당히

물기가 있어 부스러트리는 데 힘이 들지 않고 일하기가 편하다. 앞밭에 무를 한 바닥 파종하고, 뒷밭 퇴비 기운이 있는 곳에 한 바닥을 심기로 했다. 잘 정리된 밭은 언제 풀밭이었나 싶게 고운 속살을 들어 내보인다. 이건설 친구 말대로 풀밭을 옥토로 바꾼 것이다. 나는 밭일을 할 때,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하는 습관이 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느끼는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마음이 정화되는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일을 마치면 손에 작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깨끗한 도화지 위에 연필로 데생을 하듯 호미로 골을 판다. 골에 무 씨앗을 한 줄로 뿌려 놓으면, 무씨 표면이 파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기술이다. 한곳에 모이지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 뿌려 주어야 자라면서 쏙아 줄 때도 옆에 있는 무를 건드리지 않고 뽑아내기가 쉽다. 5년을 퇴비를 하며 농사를 지은 땅이라 처음에는 역세던 흙이 퇴비의 영향으로 많이 부드러워졌다. 앞밭 작업을 마치고 뒷밭으로 향했다. 뒷밭은 밭 옆에다 우사에서 나온 퇴비를 한 차 받아 놓고 퇴비를 자주 해서 흙에 퇴비 기운이 많이 있다. 복합비료와 토양 살충제만 뿌리고, 파서 엷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풀이 많이 자라 있어 우선 풀부터 베어 내야 한다. 에프킬라를 온몸에 뿌리고 풀을 베어 나가는데 그래도 물것들이 어느새 양팔을 공격해 살이 부르터 오르고 가렵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나도 처음에는 부르튼 팔을 보며 엄살을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종의 훈장처럼 받아들인다. 뒷밭에서 2시간 이상 일을 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눈에 땀이 들어가 고역스럽다.



**2019. 8. 20.**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다. 배추 모종을 오늘 심어 놓아야 한다. 심은 후 비가 와 주면 활착률이 100%이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맞춰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특히, 모종으로 심는 것은 심은 후 비가 안 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시 물을 줄 수 있다면 일기예보에 신경을 덜 써도 되겠지만 나와 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옛날에는 라디오에 의존했고, 일기예보도 적중률이 떨어지다 보니, 예보를 믿고 농사일을 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일기예보의 적중률이 높아, 예전같이 낭패를 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오전에 사무실 일을 마치고, 오후 휴가를 쓰기로 했다. 집에 와 점심을 먹고 밖의 날씨를 보니 아직 따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3시는 넘어야 열기가 식어지겠다. 집안일을 좀 하고, 책도 보면서 3시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공도 시내에 있는 종묘와 농약을 취급하는 가게를 먼저 가 보기로 했다. 내가 찾는 불암 3호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차에서 가게 앞에 펼쳐놓은 배추 모종을 보니, 물을 주지 않아 잎이 많이 시들어 있다. 이곳은 안 되겠다. 차를 돌려 안성 시내 방향으로 가는 편에 농약과 종묘, 철물을 같이 하는 가게를 들렀다. 출입문이 잠기고, 배달 중 팻말과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 전화를 하니 10분 정도 지나면 도착한단다. 배추 모종을 보니 종류도 세 종류고 물을 주어 상태가 좋다. 80포기 정도면 될

것 같아 달라 하니 한 판이 100포기인데 잘라서는 안 판다는 것이다. 평택 종묘상에서는 필요한 양만큼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주인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다. 가격을 물어보니 5천 원, 모종 하나에 5십 원인 셈이다. 한 판 100포기를 사 가지고 앞밭에 도착해 보니 며칠 사이에 고랑에 풀이 보인다. 우선 풀을 정리하고, 지난번 삽으로 파 얹어 놓았던 흙을 잘게 부스러트려 고르는 작업을 했다. 아직도 열기는 덜 식어 땀이 제법 흘러내린다. 수건을 챙겨 왔어야 하는데 깜빡했다. 땀이 눈으로 들어가니 씻어 내지도 못하고, 급한 대로 옷옷으로 닦아 가며 하려니 진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하는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 이런 낭패를 겪는 것이다. 어렵게 두 바닥에 배추 모종 100포기 심기를 끝냈다.

## 쪽파와 대파 심기



**2019. 8. 24.**

앞밭에 쪽파와 대파를 심고, 무를 솥아 주고, 북을 돌아 주었다.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쪽파 씨와 대파 모종을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해 종묘상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세탁기를 돌리고, 집 안 정리를 하면서 9시까지 기다리려니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는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일은 아침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해야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일

의 능률도 오른다. 8시 반에 집을 나서 공도 시내 종묘상에 들리니, 이곳에는 쪽파 씨가 없다. 차를 몰아 안성 장터로 갔다. 쪽파 씨 한 바구니를 5천 원에 사서 나오는데 건너편에 대파 모종이 보인다. 전에 대파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실패를 했었다. 대파는 하나의 포트에 5~6개의 파가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심은 것이다. 결과는 대파가 녹아서 많이 죽어 버렸다. 그 당시, 시간에 쫓겨 하나하나 쪼개서 심어야 하는 것을 포트 통째로 심은 것이다. 뒷밭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대파가 얼마 안 되어, 앞밭에다 더 심을 요량으로, 한 판을 하기엔 양이 많은 것 같아 반 판을 4천 원에 샀다. 밭에 도착하여 우선 쪽파 손질을 했다. 가위로 뿌리의 잔털을 자르고, 윗부분도 끝을 잘라 주는 작업이다. 그래야 쪽파가 싹이 잘 나온단다. 쪽파를 한 바닥 심고, 대파를 하나하나 쪼개서 거름기가 많은 곳에 호미로 깊게 골을 파고 북쪽 방향으로 뉘어서 심었다. 그래야 햇빛을 많이 보아 잘 자란다. 언젠가 친구의 밭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이 친구는 농사를 처음 지어 보는 초보인데, 대파를 배추 모종 심듯 세워서 심어 놓은 것이다. 웃음이 나는 것을 참았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 줬던 게 생각난다. 대파까지 심고 나오는데, 숙아 준 무에 북을 쥐야 할 것 같다. 무 씨앗을 뿌리다 보면 많이 뿌려지게 된다. 그러면 서로 엉켜서 실같이 줄기가 만들어지고, 숙을 때도 옆의 무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파종할 때, 간격을 두고 적당량을 뿌려 줘야 숙아 낼 때도 일하기가 쉽고, 건실한 무를 기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시가 다 되어 일을 마쳤다. 이제 8월 말경에 총각무와 청갯, 돌산갯을 심으면 김장채소 심는 일은 끝이 난다. 오늘 심은 쪽파와 대파가 잘 자라 주길

바라면서 밭을 나오는데, 아카시아 나뭇가지가 밭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인다. 낮으로 가지를 베어 주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밭으로 뺀으면 그늘을 만들어 작물이 자라는 데 지장을 준다.

## 태풍(링링)의 피해



### 2019. 9. 7.

아침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힘겹게 버티고 있다. 나뭇잎과 가지가 꺾어져 도로 위에 덩굴고 뿌리가 뽑혀 인도를 가로막은 나무를 제거하느라 전기톱 소리가 요란하다. 텃밭이 걱정되어 나섰다. 앞밭은 주변 나뭇잎이 날려 들어와 배추와 무 잎을 덮은 것 말고는 피해가 없다. 텃밭에는 물 빠짐에 문제가 있어, 무가 잎이 처지고 흙에 묻혀 있다. 늦게 심은 청무와 알타리는 숙아 줄 때가 되었다. 밭은 질고, 신발에 흙은 달라붙고, 조심조심 숙는 일을 한다. 호미로 골을 파고 씨앗을 뿌릴 때, 기술이 필요하다. 농사를 오래 한 분들은 적당량의 씨앗을 뿌려, 숙는 일이 힘들지 않지만 나와 같이 초보자는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되니 씨앗들이 촘촘히 올라와, 숙을 때 남겨 놓을 싹을 건드리지 않게 숙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신경을 써야 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튼실한 싹도 뽑아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숙아 낸 싹은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나물로 먹으면 아삭한 게 식감도 좋다. 가지, 호박을 따고, 바람으로 꺾어진 고추 가지에 달린 고추를 따다. 오이



고추는 청고추로 따다 먹고, 일반 고추와 청양고추는 붉은 고추를 만들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는 고추에 약을 치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큰 병이 없다. 뉴스에 과수원, 비닐하우스, 익어 가는 벼 피해가 속속 보도된다. 내 텃밭은 이 정도면 태풍의 피해는 피해 간 것이다.

## 배추 잎을 갇아 먹는 청벌레



**2019. 9. 19.**

출근길에 텃밭에 들러 배추의 잎 상태를 확인하는데 잎이 구멍이 나고, 겉잎이 많이 늘어져 보인다. 잎을 들춰 가며 깊이 보니 청벌레가 보인다. 범인은 청벌레로 밝혀졌으니, 이놈들을 퇴치하는 일만 남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해야겠다. 20L 분무기 통에 작은 분말 1포를 타서 뿌려 주었다. 농약사 사장님은 2~3번 뿌려 주어야 한다고 한다. 분무기 1통으로 2번은 사용할 수 있겠다. 모래 한 번 더 주면 될 것 같다. 가급적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려 해도, 이렇게 잎에 구멍이 나는 것을 보면 어쩔 수가 없다. 청벌레만 퇴치하면, 배추는 큰 병 없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결구가 빨라질 것이다. 내가 심은 품종은 불암 3호로 김치를 담그면 시원하고 맛이 있다. 지난해 김장도 성공했는데, 올해도 성공 예감이다.



**2019. 9. 20.**

점심시간에 텃밭에 들렀다. 배추의 청벌레는 박멸된 것 같다. 그래도 한 번 더 줄 농약이 남아 있어 배춧잎을 사이사이 살펴 가며 정성을 들여 분무했다.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다. 늦게 뿌린 돌산갓과 청갓에 비료를 주고, 텃밭에 가 보니 가지가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구부러진 기형이다. 고추와 가지에 일체 농약을 안 쳤더니, 잎을 갹아 먹고 병충해의 피해가 눈에 띈다. 가지의 기형도 약을 안 쳤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늦게 심은 청무와 총각무에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 주는데 모기와 물것들의 공격을 받아 양팔에 훈장이 여러 개 만 들어졌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나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기세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특히 농사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2019. 10. 3.**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까지 비바람 예보가 있다. 어젯밤 잠을 설쳐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텃밭은 물 빠짐이 느려서 오후에나 들러 봐야

졌다. 앞밭에 배추와 무, 알타리, 갯, 쪽파를 찍은 사진을 건설이 친구에게 보냈다. 답장이 왔다. 부지런하다면서 자기는 비도 오고 해서 아직 침대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다 한다. 참 부지런한 친구인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어떨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매우 불안해질 것이다. 주위에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해 주지만, 모든 것은 당사자인 본인의 몫이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 암의 치유율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잘못된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되니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 본다. 오후에 뒷밭에 들러 가을 상추와 청양고추, 오이고추, 붉은 고추를 따고 동부도 익은 것을 채취했다.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엔 충분했다. 고추의 경우, 일반 고추 10주, 청양고추 10주, 오이고추 10주를 심어 농약 한 번 안 하고 고추를 따 먹고 있다. 그러니 붉은 고추가 되기까지 병해충으로 떨어지는 게 제법 된다. 고추는 농약을 하지 않고는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작물이다. 오늘 수확한 것들을 사진 찍어 용한이 친구에게 보냈다. ‘와, 입맛 짹짹, 무공해 채소’라고 답을 보냈다. 가까이 있으면 나눠 먹으면 좋으려만 아쉽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적게 심어, 무농약으로 키운 가을 상추로 아프리카 열병으로 값이 오른 금겹살을 같이 먹으니 더 맛이 있는 것 같다.



2019. 10. 9.

오늘은 한글날 휴무이다. 일찍 밭으로 달려갔다. 요즘 배추에 뿌리 부분이 물러지는 병이 전국적으로 번져 배추의 작황이 안 좋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배추의 뿌리 부분을 확인해 봤다. 아직까진 이상이 없다. 무도 뿌리가 드러나 보이는 게 아직까진 튼실하게 잘 자라 주고 있다. 쪽파도 많이 컸다. 뒷밭에 고추는 농약을 일체 치지 않았더니 붉은 고추가 되기 전에 구멍이 생기고 병이 들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최대한 수확하고, 깨끗한 고춧잎을 따야겠다. 지난번 태풍과 비로 피해를 본 뒷밭의 무와 알타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동부도 익는 대로 바로바로 수확해야겠고 그에 따른 할 일이 많다. 부추도 제법 자랐으니 베어야 한다. 가지는 이제 뽑아 버리고 그 자리에 월동 시금치를 심어야겠다. 앞밭의 배추와 무, 쪽파를 사진 찍어 친구에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바로 밭으로 가 봐야겠다’라며 ‘와, 이쁜 놈들. 이렇게 무럭무럭 컸다니 젠장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 튼실히 컸네. 아기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노?’ 한다. 뒷밭 하나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줄이야... 작은 공간이지만 내겐 정성과 사랑이 늘 함께 하는 치유의 땅이다. 아침 식사하고 고추와 고춧잎을 따야겠다. 고춧잎을 장에 조물조물 무쳐도 먹고, 간장에 재워 먹어도 맛있는 반찬이 되고, 고추는 삭혀서 두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가 기대된다.



**2019. 10. 9.**

뒷밭에 고추를 일반 고추 10포기, 청양고추 10포기, 오이고추 10포기를 심었다. 푸른 고추를 따 먹을 요량으로 농약을 일체 치지 않았다. 일반 고추의 경우, 제법 고추가 실하게 되어 붉은 고추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푸른 고추를 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엿그제 보니 고추에 구멍이 생기고, 말라 버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추 모두를 버릴 것 같다. 붉은 고추를 기대했다면 처음부터 농약을 주었어야 한다. 일단 일반 고추는 전부 따기로 했다. 고추를 따면서 고춧잎도 같이 따다. 청양고추와 오이고추는 병이 덜한 것 같아 계속 더 따 먹어도 될 듯하다. 일반 고추와 청양고추, 오이고추까지 따고 보니 양이 제법 된다. 정운산악회 총무님, 통통이네 식당에 나눠 주기로 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사실 나 혼자 먹는 것은 별로 없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게 기쁘이고 행복이다. 가을 상추도 따고, 동부도 따고 적지만 수확의 기쁨을 맛본 하루였다.

## 뒷밭 정리



**2019. 10. 20.**

고추는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이다. 일조량이 줄어들어 고추의

성장이 멈췄다고 보아야 한다. 뒷밭에는 일반 고추 10주, 청양고추 10주, 오이고추 10주를 심었다. 푸른 고추를 따 먹기 위해 농약을 일체 뿌리지 않았다. 고추는 농약을 안 치면 붉은 고추를 딸 수가 없다. 내가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라 주변에 식당을 하는 지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고춧잎은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 반찬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고춧대를 뽑아내서 가지런히 해 놓고 편하게 앉아서 고춧잎을 따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할 일 같다. 가지도 뽑아냈는데 제법 많이 달려 있다. 그런데 병이 왔는지 가지의 겉 부분의 상태가 매끄럽지가 않다. 보기가 안 좋아 누구에게 가져다줄 수도 없겠다. 2년 연속 가지는 상태가 안 좋아, 내년에는 앞밭에다 심어 봐야겠다. 고추와 가지를 뽑아낸 자리와 지난번 마늘을 캐고 놀린 밭에다 보라색 양파와 월동 시금치를 심기로 했다. 두한이 아우가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세탁소와 건축 일을 하는 바쁜 동생인데 일요일 쉬어야 하지 않냐고 해도 아침 일찍 밭에 오겠단다. 두 사람이 일할 농기구를 준비했다. 아침 일찍 메시지가 왔다. 세탁소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단다. 복합비료와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삽으로 파 얹기 시작했다. 아침 선선한 날씨지만, 온몸에 땀이 흐른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반 작업으로 뒷밭의 정리 작업을 마쳤다. 이 자리에 보라색 양파와 월동 시금치를 심어야겠다.



2019. 11. 6.

점심시간에 텃밭에 들었다. 앞밭은 배추와 무, 쪽파, 청갯, 돌산갯이 김장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뒷밭에는 얼마 전에 심은 보라색 양파와 월동 시금치, 그리고 늦게 심은 무와 알타리가 있다. 양파는 심을 때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일어섰다. 시금치는 세 차례 나눠 심었는데, 제일 먼저 심은 것은 경쟁하듯이 올라오고 있다. 무는 앞밭보다 늦게 심었는데, 완숙한 퇴비를 맛보고 제법 알을 크게 안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앞밭의 무는 농후 퇴비를 깔고 심었는데 지난번 뽑아 보니 예쁘기는 한데 크기가 얇다. 아버지는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다. 논농사를 주로 하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시절 여름이면, 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에 있는 풀을 베어다 퇴비장을 크게 네 동을 만드셨다. 풀을 깔고 그 위에 인분을 뿌려서 완숙한 퇴비를 만들어 논에다 깔고 농사를 지으셨으니,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평택군에서 퇴비 증산 왕 3연패, 벼 다수확 왕 2연패를 하셨다.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장남인 나를 논밭 주변에는 열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하셨다.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농사일을 돕지도 못하고, 소 풀도 뜯기지 못하는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텃밭을 가꾸다 보니 더욱 실감이 난다.



2019. 11. 7.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텃밭에 가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가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고 싶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몸에 가장 잘 맞아 무엇을 해도 상쾌합니다. 높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은 시 한 수를 읊어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소복이 쌓인 은행잎 위를 마냥 걷고 싶습니다. 걷다가 고즈넉한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며 쌓아 두고 읽지 못한 책 바랜 시집을 펼치고 소리 내어 읽고 싶습니다. 잠시 가을 남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텃밭에 들러 내 새끼들에게 눈도장 찍어 주고 밭이랑을 걸었습니다. 가을 상추 잎이 햇볕에 비쳐 색상이 넘 예쁘게 살아나 손으로 떼어 내기가 겁이 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급강하한다니 상추 잎을 따야겠습니다.

## 김장 준비



2019. 11. 20.

어제부터 영하의 날씨가 이를 계속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다. 첫눈 예보도 있다. 이제 완전한 겨울로 접어든 것이다. 그제 김장 채소를 일단 얼지 않게 갈무리를 하려고 밭에 들렀다. 텃밭에는 좀 늦게 심은 무와 알타리가 있다. 뽑아 보니 생각보다 씨알이 작다. 거름의 영향이다. 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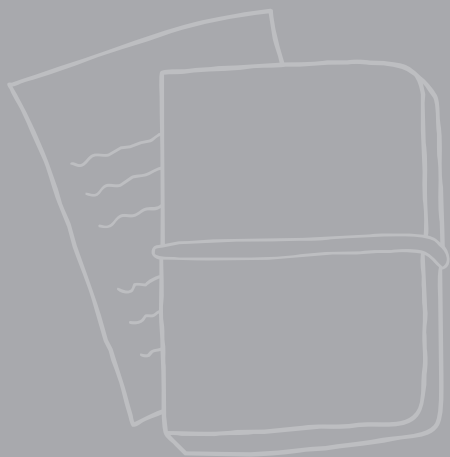


리채소는 완숙한 퇴비를 충분히 깔고 밭을 만든 후 심어야 제대로 씨알이 크고 굵은 놈을 수확할 수 있다. 농기계 창고에 대형 마대와 미늘심을 때 썼던 보온재인 부직포가 있다. 이것으로 담고, 덮으면 이번 추위는 견딜 것 같다. 김장 날씨가 잡히지 않았으니, 일단 뽑아서 밭에다 잠시 놔두기로 했다. 뒷밭의 무와 알타리는 마대에 담아 두고, 앞밭의 배추는 겉잎에 약하게 병이 온 것 같아 잎을 떼어 내어 바로 소금물에 절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일렬로 정리해 놓으니 숫자로 98포기다. 100포기를 심어 98포기를 만들었으니 숫자로는 합격점인데, 포기가 4등분은 어렵고 2등분을 해야 할 정도의 크기다. 무도 일찍 심었는데 거름과 그늘의 영향으로 크지가 않다.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배추와 무를 차곡차곡 쌓고 부직포로 싸매 덮고 부직포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흙으로 덮었다. 이 정도면 영하로 내려간다 해도 며칠은 얼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밭에서 배추를 먼저 뽑아 손질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분이 한 말씀 하신다. 배추보다 무가 얼기 쉬우니 무부터 먼저 뽑으라신다. 무는 얼면 쓸 수가 없으니 하시는 말씀이다.



4.

책을 가까이하고 싶다





2019. 5. 23.

6시 반에 공도 시내 '참치 세상'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 걸어서 15분 거리이지만 1시간 전에 집을 나서 서점에 들렀다. 몇 권의 책을 보다가 『나도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를 집어 들었다. KBS에서 아나운서, PD로, 그 후 대학교수로 재직한 김상근 박사가 쓴 책이다. 이분은 개그맨 김준현의 아버지이자, <체험, 삶의 현장>, <TV는 사랑을 싣고> 등 프로그램 제조기란 별명을 가진 명 PD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다. 오늘 식사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6월 1일자로 관리소장에 나갈 수 있도록 청지기 사장에게 추천해 준 최재원 소장과 내게 관리소장을 인계해 준 심장섭 소장이다. 나는 서점에서 나와, 만나는 장소를 확인하고 파리바게트에서 녹차로 만든 롤 케이크 두 개를 준비해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었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갈 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서점을 찾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사고, 책을 사서 선물로도 주기도 했는데, 이제 선물로 주는 일은 안 하고 있다. 어느 해인가 가까운 친구 네 명과 송년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배려』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책을 읽은 친구가 한 명뿐이다. 그리고 책을 빌려주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빌려 간 친구 열이면 열, 모두 다 반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커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쩔 나와 같을까 하는 점이 있어 소개한다.

## 「커피 이야기」

스타벅스나 엔젤리너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면 나는 으레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 누가 보면 커피 중에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건 내가 아는 커피가 아메리카노뿐이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성이 강해서 커피를 주문 할 때도 각자 다른 것을 주문한다. 이러니 시골 다방에서는 주문을 받은 아가씨가 커피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주방에다 대고 소리친다. ‘여기 커피 네잔’

##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2019. 7. 17.**

경비원 2명이 맞교대하는 상황에서 4일간의 여름휴가를 주다 보니 한 사람은 휴가를 가고, 한 사람은 야간 근무만 하게 된다. 아침 교대 시간이 7시인데, 7시에는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니 사무실 직원이 출근할 때까지 있어야 공백이 발생하질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불만인 것이다. 아침을 일찍 먹는 습관으로 배가 고프단다. 경리 유 주임이 빵과 우유를 준비해 주기로 했다. 내가 7시경에 출근을 하니 직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출근하면 바로 퇴근하라고 했다. 오늘 7시 10분에 출근해 경비 근무자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는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일찍 퇴근한 것인지, 근무 중인

데 전화를 못 받은 것인지 말이다.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텐데 오늘 내내 전화가 없다. 이런 사람을 경비라고 얹혀 놓고 밤에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걱정도 되고 불안스럽다. 75세, 78세 나이로만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요즘은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 80의 나이에도 젊은 사람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50대 중반에도 노인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 ‘리더스다이제스트’라고 미국 사람들이 집안 화장실 등에 비치해 놓고 읽는 월간 잡지에 실린 글을 소개할까 한다. 한 저택에 모두들 직장을 나가고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약병을 찾았다. 그러나 약병을 열지 못해 아버님은 정원에 숨진 채 자식들이 퇴근 후에 발견되었는데, 아버님 옆에는 약병과 커다란 돌이 함께 있고, 약병은 잠긴 채로 있었다. 아버님은 약병을 열지 못하자 돌을 주워서 약병을 깨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는 사이 돌아가신 것이다. 요즘 약병은 어린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병마개를 눌러서 돌려야 약병을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아버님은 이 방법을 모르셨던 것이다. 물리적인 나이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사회의 변화 속도를 걸맞게 따라가야 노인이란 소릴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다.



2019. 8. 15.

광복절 74돌이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날이다.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다. 이진설 친구와 메신저를 하면서 친구가 보수 단체의 집회에 참가하러 서울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모두가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문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친구의 이런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뒷전에서 숨어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는데 우중에 치러지는 행사가 별 사고 없이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제 뒷밭을 파서 얹어 놓고, 하루 정도 흙이 마르면 오늘 무씨를 파종하기로 한 계획이 비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다. 농사일은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앞밭에 파종한 무는 파종한 뒤에 비가 내려 주어 발아가 잘될 것이다. 씨앗마다 발아율이 표기되어 있지만, 파종을 하고 난 후, 가뭄이 계속되면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져 다시 파종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특히 모종을 심을 때에는 비 오기 전날에 심어야 모종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 2년 전에 고추 모종을 심고 계속 가뭄에 두 번이나 다시 심었는데, 결국에는 거의 다 죽이고 말았다. 물론 아침저녁으로 물을 충분히 주면 살릴 수도 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니 하늘만 바라보다 낭패를 보는 것이다. 나

의 경우, 텃밭을 재미 삼아 하고 있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입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밀린 손빨래도 하고, 집 안 청소도 하고, 책을 펴 들었다. 『매일 아침 써봤니?』는 MBC에서 PD로 일하며 7년간 블로그에 아침에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삶을 편안하게 써 내려간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숨김없이 밝힌 내용이 인상적이고, 내게 새로운 길을 알려 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에 충분했다. 나의 경우, 매일 아침 일기를 쓴 것이 올해 5월 초부터이니 이제 3개월을 좀 지나고 있다. 저자에 비하면 초보치고도 왕초보이다. 지금까지의 일기는 나만 보았는데, 이것을 블로그에 올판을 한다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긴다. 일단 블로그 관련 책을 구입해 걸음마를 떤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 한다.

## 『신의 멘탈』을 읽다



**2019. 9. 5.**

「의지력을 180도 바꾸는 결심의 뇌과학」이라는 부제의 일본 작가 호시 와타루 씨의 『신의 멘탈』을 읽으면서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멘탈’ 컨설턴트이자 컨설팅업체 라이징 스타 대표이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은 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멘탈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원인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변화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심리, '심리학적 항상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역이용하여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그의 컨설팅 방식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성공할까에 대해서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평가가 아닌 목표를 달성한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사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내가 책 한 권을 쓰는 게 목표라면, 내가 저자가 되어 팬 사인회를 갖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며 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다. 우리의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생명 유지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거나 무엇인가에 도전하려 하면 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변화를 방해한다. 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떠오르게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사례가 마음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등 전력으로 변화를 저지한다. 이와 같은 뇌의 작용을 전문 용어로 '심리학적 항상성'이라고 한다.



2019. 11. 11.

흐린 날씨다. 오후 늦게 비 소식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쓰기 위해 뒷밭에 들렀다. 퇴비장 옆에 구덩이를 파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음식물에는 염분이 있어 구덩이에 넣어 일정 기간 지난 후 염기가 빠지면 퇴비와 섞어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한다. 늦게 심은 월동 시금치도 싹이 나와 초록 줄피를 두른 것 같다. 원래 월동 시금치의 싹트는 가시가 있어 심을 때 다른 종자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번에 산 싹트는 개량종인지 싹트에 가시가 없고 매끈해 싹이 너무 많이 뿌려져 새 싹들이 올라오면서부터 경쟁이 치열해 보인다. 앞밭까지 둘러보고, 도서관 개관 시간에 맞춰 도서관에 들어가니 도서관 관계자 말고는 한 사람도 안 보인다. 적막감이 감도는 도서관에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무엇부터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이다. 전에는 평택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그곳은 신간 서적이 없어 이곳 시립 공도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도서관도 늘고 다양한 신간 도서가 있는 시립도서관이 맘에 든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슬슬 졸음이 온다. 밖으로 나와 소나무가 있는 공원을 산책한다. 은행나무 밑으로 노오란 카펫을 깔 것 같이 낙엽이 쌓여 떠나는 가을을 배웅하는 느낌이다. 현대수필문인회 108분의 문집인 『글빛』과 『철학이 이토록 도움이 될 줄이야』 두 권을 들고 도서관을 나왔다.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다.



**2019. 11. 12.**

어제 이건설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동태탕으로 점심을 같이했다. 친구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내게 소상히 이야기했다. 주로 단체에서 사람들과 겪은 이야기인데, 내가 들어도 속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먼 거리를 달려와 준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만남에 마음을 연 사람의 기쁨을 이렇게 적었다. ‘우정에는 찬란한 기쁨이 있다. 기쁨의 전염성을 깨달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 나의 존재로 친구가 조금이라도 진정한 기쁨을 얻으면 이번에는 그 기쁨을 본 내가 기쁨을 느낀다. 이렇듯 서로에게 준 기쁨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듯 기쁨은 선순환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의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에 우정을 맺는다고 해도,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친구와 만나면 기쁨이 더해진다. 친구와 말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렇게 홀로 선다. 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있기 위해서 말이다. 친구는 내게 모과를 한 아름 안겨 주고 갔다. 친구야 늘 건강하고 행복하자.



2019. 11. 15.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엇그제 노인회에 사다 준 삼겹살 수육이 맛있었다고 노인회 총무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엇그제 사 온 것과 같은 것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한다. 엇그제 산 것은 오겹살이었다. 그러니 기존에 먹던 삼겹살보다 뭔가 달랐을 것이다. 우리들의 입은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어제 읽은 책 중에 고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는 침묵과 말에 대해서 저자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알리고 있다. 이 중에는 나와 같은 점이 있어 나를 보는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의 제1원칙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지만 듣기만 하다 보면 답답해져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생각을 여과 없이 말하려다 보니 말이 아주 빠르고 게다가 뒤죽박죽 논리가 없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 나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어 냉철하게 분석하거나 따져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도 성격이 급한 것 같다. 나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 여유를 갖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 실수를 하는 편이다. 침묵과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제 조국 씨의 검찰 출두 뉴스를 보니 묵비권을 행사한 것 같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치고는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침묵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침묵해서 잃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해서 잃는

게 많다는 것이 경험칙의 결론이다. 침묵과 말을 조화 있게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고,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

##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2019. 11. 25.**

22일 동 대표 투표를 마치고 3명의 동 대표를 선출했다. 투표율 81%에 기권 3, 무효 2, 반대 2로, 3명 전원이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된 것이다. 앞으로 3명의 동 대표를 추가로 선출하여야 입주자대표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가 있다. 방법은 계속 추가로 선출 공고를 하여 후보자를 등록시켜야 하고, 기존 동 대표들도 중임 제한에서 풀려나니 출마를 권유해야 한다. 어제는 도서관에 들러 책을 보다가 졸다가 오전 시간을 보냈다. 졸더라도 도서관에서 졸면, 잠시 공원을 산책하면서 졸음을 날려 보낼 수가 있는데, 집에서 졸게 되면 편한 소파에 그대로 눕게 되니 잠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로 50여 년을 보내고, 76세의 나이에 고려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싶다』가 눈에 들어왔다. 이 책에 정신과 의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이시형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시형 박사가 쓴 『배짱으로 삽시다』에 대한 이야기다. 이시형 박사가 말하는 배짱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가 나를 사

랑한다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왜 보겠는가. 인생의 성공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그는 대중에게 쉽게 설파했다. 나를 사랑하면 주관이 세워진다. 타인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 순간을 참아 내는 지혜



**2019. 11. 26.**

아파트의 문제 중 하나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위 아래층 세대 간의 분쟁이다. 언젠가 지방의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순간의 사소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불행한 사고로 확대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에서 저자인 이근후 교수가 밝힌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참는 힘을 길러야 한다. 화를 삭이는 처방은 바로 참는 데 있다. 이때는 시간이 약이다. 화를 누르고 참는 동안에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스스로 자존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주위에서 자신을 존

중해 준다고 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약하면 쉽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셋째, 분노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자신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믿지만 알고 보면 내면적인 문제와 연관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 그 불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펴봐야겠다. 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 본다.

## 김연수 작가와의 만남



**2019. 11. 27.**

『시절일기』의 저자 김연수의 강연회가 어제 저녁 공도 도서관에서 있었다. 김연수 작가는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세계문학상을 수상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동인문학상, 대상문학상, 황순원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떠오르는 작가이다. 나는 김연수 작가의 글을 접해 본 적이 없다. 공도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학 강연>에서 문학 부문에 김연수 작가를 초청해 이뤄진 자리다. 100명 좌석인 3층 다목적실의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

람들이 자리했다. 나는 작가를 직접 만나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분하게 대화하듯이 말꼬를 튼 저자는 고 ‘백석’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백석’이 1935년에 발표한 첫 시 <정주성>을 읽고 ‘백석’에 대한 글을 써 보려고 했던 작가로서의 소명 의식을 이야기했고,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도 정리해 주었다.

1. 한 번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계속 쓴다
2.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쓴다
3. 날짜와 시간과 장소부터 쓴다
4.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문장을 온전한 형태로 쓴다
5. 생각을 검열하지 않는다

그리고 글을 쓸 때, 판단·추측·생각에서 관찰·감각·사실로 바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축구를 엄청나게 못 한다’를 ‘나는 지금까지 축구 시험에서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다’로 ‘그는 아주 후한 사람이다’를 ‘그는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로 바꾸는 것이다. 두 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겐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9. 12. 7.**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내가 공무원과 회사에서 일할 때 조직의 책임자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하면서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운다. 그때마다 수정과 보완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자기 경영을 했는가?’, ‘했다 해도 회사의 일처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가졌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답은 ‘아니요’이다. 진정 나 자신에 대한 경영은 불합격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자기를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데 게을렀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어려운 숙제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대론 안 돼. 난 변화해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를 외치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봐야 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지속되길 원한다. 우리의 뇌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유지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속성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난 죄나 악에 한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하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별것 아닌 어리석은 말들, 눈에도 띄지 않는 작은 충돌들,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결국 낭패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길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Tom Ford는 “훌륭한 디자인이란?” 질문에 “잘 팔려야 하고, 만족감을 줘야 하며, 삶을 승화시키는 어떤 것 이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답을 ‘훌륭한 삶의 경영이란?’에 대입해 보면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내 인생이 성공을 거두려면 나 자신이 좋은 값에 잘 팔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은 내가 어떻게 인생에서 변화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다.

## 오늘 참 관찮은 나를 만났다



**2019. 12. 8.**

정신의학과, 신경과 의사이며 연세대 교수인 양창순 박사의 『오늘 참 관찮은 나를 만났다』를 읽게 되었다. 전에 누구와 약속 시간에 나가 시간이 있기에 주변 서점에서 서핑을 하다가 사 들고 나온 책인데, 다 읽지를 못하고 꽂아 놓은 것을 오늘에서야 읽는다. 그렇다. 책도 욕심이 있어 내 것으로 만들지만 막상 만들어 놓고서는 읽기에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도 많다. 어렸을 때 먹을 것을 받으면 욕심 많은 형제는 자기 것을 침 발라 놓고 다른 형제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 이러다 보면 한바탕 싸움판이 되고 울음바다가 되는 광경이 떠오른다. 모든 게 욕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내 것을 먼저 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먼저 받으려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어에 ‘give and take’처럼 먼저 주

고 나중에 받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된다. 저자가 말하는 ‘좋은 삶, 편안한 관계’를 위하여 제시하는 몇 가지 전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다양성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만의 고유한 삶이 있다. 그런데 단지 상대방이 내 관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둘째,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 일종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그림 보듯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간관계는 때론 가볍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다양성 앞에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애쓰고, 쿨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좋은 삶, 편안한 관계로 이끄는 최고의 비결인 셈이다.



**2019. 12. 13.**

장시간 강의를 듣고, 긴 시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도 뚜렷하게 남는 게 없다.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일이다. 뇌리에 박히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의 목적은 전달이고, 상호 이해다. 일방적이지 아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말의 기술에 대하여 『편집의 힘』의 저자인 김용길 박사는 3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모든 연설의 첫 문장은 핵심 메시지로 다가가는 첫 단추여야 한다.

둘째, 생생한 단어를 사용하라. 청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눈높이로 다가가야 한다. 사랑, 행복, 최선, 노력 등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배려하고 조심하라. 정확한 팩트와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전달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서비스의 요체다. 그러므로 비난과 부정적인 말은 줄이고, 격려와 긍정적인 말을 늘려야 한다.



**2019. 12. 19.**

MBC 드라마 PD로 있는 김민식 씨가 쓴 『매일 아침 써봤니?』를 읽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저자는 7년간 일기를 쓰면서 블로그에 올렸고, 그게 계기가 되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저자가 일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요즘 내가 느끼는 것과 매우 흡사해 저자가 책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무엇이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쓰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쓴다. 오로지 마음 가는 대로 키보드를 두드려야 글쓰기가 즐겁다.

둘째,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기 싫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어떤 일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글을 쓴다. 다만 그 글을 공개하는 건, 화가 가라앉은 한참 후이다.

셋째, 더 좋은 글을 고르고 싶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개씩 글감이 떠오른다. 모두 메모하고 여유가 있을 때 문장으로 다듬는다.

나와 같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매일 글을 블로그에 올리려면 많이 쓰고,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글이 되어야 한다. 두한이 아우가 내 글을 정운산악회 밴드에 올리고 내게 톡으로 형님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렸다고 보내왔다. 나는 고민을 하다 그 글들을 삭제했다. 산악 회원들이 산행을 위해 만나는 밴드에 나의 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의 글은 산행이 목적인 회원들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글은 조심스러운 것이다.

## 인생 편집력



**2019. 12. 24.**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다. 시내 변화가에서는 캐럴송이 울리고 성탄 분위기에 들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은 고요한 적막이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한 해의 성과를 마감하고 그 결과를 상여금과 승진에 반영하기도 하고 퇴출 사원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러다 보니 즐거워해야 할 성탄절이 되지 못하고 조용하고 다소 우울한 분위기에 젖어 지냈던 기억이 있다. 『편집의 힘』의 저자 김용길 박사는 중년이 되면 절실하게 살펴봐야 할 인생 편집력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자신을 억압하지 말자. 쓸쓸함, 낯섦, 서러움, 무력감, 우울함에 솔직해야 한다. 지나친 자기 규제와 억제된 감성은 언젠가는 왜곡된 형태로 폭발한다. 슬플 때는 울어야 하고, 욕구가 차오르면 터뜨려야 한다.

둘째, 내면을 성찰하자. 욕망을 감추기만 하면 피해 의식의 덩어리가 자란다. 그 덩어리는 타인을 겨냥한 비난, 야유, 냉소로 변하기 쉽다.

셋째,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자. 일에 중독된 중년일수록 은퇴 후 상실감이 크다. 찬찬하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자세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한다면 이후가 긍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 작심삼일의 과학적 공략법



### 2020. 1. 2.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직장인들에게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한다. 그 목표가 대단히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습관을 고치는 작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며칠을 못 가서, 한두 달 안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매년 반복이 되는 게 나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실상이다. 왜 처음에는 그토록 의욕이 가득했는데 고작 사흘 만에 의지가 사라져서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도쿄대학 이케가야 유지 교수는 저서 『뇌 속이기, 의욕의 비밀』에서 계속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가 원래 쉽게 질려 버리도록 만 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작심삼일의 원인은 뇌의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뇌는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활성화된다. 그런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차 그 활성화의 세기가 약해진다.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겹고 귀찮아져서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귀찮지만 익숙해져서 계속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습관인데, 그렇다면 뇌의 구조가 새로운 것을 정착시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역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다. 뇌의 구조를 역이용하는 방법은 이미 습관이 된 것에 덧붙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좋은 이미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가정하자. 내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행동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 습관에 덧붙이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라는 습관에 ‘이미지를 본다’라는 습관을 덧붙이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미지들을 보기 시작한다. 이런 습관이 익숙해지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저절로 스마트폰을 꺼내게 된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다. 하기 싫은 방청소를 억지로 시작했는데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여기도 신경이 쓰이고 저기도 신경이 쓰여서 결국 방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한 경험이 없는가? 그와 같은 원리다. 습관을 들이고 싶은 행동을 반드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주 조금만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의 허들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나 헬스를 위해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50회 하자’라고 결심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방법을 응용하여 윗몸 일으키기를 5회만 해 보자. 그러면 ‘역시 5회로는 부족해. 좀 더 하고 싶어’라는 의지력이 생겨나 10회, 20회를 하게 되고, 매일 50회씩 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밸 것이다. 이와 같이 행



등을 습관화하려면 뇌의 구조를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을 새해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단순한 것이 강하다



**2020. 1. 7.**

어제부터 겨울비가 내린다. 올겨울도 아직까진 큰 추위 없이 왔다. 눈을 기다리는 사람, 강추위로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고 아쉬운 날씨다. 지구온난화로 겨울도 예전처럼 혹한의 추위와는 멀어진 것 같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만들어 인사를 하는 풍경이 잡힌다. 작은 명함에는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빼곡하게 잔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어제 메신저로 연말에 경기도 조합장에 출마하는 지인이 명함 시안을 보내왔다. 인쇄하기 전에 최종 검토를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리플릿 시안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시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명함이든 리플릿이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나를 많은 것을 알려져서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을 받는 수단이다. 작은 지면에, 바쁜 유권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무언가 확실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표어는 어느 홍보물에서도 동일하게 노출시켜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적용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욕심이 앞서 더 많은 것을, 더 새

로운 것을 원하다 보니 단순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이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수영을 못해 죽게 생겼는데 저를 살려 줄 사람 없나요?’라고 외치는 것보다 ‘사람 살려!’ 한마디면 충분하다. 훌륭한 메시지란 바로 짧고 강하면서도 절실함이 묻어나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 메모의 습관



**2020. 1. 10.**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그 많은 것을 전부 기억하기엔 우리의 뇌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난 것은 잊고 새로운 것이 자리할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도 망각은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메모를 습관으로 살아온 분들이 많다. 링컨 대통령은 늘 모자 속에 노트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 동안 메모한 노트가 3,400여 권이나 된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1592년 1월 1일부터 전사하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2,539일의 병영 생활을 일기로 남겼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난중일기』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상황 속에서도 장군은 매일 일기를 썼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처하여 23전 23승 무패의 신화를 남겼다. 만약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역사의 영웅

으로 추앙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 다산 정약용 역시 메모광이었다. 끊임없는 탐구 끝에 얻은 지혜이든,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든 모든 것을 메모로 남겼다. 정약용이 경제, 의학, 행정, 건축, 토목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본능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늘 메모하는 습관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설득시키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가능케 했다. 일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메모를 습관화시키는 교육과 부단한 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30% 가까이 올린 사례도 있다. 내 경우도 가능한 메모를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그러기 위해 내가 자리하는 주변에 메모지와 필기구를 늘 준비해 둔다. 일상에서도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미리 메모를 하여 빠짐이 없도록 하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험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 내일을 꿈꾸고 오늘을 즐겨라



**2020. 1. 16.**

‘내일을 꿈꾸고 오늘을 즐겨라. 큰 꿈을 품고 작은 일에 충실하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봄 직한 표어이다. 지나간 추억은 항상 아름다울까? 향기롭던 추억도 세월의 더께를 뒤집어쓰면 슬픈 추억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아픈 추억을 잊고 행복한 추억만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 그 많은 과거를 모두 껴안고 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편집의 힘』의 김용길 박사가 말하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사는 방법을 옮겨 본다.

첫째,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과거의 불행이나 실수가 현재의 자신을 삼키려 할 때 당당히 맞서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둘째, 현재를 즐겨라.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방향과 방법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고 즐기는 것이 좋다.

셋째,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꿈이 없을 때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며, 그 시간이 버거운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낭비했다고 생각한다면 남은 삶은 꼭 건져야 한다.

## 좋은 습관 만들기



**2020. 1. 28.**

설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는 날이다. 어젯밤에 내린 비로 도로가 축축

하다. 세차를 잘 하지 않는 내 차도 밤새 세차한 차로 변신했다. 그래서 그런지 웬지 기분이 상쾌하다. 어젯밤에 내린 비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같이 느껴진다. 출근하는 도로,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4월 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 출근자를 상대로 인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부지런한 점에서 우선 점수를 줄 만하다. 나는 설 연휴 기간 중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집 안도 정리하고, 안 입는 옷도 과감히 버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책도 다시 읽고, 승두천 길을 걷고, 근력 운동도 하고 나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TV에서 스치며 보았던 습관을 들이기 위한 카드가 생각났다. 나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 방법을 써 봐야겠다는 생각에 연휴 중 아파트가 궁금해 사무실에 들러 상황을 확인하고, 명함 크기의 ‘습관 만들기 카드’를 만들었다. 상단에는 내가 만들어갈 좋은 습관을 적고, 아래에 21칸을 만들어 21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습관을 만들기로 한 것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드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한다. 내가 이 카드에 올린 습관은 ① 하루 40분 이상 걷기 ② 하루 아령 200회 이상 ③ 하루 10페이지 이상 책 읽기 ④ 하루 영어 문장 10개 이상 암기하기 ⑤ 저녁 약속 잡지 않기이다. 이 습관 카드를 휴대폰 지갑에 모셔 두고 자주 보게 되면, 이 습관은 지켜질 것이고 새로운 습관이 추가되어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웬지 벌써부터 습관이 다 되어 버린 느낌으로 다가온다.



2020. 2. 3.

새해를 맞은 지 엿그제 같은데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를 시작한다. TV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방송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한다. ‘과유불급’,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의미로,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반면, 너무 가물어 먹을 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당한 비가 내려 주기를 바란다. 이렇듯 매사에는 중용이라는 기준이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맞추어 양자를 만족시키며 유지해 가는 것이다. 요즘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한 두 차례의 검찰 인사에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니 검찰 개혁을 내세워 인사 탄압을 하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선거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하고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를 수사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한 것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권력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권력지향형의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헌법 정신과 법률에 의해 당당하고 소신

있게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어제는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 후보 2위에 랭크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현 집권 세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과유불급의 자세로 큰 정치를 지금이라도 펼쳐 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길만이 국민을 편안하고 화합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열정이란?



**2020. 2. 5.**

어젯밤부터 눈발이 날리며 찬바람도 불고, 내일 아침엔 눈도 쌓이고, 아침부터 제설 작업에 바쁘겠다는 걱정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행히 눈은 살짝만 뿌리고 지나갔다.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바람은 없어도 차갑게 느껴지는 날씨다. 안성은 이번 4월에 시장 재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다. 아침 출근길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려고 목 좋은 곳에는 3~4명씩 몰려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게 진풍경이다. 그런데 오늘은 추워진 날씨 탓인지 단 한 명만 인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단순히 목례와 손 흔들기가 아니라,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90도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무소속으로 안성시장에 출마하려는 이○○ 후보다. 연

3일째 같은 자리에서 90도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 두 손을 흔드는 방법이다. 나는 이○○ 후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 혼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 후보의 열정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간절함이 있어야 이런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선을 목표로 하는 간절함, 다른 후보자들도 당선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선거는 경쟁을 하는 장이다. 나라는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파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떤 상품을 골라서 구매할까? 겉으로 보기에 별레를 먹지 않은 깨끗한 잎채소,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상처가 있지만 노지에서 피약별을 흠뻑 받은 무농약의 건강한 잎채소, 의식이 있고 지혜로운 유권자는 건강한 잎채소를 선택하듯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숨어 있는 열정을 선택할 것이다.

## 삶의 선택



**2020. 2. 6.**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은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일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 내며, 버려야 할 것을 가려내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편집의 힘』의 저자 김용길 박사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복잡한 것을 단순화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복잡하게 얽힌 일이라도, 중심인물과 환경을 파악하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과 밖,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보면 누가 무엇을 했고, 사건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누구에게 이롭거나 혹은 해가 되는지도 확실해진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요한 일 중에서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 일의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정하는 일은 한정된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100세 시대, 대부분 80세 이상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지나긴 노후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제대로 선택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 매일매일 즐거운 삶



**2020. 2. 10.**

매일매일 즐거운 삶,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삶일 것이다. 내가 일기

를 쓰면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오늘 이 글로 220쪽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것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양은 된 것이다. 양적으로 200페이지 내외에서 책이 출판되고 있으니 말이다. 매일 글을 쓰려면 매일이 즐거워야 된다. 그래야 글을 쓸 마음이 생기고 컴퓨터 자판 위에서 기분 좋게 자판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무엇을 쓸까, 어제 즐거웠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 어제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경험은 없었나, 주변을 살살이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지난 주말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했다. 노래방 아르바이트다. 영순 동생의 아들 성진이가 변화가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로 태국을 들어가게 되어 영순 동생이 노래방의 문을 열기로 했는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내게 SOS를 보냈다. 내가 하는 일은 카운터를 보는 일이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문을 연 노래방은 9시가 지나자 한꺼번에 6팀이 몰려들어 와 방 하나를 남기고 점령해 버렸다. 방마다 주문이 쏟아지고, 정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곳은 젊은 세대들이 찾는 곳이라 방마다 신세대의 노래가 경쟁적으로 울리고, 열광의 도가니처럼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11시까지 이어진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 싶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1시경 문을 닫을까 하는데 1팀씩 총 3팀으로 이어진 손님을 4시에야 정리를 하고 문을 닫았다. 밤을 꼬박 새운 것이다. 물론 매일 이러하진 않겠지만, 아들 성진이는 아직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태국 출신 완이와 함께 일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잠이 늘 부족하다. 이틀간의 새로운 경험은 낮과 밤이 바뀐 상황이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놓았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가까이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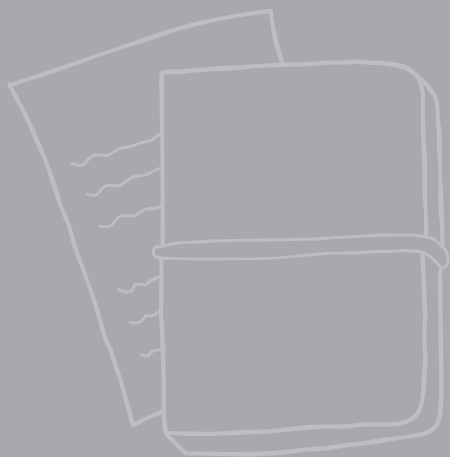
2020. 2. 11.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어제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다. 한류에 이어 영화에서도 세계에 우뚝 선 한국 영화의 쾌거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예술 분야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여야 작품의 진가가 살아날 수 있다.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서 1개의 상도 대단한 것인데 무려 4개의 상을 받았으니,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일이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서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개근상을 비롯해 우등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하여 받는 상이다. 나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절에 가장 많은 상장을 받았다. 그 당시 시골집에서는 상장이 한두 개라야 액자에 넣어 벽에 걸겠지만, 어머니는 상장이 계속해서 넘쳐나니 그 상태로 벽에 붙이셨다. 그러다 보니 벽면 전체를 상장으로 도배한 것이다.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은 벽면에 붙은 상장을 읽어 보면서 상장에 모두 내 이름만 있는 것을 보고, 아들에 대한 칭찬을 했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나름 힘든 농사일의 고통을 잊으셨다고 하셨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받은 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군대에서 받은 상이었다. 1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병참 주특기 경연 대회에 11사단 대표로 출전해 부대 보급 행정 부문에서 개인 1등을 하여 군사령관 상을 받았다. 또, 우리 사단이 종합 우승을 하여 사단 군악대가 홍천 버스터미널까지

나와 부대까지 5km를 오픈카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받은 것이다. 상품으로 받은 대형 시계는 사단장실 앞에 세워 놓고, 나는 10일간 포상 휴가를 받았다.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합격자 중 성적 상위에 해당하는 12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방 공무원 연수원에서 한 달간 합숙 교육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수석을 하여 경기도지사 상을 받은 것이다. 이 상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모자가 눈시울을 붉혔던 일이 가슴 깊이 아려 온다.

5.

건강을 챙기며





2019. 5. 15.

한낮 수은주가 여름 날씨 수준이다. 지리산 바래봉 부근에서 채취한 쇠뜨기를 물에 세척해 말리기로 했다. 커다란 검정 봉지로 세 봉지인데, 풀어 보니 양이 꽤 많다. 다른 풀 같으면, 시간이 지나 뒀을 텐데 아직도 싱싱한 게 곳곳하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말릴지 생각해 보았다. 밖에 다 말리기에 관리하기 힘들어 일단 1/3을 실내에 널어 말리기로 했다.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습관이 언제부터인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얼마 전 방송을 보다가 칙 순이 녹용에 견줄 만큼 좋아, 이름도 길용이란 걸 알았다. 바로 칙 순 채취에 나섰는데, 전에 칙을 보았던 반재 저수지에서 고성산 운수암 가는 등산로 부근으로 차를 몰아 가 보니 그 부근 일대를 나무를 베고 개발하고 있어 인근에 두세 곳을 둘러봐도 칙은 보이질 않는다. 옛 어른들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귀하다는 말이 실감 난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칙을 찾아 주변을 헤매다 영정귀를 만났다. 영정귀는 간에 좋다고 소문이 났고, 독일에서는 약으로 개발되어 간 치료제로 효험을 인정받고 있는 약성이 뛰어난 식물이다. 산소 주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칙 순 대신 야생 영정귀를 뜯어와 효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영정귀와 설탕의 비율을 4:6 정도로 하고, 영정귀 한 줄 위에 설탕을 같은 양으로 켜켜이 채우고 맨 위에 설탕을 좀 많이 채워서 6개월 후 영정귀를 건져 내면 된다. 그 남은 원액을 6개월 후 물에 적당히 희석해

마시면 여러모로 몸에 좋다. 이렇게 해서 길용 대신 야생 엉겅퀴 효소를 담갔다.

## 건강의 소중함



**2019. 7. 23.**

오늘 점심은 입주자대표회의 한수용 감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겠다. 중앙대학교 후문, 내리에 있는 메밀 막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경비근무자까지 7명이 함께했다. 한 감사는 여름철에 직원들을 위해 식사를 한 번씩 해 왔단다. 사실 마음은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 감사는 폐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한 사람이다. 식사량도 아주 적다. 다행히 폐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며 예의 관찰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가 잘 먹고,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더워서 운동은 잘 못하고 있단다. 폐의 기능이 안 좋으면 여러 부위에 증상이 나타난다. 비염도 폐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나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다니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병은 관리가 가능하고 짧게 치유되는 질환이어야 삶의 질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나도 관리소장이 된 후론 규칙적인 운동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다. 내일부터 주변 공원을 걷는 운동을 해야겠다.



**2019. 7. 27.**

오늘은 이발을 하여야 한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는 부부가 같이 하는데 깔끔하고, 커트도 마음에 들어 3년째 다니고 있다. 영순 동생이 일하고 있는 부근에 저렴한 이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이발을 해 보라는 정보를 준다. 내가 다니는 곳은 염색까지 해서 2만 5천 원인데 이곳은 1만 2천 원이다. 집 안 청소를 하고, 텃밭에서 호박, 가지, 고추, 상추, 요크,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시내로 향했다. 작은 이발소에 나이 든 이발사 한 분이 이발을 하고 있다. 내가 이발을 하는 중간에 아내 되는 분이 나와 보조를 하는데, 몸짓과 말투로 봐서 정신 지체가 있는 분이다.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넨다. 이곳은 얼굴 면도가 없다. 이발을 마치고 거울을 보니 커트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든다. 거기에 전에 다니던 곳의 반값이다. 동생이 좋은 정보를 준 것이다. 내가 다니던 곳에 만족해 이 정보를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동생의 정보를 신뢰하고 확인하여, 가성비 좋은 이발소를 찾은 것이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 번 정한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의 사고와 습관을 변화에 맞춰 적응하고 변해 가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2019. 8. 16.**

이틀을 쉬고 사무실에 출근했다. 오늘 일하면 이들의 연휴를 맞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직장은 입주민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많지만 5일제 근무에, 국경일에 쉬고, 여름휴가 4일에 한 달에 하루 휴가를 쓸 수 있으니 쉬는 것만으로는 괜찮은 직장이다. 관리소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기며 늘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장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일이 없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다. 직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움직이기 싫어도 제시간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고, 제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 가야 한다. 내 생애의 전성기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본다. 전성기란 가장 잘나갔던 때라고 생각하면 30~40대라고 본다. 그러나 그때는 일에 파묻혀 휴식도 즐기지 못하며, 노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도 않았었다. 직장인, 일이 항상 함께할 것이라 믿었다. 이제 전성기는 나에겐 없다고 본다. 지금 같이 일하며 틈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노후를 즐기는 것이 전성기보다 내겐 소중한 일이다. 내일이면 주문한 블로그 만드는 법에 관한 책을 받아 볼 것이다. 내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본다. 몇 명이 들어와 읽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장으로 블로그를 활용할 것이다. 혼자 보던 나의 일기가 오픈되

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만드는 모델은 정년 이후에도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지만 노후 생활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이 모델은 나의 일기를 통해 보이게 될 텐데, 나의 일상을 까발려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식과 위선이 없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공감을 느끼고 나의 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오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제 나이가 늘어 가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못하는 것은 배우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늘 배우려는 사람만이 늙지 않고, 노후를 건강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친구의 검진 결과



**2019. 9. 23.**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며칠간 뜸했던 연락이라 반가웠다. 하지만 말미에 검진 결과 갑상선에 악성 종양이 있어 30일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의사 면담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를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초기라서 다행이다. 갑상선은 성대와 가까이 있어 수술을 하다 성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걱정하는 것이

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그리 걱정할 것은 없겠다. 갑상선은 대사 작용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로 수술 후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몸의 활력을 잃게 된다. 비는 계속해서 주룩주룩 내린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점심 같이하자.’ 친구의 사무실에 들러 친구의 검진 결과를 듣고 위로해 주고, 근처 식당에서 동태찌개로 점심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오는 일요일(29일) 산행을 예약해 놓고 있어 친구가 병원에 가는 하루 전날이지만 계획대로 산을 함께 타기로 했다. 노래를 빼어나게 잘하는 친구, 잘될 거야!

## 질경이를 찾아서



**2019. 10. 5.**

아침부터 흐리다. 비가 올 듯한 날씨다. 앞밭에 늦게 심은 무와 알타리를 솟아 주었다. 잎이 너무 연하다. 따뜻한 밥에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어도 맛이 있겠다. 전에 안성 미리내 성지 뒷산을 여러 번 등산했었다. 하산 길에 질경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언젠가 한번 채취하러 와야지 하면서도 때를 놓쳐 버리곤 했다. 비가 올까 걱정도 되지만 차를 몰아 40여 분 거리인 미리내 성지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성지는 입구에 마리아 상도 바뀌고 단장을 해서 전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분

위기로 나를 맞아 준다. 질경이의 서식지를 찾아가니 전에 많이 있던 질경이가 생각보다 적어 보인다. 이곳은 오염이 안 된 곳이니 안심하고 채취해도 된다. 채취를 하고 오는 길에 ‘호수정감’이란 식당 겸 카페의 풍경이 발길을 멈추게 하여 사진에 담았다. 이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니 남한강이냐는 물음이 왔다. 전에 이곳에서 친구를 사진 찍어 준 것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작품이 되었다. 이 친구는 그 사진을 코팅해서 가보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늘은 그때 분위기와 다르게 꽃들의 색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조화롭다. 이 풍경을 보내 주면 그 친구는 이곳을 알아차릴까? 질경이는 약성이 있어 몸의 곳곳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험이 있는 약초다. 그늘에 말려 차처럼 마시면 몸이 갇털처럼 가벼워진다고 한다. 간, 신장, 기관지, 천식, 고혈압 등 치유도 되는 좋은 약재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효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무공해 약재를 채취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세척해서 말려서 끓이는 과정이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인 셈이다. 질경이도 채취하고, ‘호수정감’에서 고향집 같은 포근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 장터국밥



**2019. 10. 25.**

어제 술 한잔할 기회가 있어, 삼겹살과 빼 없는 닭발에 소주와 맥주

를 섞어 먹었더니 밥맛이 없어 결국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다. 점심을 집으로 갈까 하다 차를 몰아 안성 장터국밥집을 찾았다. 내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장터국밥은 4대째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식당으로, 옛날 분위기를 실내에 골동품으로 한껏 살리고 있다. 3면의 벽에 빼곡히 진열된 갖가지 골동품은 4대의 면면을 상상할 수 있는 이 집만의 보물이다. 메뉴는 단 두 가지, 장터국밥 6천 원, 소머리 수육 한 접시 2만 8천 원. 대부분 손님들은 장터국밥을 시킨다. 소고기 육수에 시래기와 연근 줄기 등이 된장과 어우러져 토속적인 맛을 낸다. 화학조미료를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1인분에 5천 원을 고수하다 지금은 6천 원을 받고 있는데 착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높다. 전날 술을 많이 하면 이 국밥이 생각난다. 전에는 한 달에 두어 번 다녔는데 올해 연초부터 술을 끊어 9개월 동안 이 집을 찾지 않았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은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반은 자리가 차 있다. 오랜만에 찾은 기념으로 인증샷을 친구와 동생들에게 보냈더니 모두들 먹고 싶단다. 깊어 가는 가을에 장터국밥, 궁합이 맞는 것 같다. 밥 한 톨, 국물 한 점 없이 말끔히 비운 행복한 밥상이었다.

## 늦어 가는 것에 대하여



**2019. 10. 31.**

이때쯤이면 라디오를 통해 가장 많이 들려오는 노래가 있다. 이용이

부르는 〈잊혀진 계절〉이다. 15년 전 이 노래를 잘 부르려고 노래방을 찾아 나름 혼자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한 적이 있다. 노래방 여주인은 한 곡만을 계속 불러 대니, 특이하다 생각해서 내 방에 들어와 모니터링을 해 준 적이 있다. 음치 탈출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한 것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나는 기계치에 속하는 편이다. 스마트폰도 기능이 다양하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능, 조작법을 잘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사고가 터졌다. 아우가 만든 밴드에 들어가 보니 나만 사진이 없는 것이다. 혼자 이리저리 만져서 사진을 등록하고, 이왕이면 부락산 둘레길 다녀온 글과 사진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보니 블로그에 저장된 글이 모두 다 올라가게 되는 사고를 친 것이다. 물론 다 올려도 안 될 것은 없지만, 나의 의도와 달리 벌어진 사고다. 건설이 친구의 답글을 보고, 내가 갑상선을 임파선으로 잘못 쓴 것을 알았다. 늙어 가는 전조 증상이 아닌가? 블로그에 친구에 대한 글이 있지만, 모두 다 갑상선으로 썼는데 왜 갑자기 임파선인가? 순간의 실수라 여기고, 나는 점점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 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2019. 11. 22.

오늘이 절기로 소설이다. 소설에 날씨가 추워야 농사가 잘된다고 할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다. 입동이 지나고 두 번째 맞는 절기인 소설 즈음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춥다. 이날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 추위를 손돌 추위라고 하며, 뱃사람들은 배를 잘 띄우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고려 고종이 몽고군의 침략을 받아 강화도로 몽진을 가던 때 사공 중에 '손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왕은 뱃길을 서둘렀지만, 왕이 보기에 손돌이 일부러 물살이 급한 뱃길을 잡아 노를 젓는 것이었다. 왕은 의심이 갔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물살이 세지 않은 곳으로 뱃길을 잡으라고 하였지만 손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왕은 선상에서 손돌을 참수하였다. 손돌은 죽기 전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소용이 없음을 알고, 바가지를 내놓으며 물에 띄운 바가지가 가는 길을 따라 뱃길을 잡으라고 말하였다. 물살은 점점 급해지고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손돌이 가르쳐 준 대로 바가지를 물에 띄웠다. 바가지는 세찬 물살을 따라 흘러갔으며, 왕을 실은 배도 그 뒤를 따랐다. 무사히 물에 내린 왕은 손돌의 참수를 후회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덕포진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장지를 정해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다고 한다. 이때가 11월 20일이었는데 매년 소설 즈음인 이맘때가 되면 찬바람이 불고 추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소설 무렵에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019. 11. 28.**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싶다』에서 저자가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노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노년의 모습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나는 어떤 노인의 유형으로 살고 싶은가’를 가늠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저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노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 활동을 중지하는 ‘은둔형’이다. 젊었을 때의 화려함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내는 ‘분노형’이다. 자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며 울분을 터트린다.

셋째,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사는 것이 치욕스럽다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형’이다.

넷째,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무장형’이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이다. 이들은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성숙한 노인’이 바로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지 않을까? 우리가 소망하는 ‘곱게 나이 든다’라는 것은 성숙한 유형의 노인일 것이다.

## 절주와 단절에서 벗어나다



**2019. 12. 5.**

올해 초부터 마음먹고 실천한 절주와 주변인들로부터 거리를 두어 왔던 생활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실천하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목표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애 한 권의 책을 낸 저자가 되어 보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나의 시간을 온전히 확보해야 하는데, 술과 주변인들과 잦은 만남의 시간은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다. 이러한 나 자신과의 약속을 대체적으로 실천해 왔고, 매일 쓰던 일기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매일의 일과 중 첫 번째로 글 쓰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관계는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만남에는 특히 남자들의 세계는 술이 빠지질 않는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도 좋은 식품인데,

적당한 선에서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역시 술이다.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적당한 선을 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제부터 가까운 친구들에게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고, 내 블로그도 공개하였다. 올해를 마감하는 12월, 가까운 친구와 술 한 잔으로 그간의 회포를 풀어야겠다.

## 대림 팔각정 공원



**2019. 12. 18.**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전까지 오고 개었지만 흐린 날씨다. 점심을 집에 가서 하려다 장터국밥으로 차를 몰았다. 가끔 생각나는 국밥이다. 메뉴판이 없는 그곳은 장터국밥과 소머리 수육이 메뉴인데, 거의 대부분이 장터국밥을 먹는다. 옛날 장터에서 차양을 치고 긴 의자에 앉아 대형 가마솥으로 즉석에서 끓여 내는 국밥을 먹었던 추억이 있다. 두한이 아우한테 인증샷을 보냈더니 거기가 어디냐며 당장이라도 달려올 느낌이다. 건설이 친구도 추억이 있는 국밥이 그리운 눈치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몸의 기관들이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연말에 마감할 서류들을 정리하는데 살살 졸음이 온다. 운동화로 갈아 신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대림 팔각정 공원으로 갔다. 최근에 완공을 한 작은 공원인데 그 앞으로 지나면서 이곳에 와서 걷기 운동을 해

야겠다고 늘 생각만 하며 지나쳤던 곳이다. 흙을 밟지 않고 걸을 수 있게 야자 매트로 바닥을 깔았고, 계단은 나무로 깔끔하게 단장해 놓았다. 화장실은 난방이 되고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한 시간을 오르락내리락 걸으며 아직도 죽지 않고 꽃을 피우고 있는 구절초도 만나고, 유럽풍으로 풍차까지 설치한 ‘고센가’라는 저택도 공원 건너에 있어 멀리서 집 구경을 했다. 철쭉을 많이 심어 놓아 봄이 되면 이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도시락으로 식사를 같이하면 좋겠다. 나의 휴식 공간이며, 산책 공간으로 ‘대림 팔각정’을 접수했다.

## 작은 관심과 배려



**2020. 1. 15.**

그제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변의 무의탁 할머니 다섯 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는데, 차량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중 한 분이 생일인데 친구들에게 점심을 사고 노래방에 가기를 원한다는 소릴 듣고 동생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할머니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갔다. 그 장소는 도로변이라 그곳은 오래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유턴을 해야만 하는 곳이다. 할머니들이 약속한 시간보다 20분 전에 그곳을 지나면서 보니 세 분의 할머니가 벌써 나와 계신 것이다. 원래 노인분들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최소한 10분 전에는 나와 계실 거라 생각

했는데 벌써 나와 계신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두 분을 기다리려고 차를 대었다. 그때 미리 식당에 가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 전화한 것이다. 내가 할머니들을 보았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 말했다. 정한 시간에 장소에 가니 세 분의 할머니가 계셨고 모두 차에 태우고 확인했다. 나머지 한 분은 못 오시고, 한 분은 근처의 커피숍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곳에 계시라고 하고 태우러 커피숍을 가니, 그 사이 그곳을 나와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고서야 네 분 할머니를 식당으로 모실 수 있었다. 오늘 메뉴는 갈치조림인데, 할머니들의 식사를 대접한다는 소릴 듣고 식당 주인이 반찬도 더 준비하고, 갈치도 많이 넣어 주어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잘들 드신다.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까지 안내해 드리고 왔다. 차에서 내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할머니들을 뒤로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가고 싶은 곳을 내 스스로 가지 못할 때 그 심정은 어떨까? 네 분 할머니는 여든 중반부터 아흔 초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동생의 봉사에 작은 보탬을 준 게 나를 뿌듯하다.

## 정리 정돈



**2020. 1. 29.**

설 연휴 기간에 집 안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버렸다. 냉장고엔 다음

에 먹겠다고 비닐과 보관 용기에 모셔 놓은 반찬들, 몸에 좋다는 건강 식품들, 모두가 시간이 꽤나 지나 버린 것들이다. 모두 다 버렸다. 장롱과 옷걸이에는 오래도록 입지 않은 옷들로 빈틈이 없다. 이견 유명 브랜드라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 이견 몇 번 안 입은 옷이라, 버리지 못하고 고이 모셔 놓고 있는 것이다. 언젠간 다시 꺼내 볼 것 같아 쌓아 둔 책에는 먼지가 쌓였다. 수많은 자료들은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오늘에 바빠 살다 보니 과거의 추억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더욱 깊은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왜 항상 마음이 어지러운가. 왜 책상과 냉장고, 방 안이 혼잡한가. 비워 내지 못하니 쌓이는 것이다. 쌓이면 지저분하고 분별할 수가 없다.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버리긴 아깝다는 생각에 바로 정리를 못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회사에서는 '5S3정' 운동을 거의 모든 사업장에 표어를 내걸고 요란하게 했었다. 일본에서 도입한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이었다.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계열사 공장을 방문해 공장장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돌아볼 때 공장장이 회장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5S3정 운동이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를 들은 이 회장은 공장장에게 “사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주었다고 한다. 사원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정리한다는 것을 집 안뿐 아니라 인생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 인생의 창고와 마음의 옷장을 열어 본 후 털어 낼 것, 버릴 것을 과감히 정리해서 혼란한 마음을 가볍고 맑게 하여 새로운 의욕을 샘솟게 하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게 어떨까?



2020. 1. 30.

나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논과 밭일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막걸리를 드시는 광경을 많이 보고 자랐고, 멀리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양조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막걸리를 말통으로 사 오는 심부름도 많이 했다. 또,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 논밭으로 나르는 일을 하면서 막걸리 맛이 궁금해 몰래 마셔 보기도 했다. 우리 집은 논농사를 많이 지어 집에서 막걸리를 직접 담가서 큰일에 쓰기도 했는데, 이 술은 밀주라 세무서의 단속을 피하려고 땅속에 묻기도 하고, 벼짚 낱가리 속에 숨겨서 써야만 했다. 이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땀을 흘리는 일을 하고 나면, 특히 텃밭 일을 하고 나면 막걸리 한잔이 생각난다. 그런데 막걸리를 마시고 나면 숙취가 오래가고, 소변을 자주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꺼렸었는데, 요즘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마셔 보면서 내게 딱 맞는 막걸리를 찾게 되었다. 이 막걸리는 도수도 낮고, 한 병을 마셔도 아침에 숙취가 전혀 없고 기분이 좋다. 막걸리는 곡주이며 발효주라 화학주인 소주에 비할 수 없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마시고 있지만, 술인지라 많이 마시는 않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막걸리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 정리해 보았다.

### 1. 면역력 강화

누룩의 효모와 풍부한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 준다.

### 2. 다이어트 효과

술 중에 칼로리가 가장 낮고, 식이섬유가 많고, 메티오닌 트립토판이 많아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

### 3. 항암 효과

스쿠알렌이 풍부해 항산화, 항암,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고 파네졸이란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예방한다.

### 4. 통풍 예방

요산 수치를 감소시켜 통풍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 5. 성인병 예방

효모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 6. 피부 미용

비타민B, D, 단백질 성분이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피부를 희고 맑고 탄력 있게 해 준다.

### 7. 장 건강, 변비 예방

유산균 함유량이 요구르트, 요거트에 비해 400배 이상 함유해 장 건강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요즘 막걸리를 마실 때 흔들지 않고 맑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밑에 가라앉은 곡류의 영양 성분과 발효 중에 생긴 생리 활성 물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 알짜를 버리는 꼴이 된다.

뚜껑을 열 때 넘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뚜껑을 뗀 후 다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

## 옛 추억을 그리다





2019. 5. 22.

감기약 기운이 몸을 가라앉힌다. 콧물감기를 빨리 떨쳐 버려야 하는데 걱정이다. 나는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 편이다. 환자가 밀려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게 싫고, 감기 정도는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잘 낫는 편이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 대형 병원에서 약을 탈 때도 번호가 있어 전광판에 뜨니 내가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름을 불러 그때 없으면 맨 뒤로 밀려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이름이 불릴까 봐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았다. 감기에는 약이 없고 잘 먹고 쉬어야 한다 하니, 오늘은 감기를 핑계 삼아 쉬어 보련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채광이 잘되는 거실에서 잘 준비를 한다. 이렇게 거실에 잠자리를 준비하다 보니 예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 때가 생각났다. 일요일이면 일찍 일어나 대청소를 하고,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가 할 일을 했다.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채광이 잘 드는 거실에 자리를 펴고 1시간 정도 잠을 잤다. 자고 나면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고, 아침을 두 번 맞이하는 느낌이 들었다. 청양고추를 넣은 콩나물국으로 저녁을 하고 덕동산에 물을 뜨러 갔다. 덕동산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사생대회, 백일장 등의 행사를 많이 해서 나를 추억이 있는 장소이다. 나는 음악(노래 부르기)을 제외하고,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상도 많이 받았다. 서예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해서 평택군 대표로 경기도 휘호 대회에 나가 입상을 했고, 교내 사

생 대회에서 입상, 백일장에서는 운문 부문에서 차상을 받고, 영어 웅변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이런저런 추억을 더듬다 공무원 시험에서 평택군 수석을 하고,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임용후보자반 1개월 합숙 교육에서 수석을 차지해 경기도지사 상을 받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에서 모자가 부여잡고 눈물을 적셨던 추억이 새롭게 떠올라 어머니 이 마음 깊이 그리워진 하루였다.

## 한자 펜manship 숙제



**2019. 5. 24.**

완연한 여름 날씨가다. 차 안의 온도가 30도를 가리키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차 세무서에 들렀다. 신청사라 깨끗한 게 예전 구청사에서 느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2층 회의실에 올라가 보니 회의실 전체를 납세자와의 상담을 위해 컴퓨터와 도우미를 25명 정도 배치해 놓고, 번호표를 전광판에 뜨게 하고 실시간 대기 인원도 민원인이 알 수 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된 모습을 보며,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를 잠시 회상하게 된다. 내가 초임 발령을 받은 것이 1977년 5월 20일이니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다. 그때는 컴퓨터란 게 없었고, 대량의 문서 작성은 타자기와 가리방이라고 원고를 전용 용지에 첩펜으로 굵어 써서, 등사기로 밀어서 했고, 모든 서류 작성은 볼펜으로 써야만 했다. 그러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인 명부를 여러 부 작성해야 하는데 먹지를 이용해 위에서 볼펜으로 눌러 써야 했다. 그런데 양이 많고,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정 사무가 되어서 야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 이름을 한자로 써야 하는데, 한자가 약한 공무원들은 한자 그리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여자 공무원들과 경력 있는 공무원들 중에도 내게 어려운 한자를 물어 오기도 했고, 나는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옥편을 찾아서라도 알려 주었다. 나는 할아버님께서 한학을 하셔서, 일찍 천자문을 떴었다. 중학교에서는 한문을 교감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펜맨십이라고 한자를 점선으로 바탕에 띄우고 그 위에 따라서 쓰는 연습하는 교재가 있어, 많은 양의 쓰기 숙제를 내 주셨다. 숙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른 반 친구의 펜맨십을 빌려서 숙제 검사를 모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내게도 다른 반 친구가 나의 펜맨십을 빌려 갔다. 그런데 검사를 하던 교감 선생님이 나의 글씨임을 알아채시고는 그 친구의 머리를 도장으로 세 번이나 쳤고,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벌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내가 봐도 그때 나의 한문 필적은 빼어났었다. 바탕 점선의 글자 모형과 똑같은 수준이어서, 교감 선생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칭찬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었다. 이 사건이 전교생에 알려지고는 빌려 가서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이 거의 없어졌다. 이 사건 이후 교감 선생님은 내게 이와 관련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2019. 6. 11.**

아침의 공기가 상큼하게 느껴진다. 19도의 온도와 가벼운 바람, 비 온 뒤 나뭇잎의 깨끗하고 빛나는 색깔까지.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아파트를 벗어나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대형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둘 다 많이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119의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내가 볼 땐 신호 위반을 해서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운전을 배울 때부터 누가 보든 안보든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내가 기아전자에 근무할 때, 현장 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고’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어 여사원들에게 “여러분, 사고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질문을 하니 아무도 답을 못하고 나만 쳐다본다. “여러분 ‘사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때야 교통사고, 남녀 간 불륜 사고, 산재 사고 등등 사고라는 이름이 붙은 게 모두 다 등장한다. 여러분 ‘사고’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만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나름의 정의를 내려 주니, 여사원들의 반응이 ‘맞아 맞아’로 나타난다. 국어사전에는 ‘사고’를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로 정의하고 있다. 아무튼 사고는 안 좋은 일이다. 일어나면 불행한 일이다.



2019. 6. 29.

맹순이네 식당에서 늦은 아침을 하며, 주인장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회사나 공장의 경우 경비실이 있어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냐? 그런 경우 음료수라도 한 병 건네주며 수고하신다고 인사하면서 부탁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들러서 부탁하면 들어준다. 그러니 한 번 거부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영업을 해서 고정 거래처를 늘리는 것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라고 조언해 주었다. 나의 경우 7~8번 찾아가 거래처로 만든 곳이 여러 곳이다. 내가 나올 때, 집에서 따 왔다는 살구를 한 봉지 건네준다. 내가 잠시 경험한 식당은 어려운 업종이다. 거기에 배달까지 하는 곳은 몇 배 더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 거래처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신뢰에 금이 가서 거래처가 등을 돌리게 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다. 고객의 유형은 다양해서 정답이 없다. 어떤 곳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 식당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아무 문제 없는 국에 이물질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 오는 곳도 있다. 배 과수원이 많은 이곳은 배 봉지를 쌀 때가 제일 바쁘다. 하루에 세 끼를 배달해야 하는 곳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산재된 곳을 시간 맞추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 배 과수원 주인이 식대를 주려고 기다리고서 있는데, 봉투가 2개다. 하나는 식대고 하나는 팁이다. 맛있게 해 주

고, 시간을 잘 맞춰 줘서 고맙다는 답례란다. 나는 이런 팁을 두 번 받아 보았다. 모든 것이 내가 정성을 다하면, 받는 사람도 내게 보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 대통령 의전 행사



### 2019. 7. 4.

오늘은 관리 규약을 시청에 신고해야겠다. 개정(안)대로 수정한 전문을 3차례 교정을 보았는데도 다시 보면 교정할 곳이 보인다.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 그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매년 초 대통령이 연두 순시 차 도청을 방문해서 도정 현황과 그해의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받고 지시한다. 또, 도 단위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과 오찬을 하면서 의견을 듣는 행사가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면 초도 순시차 시도를 순시하는 의전 행사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도청에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기획단을 만들어 생활관에서 숙식하면서 제반 준비를 하는데, 나는 준비단에 차출되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 외의 일이 추가되니 그 기간은 집에도 못 가고 한 달 동안 밤잠을 못 자며 대통령께 보고할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보고받으면서 지시할 내용도 정리하고, 지역 유지들과 간담회에서 유지들이 건의할 내용도 정리했다. 이것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전해 주어 준비토록 하고, 대통령의 답변 자료도 만들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았다. 준비단은 기획부서의 과장이 맡고, 기획부서 계장 2명, 실무

자 4명 총 7명으로 꾸려지는데, 내가 맡은 일이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일이라 거의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는 컴퓨터가 없어 모든 것을 사인펜과 플러스펜으로 써야만 했다. 도청에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 글씨가 국한문 혼용으로 써 놓으면 보기에 피로하지 않고,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해서 윗분들이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선호했다. 결국 대통령 행사도 거의 내 글씨로 연설문부터, 보고 시 지시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등을 정리하고,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으면 정서를 해야 했다. 결재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뤄지고, 최종 결재를 받은 후에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행사 당일 대통령 앞에 놓을 때까지 긴장을 해야 한다. 보고 자료는 인쇄소에서 청타로 인쇄해서 사용했는데, 7명이 수차례 교정을 봐 최종 확정을 하고 인쇄 작업을 승인했다. 그런데 당일 행사장에 가지고 가면서 보니 오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시간은 없고 인쇄소에 전화해 한 자를 여러 개 인쇄해 오라 했다. 그리고는 예리한 커터 칼로 오려 내 땀질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교정이란 게 어려운 것이다.

## 양자 만족



**2019. 8. 11.**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성산을 오른다. 바람이 약하고, 약간 흐린 날씨가 산을 타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다. 이제 더위도 조금씩 꺾여 가고 있



는 느낌이다.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도 들려온다. 어제 산을 탈 때 느꼈던 다리의 느낌이 한결 좋아졌다. 오늘은 코스를 운수암 방향으로 정했다. 가끔 다니던 길을 바꿔서 타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 같은 길도 언제 걷느냐에 따라 주변 분위기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부산으로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KTX, 비행기라는 답을 하는데, 정답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라 한다. 그렇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여행의 즐거움과 만족을 더해 줄 것이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덜 가지려 하면 서로의 관계는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득이 되는가를 말이다.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계산대에서 지갑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중학교 동창을 만나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내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다음에는 자기가 한번 사겠다고 한다. 그 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계산할 시간에 친구는 화장실을 간 것이다. 나는 기다릴 수 없어 계산을 했다. 늦게 화장실에서 나온 친구는 자기가 할 건데 내가 계산을 했다고 한마디 한다. 다른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다. 식당에 부

식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밥 한번 사지 않는 구두쇠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친구란다. 세 번째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구두끈을 매느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번을 끝으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은 상대성인 것이다. 서로 오래도록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양자가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 도청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를 만나다



**2019. 9. 18.**

최갑선, 1979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평택군청에서 근무 중 경기도청 전입 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청 상공국 상정과에 보직을 받아 일하면서, 안성 출신의 최갑선 친구를 알게 되었다. 서로 근무 부서는 달랐지만, 나도 국 서무를 보았고, 친구도 국 서무를 보게 되어 우리는 국 서무들의 회의와 미팅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그러다 나는 기업체 공채에 합격하여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나의 전직을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하며, 많은 선후배들이 아쉬워하고 걱정도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공무원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고 평택과 안성이라는 고향이 인근이라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이다. 7~8년 전 친구가 안성시장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도로에서 조우를 했고, 친구의 집이 대림동산 안에 전원주택으로 집의 위치도 알게 되었다. 나의 출근길이 친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어 지날 때마다 정

원에 잘 가꾼 텃밭을 보면서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텃밭에서 고추를 따는 친구를 만났다. 현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올 초에 부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짧은 시간이지만, 젊고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옛 추억을 서로 그려 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빠른 시간에 친구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 꿈을 이루기 위하여



### 2019. 11. 5.

우리는 꿈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80년대 초반에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경기도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저녁을 같이했다. 언제 한번 식사하자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최갑선’, 머리는 흰머리로 중후하게 변했지만, 다부지고 꼳꼳한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다. 도청을 퇴직하고, 경기도 국악당에서 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고향인 안성에 귀향해 시장 선거에도 출마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하면서, 영업용택시 기사도 2년이나 했다. 우리가 남의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주변의 시선, 남을 헐뜯하는 세태,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견뎌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노년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경험담이 서로를 잘 알 수 있고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을 잘 살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 곱게 늙어 가는, 아니 익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사장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최 형,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봐. 옛된 최 형의 얼굴이 변한 걸 보니.” 우리는 소주 한 병을 가지고 2시간을 즐겼다. 자주 얼굴 보자며 뒤돌아 가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진다.

## 김장



**2019. 11. 14.**

입동이 지났으니 겨울철 반 식량인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왔다. 관리동에 마주 보고 있는 노인회에서 어제 김장을 담갔다. 비가 오는 관계로 우리 사무실 앞 복도 공간에서 김장을 하다 보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사무실에 그대로 전해진다. 지켜보는 가운데 네댓 분이 양념을 만들고, 배춧속을 넣으시는 것 같다. 지켜보시는 연로한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각자 나름대로 오래도록 김장을 담가 봤으니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이다. 거기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음에 차지 않고, 직접 일은 할 수 없으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김장은 지역마다 짓갈 쓰는 것도 다르고, 양념에 넣는 재료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담근 김치의 맛은 어떨까? 김치 담그는 것도 요리의 일종이다. 이것 역시 요리사가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도해서 요리를 만들어야 나를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만든 요리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요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돼지고기 수육을 배춧잎과 양념 속을 함께해서 보쌈으로 먹는 것이다. 나는 돼지고기를 오겹살 부위로 끊어서 노인회에 전해 드렸다. 김장을 다 마친 후 노인회에서 우리 직원들, 경비원, 미화원 모두를 점심 식사를 같이하자고 불렀다. 나는 선약이 있어 같이 못 한다 하니, 노인회 총무님은 수육과 배춧속을 포장해서 보내왔다. 점심을 하고 오니, 노인 회원들이 돼지고기 수육이 너무 맛있었다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사 오셨냐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건네온다.

## 수영 스타 최윤희의 변신



**2019. 12. 20.**

아시아의 인어. 아시안게임 수영 5관왕. 최윤희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13살이나 많은 백두산 보컬 유현상과 결혼을 발표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었다. 수영 선수와 보컬의 만남, 13살이라는 나이의 차이, 그러나 그들은 나이를 극복하고 불협화음 없이, 세간의 입소문 없이 조용히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 돌아온 최윤희. 내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게 전부고, 남편 유현상의 <고삐>

라는 노래를 7년 전 산악회 송년회에서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추억이 전부다. 운동선수가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것 같다. 여론의 반응도 긍정과 부정 반반 정도인 것 같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고 쉽게 재단하는 경향이 있다. 프로필에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으면 그 분야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내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그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아 왔다. 대부분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론에서는 강하지만 현장 실무에선 경험이 전무하여 정책 집행에서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아 왔다. 남편인 유현상은 아내 최윤희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늦게 들어와서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 남편의 아침 밥상을 준비해 놓고 출근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로서 극한 상황에서 견뎌낸 끈기와 열정이, 가정과 회사의 대표 자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온 최윤희의 저력이 차관이라는 자리도 잘해 내리라고 믿는다.

## 어머니를 그리다



**2019. 12. 26.**

어제 어머니가 계신 수원 연화장 추모의 집을 찾아 제사를 모셨다. 자주 찾아뵙어야 한다 하면서도 약속을 못 지키고 이런 날에야 찾게 되는

나 자신을 질책해 본다. 준비해 간 음식과 과일을 제단에 올리고 자식들이 절을 올린다. 모든 부모가 그러했듯이 어머니는 대농의 농사를 일구기까지 쉴 틈 없이 일에만 파묻혀 지내셨다. 그런데 좀 형편이 나아질 때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노년을 보내셨고 자식들의 호강도 받지 못하시고 떠나셨다. 장남인 나를 늘 챙겨 주셨던 어머니.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집에서 키운 채소를 20리 길이나 되는 먼 길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 파셨다. 그럴 때면 학교 마친 나를 시장으로 불러내 장터 국밥을 사 주셨다. 그때는 그 국밥에 있는 고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나이가 들어 확인해 보니, 그 고기는 보신탕이었다. 그때 개고기란 걸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가격이 싼 장터국밥보다 비싼 보신탕을 아들에게 사 주신 것이다. 시장 공터에 차양을 치고 긴 나무 의자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 가며 먹는 모습을 보면, 먹고 싶어졌던 장터 국밥. 지금도 어릴 때 시장에서 먹었던 장터 국밥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2019. 12. 31.**

매일 같은 일상인데 주변에서 요란스럽게 알리는 메시지가 귀에 맴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 살기가 각박해진 한 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광화문 거리. 우

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해 오는 메시지의 느낌은 다르다. 정권의 유지와 정권의 탈환을 위한 싸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 안으로는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성취했으며, 그 결과 나의 삶은 어떤 변화를 맞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는 시간이다. 우리는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소망을 빌고 다짐하는 해돋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유명하다는 해돋이 명소에는 전국에서 모인 인파로 북새통을 이룬다. 우리는 늘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다짐한다. 여기에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은 달라야 하고 좋아져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힘든 역경도 견뎌 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안다면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아니요’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초에 역술인을 찾아 한 해의 운세를 본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마음으로 복채를 지불하며 예약을 하면서까지 운세 보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0. 1. 9.

연 3일째 겨울비가 내렸다. 비가 오니 따끈한 국물이 생각난다. 10시가 지난 시간 안성지부장님의 전화가 왔다. 비도 오고 하니 점심에 칼국수가 어떻겠냐는 것이다. 11시 50분에 우리 아파트로 차를 대겠다는 것이다. 지부장님은 관리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주택관리사협회 안성지부의 회장을 맡고 있어 안팎으로 바쁜 분이다. 이런 분이 전화를 주시고 차까지 대겠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한일아파트 소장님과 셋이서 안성에서 소문난 칼국수 집으로 향했다. 경찰서 하천을 따라 시청 방향으로 가다 주택가로 접어드니, 말 그대로 골목에 주택을 개조해 만든 골목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는 들어서자 바로 결제기가 있어 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게 다른 식당과 다르다. 사골육수 손칼국수에 바로 무친 콩나물을 얹어 먹는데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과 국수가 어우러져 나름 독특한 맛이다. 양도 큰 그릇에 많이 주어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겐 인기가 있겠다. 우리는 모두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나는 오늘 칼국수를 먹으면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평택군청에 근무할 때 점심시간에 즐겨 다녔던 경찰서 앞에 있던 ‘충남 칼국수’가 생각났다. 그때가 더운 여름인데도 그 집은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다 먹곤 했던 곳이다. 그 식당은 사골 국물에 호박과 감자가 들어간 손칼국수에 매콤한 고추 양념장을 얹어 먹는데 물고추를 갈아서 만든 적당히 익은 배추김치가 일품이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우면 온몸이 땀으로 젖곤 했다. 전날에 술이라도 마셨다면 이 칼국수는 해장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메뉴였다. 오늘 칼국수를 먹으면서 그때의 추억이 나를 40년 전으로 데려다주었다.

## 양갈비



### 2020. 1. 21.

1999년 가을, 경기도 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그리스,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20일간 다녀온 적이 있다.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 관내 1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경기도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외무부에서 파견된 김영민 대사가 부단장을 맡아 현지 무역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었다. 나의 경우 그 당시 기아전자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로 참석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나라마다 한국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대접받았고, 사전에 무역진흥공사가 홍보를 하여 관심 있는 바이어들을 호텔로 초치하여 마련된 전시관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까지 성사되는 적극적인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사업이었다. 보통 한 나라에서 4~5일을 체류하면서 3일은 비즈니스로, 1~2일은 현지 관광도 하는 일정이었다. 오가는 길에 홍콩, 필리핀, 인도를 경유하여 총 7개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의 초청으로 식사에 초대받은 일이다. 바

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별장을 짓고 아시아권 도우미들을 200여 명이나 두고, 우리나라로 보면 신라호텔 수준의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왕자였다. 그곳에서 양고기 파티를 열어 왕자가 직접 양갈비를 구워 우리 일행을 대접하였다. 그때 양고기를 처음 접했는데 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며칠 전 퇴근길에 평택시내에서 차량이 지체하고 있는 중에 도로변에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셰프가 직접 양고기를 굽는 장면이 보이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먹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곳에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 이곳은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매장에는 4인용 자리 세 테이블로 미리 예약을 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그곳을 찾았다. 15평 정도의 작은 가게에는 셰프와 서빙하는 두 청년이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경양식 식당 같은 분위기에서 양갈비를 맛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여 년 전 사우디에서 맛보았던 그 맛이었다. 요즘 중국인들이 차린 양고기 식당이 눈에 많이 띄는데 웬지 그곳에는 가고 싶지가 않다. 가까운 곳에 마음에 드는 양갈비를 맛볼 수 있는 셰프와 식당을 만나 행복했다.

## 설 선물



**2020. 1. 22.**

설이 며칠 안 남았다. 이때쯤 되면 선물을 준비하고, 돌리는 풍경이 눈에 선하고, 이제 설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경우

설 선물을 많이 받아도 봤고, 많이 돌리기도 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이 와이셔츠와 청주 한 병을 들고 집에 인사를 오던 장면들이다. 아버님은 마을의 청년들을 면사무소와 군청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알선해 주었고, 그분들 중에는 정규직이 되어 시청의 동장과 과장으로 퇴직한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셨다. 또 한 장면은 내가 중견 기업의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있을 때 집으로 지방의 지점과 영업소, 공장의 책임자들이 많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왔다. 혼자 집에 계신 어머니가 이 선물을 받으면서 걱정이 되어 “아비야, 이 많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거냐?”라고 전화를 하셨던 일이다. 나도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선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물을 받은 상사의 부인이 너무 좋은 선물을 보내 주었다고 인사를 해 온 일이다. 그 당시가 1980년대 초인데, 선물로 한우 갈비 세트가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포장은 고급스러웠지만 내용은 기름이 많은 갈비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많았다. 나는 서울 독산동 도살장에 아는 사람을 연결해서 기름을 제거한 최상의 갈비를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주었다. 그때 사람들로 부터 선물을 잘 받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다. 과일을 선물할 때도, 박스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좋은 것을 골라 별도로 포장해서 보내곤 했다. 선물은 보내는 사람의 정성이 묻어나야 한다.



2020. 1. 23.

내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간다. 대체 휴일까지 포함해 4일간의 휴무다. 직장인들은 기다려지는 연휴가 되겠지만, 설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 되는 시간이다. 나는 중학교를 다닐 때, 열차 통학을 했다. 집에서 1시간을 걸어 나와 서정리역에서 평택역까지 10km의 거리를 열차를 탔는데, 설 때가 되면 열차는 귀성객으로 초만원이라 차에 오를 수도 없어 출입문 입구부터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러다 보니 열차의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가는 위험천만한 풍경도 연출되고, 출입문의 난간에 매달려 가는 고역을 참아야만 했다. 한 정거장이기에 참고 견뎠지만, 먼 거리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열차의 지붕이 편안한 자리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제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교통수단도 다양해져 귀성열차의 풍속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아이들에게 설빔과 세뱃돈을 받는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다. 나의 경우 세뱃돈을 저금하여 중학교 2학년 때 진승현 쓰리세븐 스케이트를 샀었다. 마을 앞 저수지에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 당시 선배 형들은 칼썰매를 만들어 타든가, 군화에다 철물점에서 구입한 무쇠로 만든 칼날을 장착한 스케이트를 주로 탔다. 마을에서 제대로 된 스케이트를 처음으로 탔으니, 친구와 선배 형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나의 웃집 형님은 아버지의 구두를 몰래 가져다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칼날을

달아 스케이트를 타다 발각되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다. 스케이트를 타다 얼음이 깨어져 물에 빠져 위험천만한 일도 겪었고, 젖은 옷을 불에 말리다 양말과 옷에 불뚱이 튀어 설빔 옷에 구멍을 내서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다 들통이 나서 혼났던 일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자리하는 오늘이다.

##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2020. 2. 12.**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평택시청의 최완규 국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최 국장은 나의 중·고등학교 5년 선배이고, 공무원도 선배다. 내가 경기도청을 퇴직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직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선배다. 내가 민간 기업을 퇴직하고, 두 가지 자영업을 했다. 그중 하나가 사무기기의 소모품을 납품하는 일이어서 평택시청도 나의 거래처 중 하나였다. 나는 공무원 시험,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교육, 도청 전입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하고, 평택 군청에서 경기도청으로 올라가 근무를 잘하고 있었다. 나의 고향인 평택 군청의 동료나 후배 공무원 중에는 나를 자기들의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후일담이 내게도 들려오곤 했었다. 최 국장의 이 말은 우리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급 기관인 도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근무를 잘하고 있어 머지않아 고향인 평택시의 부시장으로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왜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선배의 이 말은 안정된 공무원을 떠나 왜 고생을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거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선택은 안정과 편안함보다는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변화에 도전해 보고, 나의 능력을 키워 보고 싶은 열정이 컸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성향이 아니다. 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스타일이다. 이런 나의 성향이 공무원과 민간 기업 두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다양한 삶을 경험한 것에 만족하고, 아직도 부족한 나를 채워 가는 데 더욱 채찍질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Good Idea!!!



**2020. 2. 13.**

어제는 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인데 봄비와 같은 기분이 느껴진다. 이 비로 봄을 기다리던 꽃나무들이 때 이른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40여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본다. 그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로,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경기도지사로 치안본부장을 하던 엄보현 씨가 왔다. 전두

환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염 지사는 아침 일찍 개최하는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얼마나 실국장들을 다그쳤는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심정이란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염 지사는 쉬는 날에도 도내 곳곳을 누비고 다녀 비상을 자주 걸어,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었다. 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32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조례와 규칙을 검토, 심사하는 업무와 각 부서에서 질의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의 상사인 김종식 법제계장이 도지사 결재를 받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물었다. “최 주사, 올해 나이가 몇이요?” 나를 포함한 사무실에 있는 담당관님, 계장,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내용인즉, 법제계장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두 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가 법무회보의 발간 계획이었고, 또 하나는 자치 법규 정비 결과 보고서였다. 도지사는 결재를 하면서 “이 계획서를 누가 작성하였나? 그 직원은 이런 글씨를 어디서 배웠나? 그 직원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고 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내 나이가 생각이 안 나서 대충 답변을 했다고 한다. 도지사는 결재를 하면서 결재 사인 옆에다 ‘Good Idea!!!’를 써 준 것이다. 이런 결재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 내에 퍼지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 보고서를 보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 일이 지난 며칠 후 염 지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영전하였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윤강열 관광과장님은 농담을 내게 던지신다. “최 주사, 서울특별시로 올라가지 않았어?”





2020. 2. 14.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3~4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대농으로 전라도가 고향인 두 분의 일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상주하면서 농사일을 하셨다. 일명 머슴이라는 직업이다. 한 해에 쌀 10~12가마를 받고 일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두 마을 사람들 30여 명이 이른 아침에 큰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풍경이, 내가 볼 때는 잔칫집 분위기였다. 검정 콩밥이 가득히 담긴 커다란 양푼 3~4개가 중앙에 자리하고, 김치며 반찬 몇 가지에 돼지고기와 두부가 들어간 사태찌개를 한 대접씩 앞에 놓고 자작하게 비벼 드시면 그 많던 양푼의 콩밥은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사라진다. 이러다 보니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부엌에서 어머니의 불을 때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아버지는 나를 논밭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내 방에 대형 배터리를 사용해 형광등을 달아 주셨다. 그 당시 우리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석유를 사용한 등을 켜고 살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야 전기가 들어왔다. 내가 공무원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범양냉방의 본사인 여의도 사옥에 출근할 때인데, 그 당시 안양 평촌에서 버스와 전철로 출퇴근을 하였다. 출근 시간이 9시였는데 7시 이전에 출근해 자리에 앉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빌딩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는 이 회사 총무

과장은 외박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찍 출근하는 나를 찾아와 본인이 오해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일도 있었다. 나의 부지런은 경기도청을 다닐 때도 평택에서 버스 첫차를 타고 수원역 앞 터미널에 내려서 팔달산에 있는 도청까지 30여 분을 걸어 올라가면 7시 30분이 된다. 정문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하냐고 묻는다. 나는 이른 시간이 전화나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 집중해서 일을 하니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관계법령을 연찬할 시간과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 그 시간이 자유롭고 행복했다.

## 인간관계의 중요성



**2020. 2. 18.**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 간접 존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나는 ‘인간관계’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이야기다. 내가 범양냉방에서 기아전자로 자리를 옮긴 후 일어난 일이다. 내가 기아전자에 가기 전, 대표이사가 평택공장의 공장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현장의 기술자 두 명을 대표이사가 일본 기술 제휴 회사인 KAYASHO에 출장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공장장은 총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담당자는 기술자의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서

을 본사의 담당자에게 올려 보냈는데, 그 서류가 서울 담당자의 서랍에  
 서 잠을 자 버린 것이다. 그 후 대표이사가 출국일이 다가와 공장장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내가 공장관리부장으로  
 자리에 앉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다. 외국 여행 경력이 없는 기술자들  
 이라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신원 조회가 필요하고 여  
 권이 나왔다 해도 일본 대사관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  
 이 부족한 것이다. 나는 이해구 내무부 장관의 비서관인 한석규에게 전  
 화하여 한 비서관이 치안본부를 움직여 바로 신원 조회를 받도록 했다.  
 여권 발급까지는 가까스로 만들었는데, 일본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게 문  
 제였다. 일본 대사관은 당일 발급이 안 되던 때였다. 하루가 부족한 것  
 이다. 나는 그 당시 최병렬 노동부장관의 비서관인 정수복에게 부탁을  
 했고 정 비서관은 외무부 일본 담당 서기관을 연결해 출발 하루 전날 밤  
 에 일본대사관의 도장을 받아 낸 것이다. 시간상으로 내가 서울을 올라  
 가서 해결할 시간도 안 되고, 평택에서 전화로 두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금도 생각을 해 본다. 내가 두 비서관이었다면 이런 부탁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었을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와 두 비서관과  
 의 인연,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온 사연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  
 지만,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사례를 주변  
 에 많이 이야기해 오고 있다. 바쁜 속에서도 자기 일처럼 나를 도와 준  
 참 고마운 두 사람이었다.



**가장 소중한 나에게**

정모에 지음 | 152쪽 | 15,000원

**가장 소중한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  
누구나 지워 버리고 싶은 상처,  
들춰 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

이 책은 작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을 오롯이 바라보고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을 치유해 나간 순간순간들이 수필과 단상, 그림들로 담겨 있다. 특히, 그림에 붙여진 제목들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파스텔 그림 안에 존재한다.

**글이 품은 이야기**

이선웅 지음 | 390쪽 | 13,000원

**사람은 세상의 풍광을 만난다.**

다행히 사람의 이야기를 글이 품게 되고 풍광이 글이 되기도 한다. ‘글이 품은 이야기’는 글과 사람이 만나 그 글이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글과 같이 살아서 전해진다. ‘만남’이다. 한갓 화목이 될 나무 조각도 성인의 글이 새겨지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던가? 언제 누구를 만나는 것은 만물의 삶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침마다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두한 아우가 이 글을 SNS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블로그와 SNS에 공개하게 되었다. 글을 공개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 특별하지도 않은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과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모든 글을 오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루 하루 지나다 보니, 블로그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매일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일까 기다려집니다.’ ‘욕심 없이 사시네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욕심을 내어 그동안 블로그에 올린 일기를 책으로 펼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어졌다.

— 머리말 중에서